

2024 가을 공동 학술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Institute of Foreign Literatur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miosis Research Center
World Arts & Cul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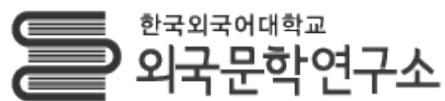
한강의 시선 - 세계의 시선 세계 언론 및 문학계에 비친 한강의 문학

외국문학연구소·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24
가을 공동 학술대회

한강의 시선 - 세계의 시선 세계 언론 및 문학계에 비친 한강의 문학

일시: 2024. 11. 29 (금)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906호
Tel : 02-2173-2549
<http://ifl.hufs.ac.kr>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712호
Tel. 02-2173-340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905호
Tel : 02-2173-2157
<http://semiosi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Institute of Foreign Literatur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miosis Research Center
World Arts & Cultures Institute

2024
가을 공동 학술대회

한강의 시선 – 세계의 시선

세계 언론 및 문학계에 비친 한강의 문학

일시: 2024. 11. 29 (금)

한강의 시선 - 세계의 시선: 세계 언론 및 문학계에 비친 한강의 문학

- 일시: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
-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1:00 ~ 1:20] 사회: 홍재웅 (외국문학연구소 총무)

개회사 | 서유정(외국문학연구소장)

축사 | 전수용(한국문학번역원장)

축하영상

제1부 [1:20 ~ 2:30] 사회: 고슬기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한강과 노벨문학상: 스웨덴의 시선에서 본 한국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	홍재웅(스웨덴)
맨부커상 이후, 한국문학 변방에서 세계문학으로	오은영(영국)
텍스트와 파라텍스트: 노벨상 수상 기사 독자 코멘트 분석	김수연(미국)
문학 언어의 증명: 독일 언론과 문학계의 한강 문학 인식	서유정(독일)
트랜스내셔널: 네덜란드가 본 한강	문지희(네덜란드)
러시아의 한강 문학 수용	박인나(러시아)
프랑스 언론에 비친 한강 작가의 초상	남윤지(프랑스)

[2:30 ~ 2:50] 토의

[2:50 ~ 3:00] 휴식

제2부 [3:00 ~ 4:10] 사회: 이난아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한강 문학과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의 한국 문학 수용	임소라(포르투갈-브라질)
이탈리아, '한강'의 범람	박문정(이탈리아)
스페인어권 국가들의 한강 문학 수용 양상	고슬기(스페인)
발트3국의 한강 문학 수용	서진석(발트3국)
"한강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게 된 바르샤바"-폴란드 언론에 비친 한강의 문학	최성은(폴란드)
한강의 문학, 체코의 시선	유선비(체코)
한강 작가의 문학과 번역에 대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국내의 시선	김상헌(세르비아-크로아티아)

[4:10 ~ 4:30] 토의

[4:30 ~ 4:40] 휴식

제3부 [4:40 ~ 5:30] 사회: 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

한강 문학, 지역성을 넘어 보편성으로	이난아(튀르키예)
한강의 소설: 여성, 가족, 인간애로 아랍 무슬림 사회의 일부가 되다	김정아(이집트)
인도의 한강 문학 수용	이동원(인도)
중국에서의 한강 작품 수용 분석	박정원(중국)
일본 언론에 비친 한강의 작품세계와 일본 출판계의 한국 문학 번역	금영진(일본)

[5:30 ~ 5:50] 토의

폐회사 [5:50 ~] 서유정(외국문학연구소장)

목 차

제1부

1	한강과 노벨문학상: 스웨덴의 시선에서 본 한국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	발표: 홍재웅(스웨덴)
7	맨부커상 이후, 한국문학 변방에서 세계문학으로	발표: 오은영(영국)
15	텍스트와 파라텍스트: 노벨상 수상 기사 독자 코멘트 분석	발표: 김수연(미국)
18	문학 언어의 증명: 독일 언론과 문학계의 한강 문학 인식	발표: 서유정(독일)
26	트랜스내셔널: 네덜란드가 본 한강	발표: 문지희(네덜란드)
	러시아의 한강 문학 수용	발표: 박인나(러시아)
33	프랑스 언론에 비친 한강 작가의 초상	발표: 남윤지(프랑스)

제2부

39	한강 문학과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의 한국 문학 수용	발표: 임소라 (포르투갈-브라질)
46	이탈리아, '한강'의 범람	발표: 박문정(이탈리아)
57	스페인어권 국가들의 한강 문학 수용 양상	발표: 고슬기(스페인)
61	발트3국의 한강 문학 수용	발표: 서진석(발트3국)
64	"한강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게 된 바르샤바"-폴란드 언론에 비친 한강의 문학	발표: 최성은(폴란드)
87	한강의 문학, 체코의 시선	발표: 유선비(체코)
96	한강 작가의 문학과 번역에 대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국내의 시선	발표: 김상헌 (세르비아-크로아티아)

제3부

99	한강 문학, 지역성을 넘어 보편성으로	발표: 이난아(튀르키예)
113	한강의 소설: 여성, 가족, 인간애로 아랍 무슬림 사회의 일부가 되다	발표: 김정아(이집트)
118	인도의 한강 문학 수용	발표: 이동원(인도)
123	중국에서의 한강 작품 수용 분석	발표: 박정원(중국)
128	일본 언론에 비친 한강의 작품세계와 일본 출판계의 한국 문학 번역	발표: 김영진(일본)

한강과 노벨문학상: 스웨덴의 시선에서 본 한국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

홍재웅(한국외대)

I. 서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순간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발표에서는 한강의 수상을 기념하며, 이 특별한 사건을 스웨덴의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노벨문학상’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권위와 설렘, 그리고 ‘한국 문학’이라는 말이 주는 자부심이 교차하는 이 순간은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특별한 자리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한강의 수상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학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노벨문학상이 오랜 전통 속에서 추구해 온 문학적 이상(idealistic riktning)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세계 문학계에 중요한 질문과 통찰을 던지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한강의 문학이 노벨문학상이 지향하는 이상주의적 방향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학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가 한국 문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강의 수상은 한국 문학이 보편성과 독창성을 통해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이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학의 가능성과 세계적 가치를 재조명할 것이다.

II. 본론

1. 노벨의 유언 - 이상(주의)적인 방향

먼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자신의 유언에서 “문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탁월하게 인류에게 기여한 사람(en del den som inom litteraturen har producerat det utmarktaste i idealisk riktning; the greatest benefit on mankind and written in an idealistic direction)”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라고 명시했다.¹⁾ 하지만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대체 이상적인 방향이란 무엇인가?’

스웨덴 아카데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대적 맥락과 문학적 변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 왔다. 즉, 노벨문학상의 이상주의적 방향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문학의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 왔다.

1901년부터 1930년대까지의 초기에는 도덕적이고 고상한 전통적 이상을 중시하며, 문학을 인간 정신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겼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는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현실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문학은 실존적 질문과 윤리적 성찰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1) <https://www.nobelprize.org/alfred-nobel/alfred-nobels-testamente/> (2024-11-20)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전환기에는 탈식민주의와 다원주의가 부상하면서 억압받는 목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조명했다. 이를 통해 문학은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 현대에 들어서는 문학적 다양성과 실험적 표현이 강조되며 문학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경향이 주목받고 있다.

즉, 초기에는 도덕적 가치와 인간 정신의 고귀함을 담은 작품들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책임, 윤리적 성찰, 인간 경험의 보편성, 그리고 문학적 미학의 혁신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2. 스웨덴 아카데미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스웨덴 아카데미는 왜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택했을까? 2024년 노벨문학상 발표 당시, 스웨덴 아카데미는 한강의 문학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for hennes intensiva poetiska prosa, som konfronterar historiens trauman och blottlagger människans sårbarhet)”이라고 평가했다.²⁾ 이는 단순히 한강의 작품이 한국 현대사의 경험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그녀의 문학은 한국적 경험을 보편적 인간성으로 승화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강의 문학은 폭력과 상실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탐구하고, 연대를 통해 고통을 치유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노벨문학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윤리적 성찰과 미학적 혁신이라는 두 축을 통해 문학적 이상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스웨덴 아카데미는 한강의 작품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개인적 고통을 깊이 있는 시적 언어로 표현했다고 보았다.³⁾ 그녀의 문학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드러낸다.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연대를 이루는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한강은 문학이 현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이상주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특히 한강이 서사적 밀도와 시적 언어를 결합하여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고 보았다.⁴⁾ 예를 들면 그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폭력과 고통 속 인간의 내적 갈등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정교하게 묘사한다. 이 작품들은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억압이라는 주제를 시적으로 형상화하며, 인간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한강은 문학이 윤리적 성찰과 공감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스웨덴 아카데미의 지적처럼, 한강의 작품에서 주목할 또 다른 요소는 인간과 자연, 생명체 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며 생명의 윤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녀의 문학은 단순히 폭력과 억압의 현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인간 존재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이상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문학이 단순한 서사를 넘어, 독자와 함께 윤리적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다시 말해서 한강의 문체는 시적이고 감각적이며, 기존 문학적 틀을 깨는 실험적 글쓰기로 독

2)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2024/222000-press-release-swedish/\(2024-11-20\)](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2024/222000-press-release-swedish/(2024-11-20))

3) Anna-Karin Palm, Interview, 10th Oct. 2024.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2024/prize-announcement/\(2024-11-20\)](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2024/prize-announcement/(2024-11-20))

4) *Ibid.*

자들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제공하며, 그녀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독창적 서술 방식을 통해 문학적 미학을 새롭게 정의하며, 이상주의적 방향을 미학적으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한강의 문학은 고통과 연민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폭력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만든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이러한 점에서 한강의 문학은 노벨문학상이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방향에 부합하며, 인간성과 공감의 문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된다.

3. 노벨문학상 선정과 한국 문학의 의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 작가의 영예를 넘어,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조명한 순간이었다. 이번 수상은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적 맥락을 넘어서는 보편성과, 동시에 한국만의 독창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

스웨덴 일간지 Dagens Nyheter(이하 DN)는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이 스웨덴 및 세계 독자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로 다가왔음을 분석했다. DN은 이 목소리가 스웨덴 아카데미라는 전통적 기관의 선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공명했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 아카데미는 한강을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구현한 작가로 평가했다.⁵⁾ 이는 단순히 그녀의 작품이 한국 현대사의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을 넘어, 인간성과 연대를 탐구하며 보편적 가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문학평론가 마틴 겔린 (Martin Gelin)은 한강의 작품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문학적 서사로 엮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트라우마와 기억의 무게를 공유한다”고 평가했다.⁶⁾ 예를 들어,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 학살을, 『작별하지 않는다』는 1948~1949년 제주도 학살을 중심으로 침묵 속에 감춰진 역사를 이야기한다. 겔린은 이 작품들이 단순히 한국 사회의 고유한 문제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평등, 인권, 계급과 같은 보편적 주제를 탐구하며 세계 독자와 깊은 교감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강의 문학이 국제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데는 번역의 역할도 크다. 특히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은 그녀의 작품을 세계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원작의 어조와 의도가 일부 변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Deborah Smith)는 이를 두고 “번역은 배신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이러한 논란은 문학 작품의 보편성과 지역성을 둘러싼 중요한 질문을 촉발했다.⁷⁾

DN의 문학평론가 휴고 린드크비스트 (Hugo Lindqvist)는 번역이 원작의 의미를 일부 왜곡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국제적 수상이라는 영예와 연결된 점에서 아이러니하다고 언급했다.⁸⁾ 팀 파크스(Tim Parks) 역시 번역에 대해 “서구 사상과 논쟁에 맞게 원작을 급진적으로 각색한 흥미로운 사례”라고 평했다.⁹⁾ 이러한 논의는 번역이라는 매개가 문학의 글로벌 성공에

5)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2024/222000-press-release-swedish/> (2024-11-20)

6) Martin Gelin, “Sa erovrar koreansk kultur varlden”, Dagens Nyheter, 10th Oct. 2024. (2024-11-20)

7) Deborah Smith,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Translation”, Los Angeles Review of Books, 18th Jan. 2018.

8) Hugo Lindqvist, “Oversattningen av Han Kangs roman anklagad for forvanskning”, Dagens Nyheter, 10th Oct. 2024.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한강의 수상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DN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문화 투자는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¹⁰⁾ 이는 한국 문학의 국제적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국가적 지원과 비전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마틴 겔린은 이러한 성공이 때로는 과잉된 국가적 자부심과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DN의 문학평론가 변 비만 (Bjorn Wiman)은 “노벨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벨문학상이 국가 브랜드 강화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¹¹⁾ 변 비만은 한강의 수상이 스웨덴 아카데미가 새로운 미적 나침반을 설정한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이 ‘알고리즘적 분배’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노벨문학상이 단순히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선택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작가의 진정성과 문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강의 사례가 이러한 위험을 넘어, 자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진지한 예술적 탐구로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으며, 한강의 수상은 한국 문학이 더 이상 변방의 목소리가 아님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한강의 수상은 그녀의 작품이 가진 깊이 있는 문학적 성찰을 통해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 일으키며, 노벨문학상의 본질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문학이 지역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결국,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전환점을 상징한다. 이는 문학이 단순히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DN의 분석은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며, 노벨문학상이 단순한 상이 아니라, 세계 문학과 문화를 향한 도전과 질문을 제기하는 장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4.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스웨덴 문학계의 시선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학적 경계를 넘어서는 큰 울림을 남겼다. 이 소식은 전 세계 독자와 비평가들 사이에서 폭넓은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스웨덴 문학계와 미디어는 그녀의 수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한강의 작품과 노벨문학상의 조합은 단순한 문학적 평가를 넘어, 문학이 세계의 아픔과 희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1) 한강, 역사와 개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목소리

한강의 문학은 깊은 내면의 세계와 사회적 폭력을 교차시키며, 잔혹함과 인간성을 동시에 탐구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문학평론가 잉그리드 엘람(Ingrid

9) *Ibid.*, Cf.

[https://www.nybooks.com/online/2016/06/20/raw-and-cooked-translation-why-the-vegetarian-wins/\(2024-11-20\)](https://www.nybooks.com/online/2016/06/20/raw-and-cooked-translation-why-the-vegetarian-wins/(2024-11-20)).

10) Martin Gelin, “Sa erovrar koreansk kultur varlden”, *Dagens Nyheter*, 10th Oct. 2024

11) Björn Wiman, “Valet av Han Kang visar hur fåfängan kring Nobelpriset fungerar”, *Dagens Nyheter*, 11th Oct. 2024.

Elam)은 한강의 작품을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 속에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담담히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평가했다.¹²⁾ 엘람은 “한강의 글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트라우마가 개인과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수상이 스웨덴 아카데미가 보다 대담한 문학적 선택을 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¹³⁾

2) 스웨덴 문학계의 엇갈린 반응

하지만 한강의 수상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다. DN의 문학평론가 요나스 텐테(Jonas Thente)는 한강의 수상이 “시대적 유행에 부합하려는 스웨덴 아카데미의 결정”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50년 후에도 한강의 이름이 여전히 기억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¹⁴⁾

반면 작가 뤼라 에크스트림 린드백(Lyra Ekstrom Lindback)은 한강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글은 세계 문학의 보편적 문제를 한국적 정서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찬사를 보냈다.¹⁵⁾

스웨덴 아카데미가 한강의 작품을 어떤 언어로 읽고 평가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은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한강을 국제적으로 알린 계기가 되었지만, 번역본과 원작 간의 의미 차이가 논란이 되었다.

3) 문학적 열정과 세계적 영향력

한강의 수상 이후 스웨덴에서 그녀의 책들은 발표 직후 매진되었고, 도서관에서는 대기자 명단이 길게 늘어섰다. 독자들은 한강의 문학이 가진 ‘거친 아름다움’과 ‘잔혹함과 연약함의 상호작용’에 매료되었다.

스웨덴의 비평가이며 문학교수인 아세 베리(Aase Berg)는 한강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문학적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는 데 이상적인 텍스트”라고 평가하며, 강의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¹⁶⁾

4) 세계 문학으로 자리매김하다

한강의 수상은 한국 문학이 세계적 보편성과 독창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문학은 단순히 한국의 트라우마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인간성과 연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잔혹함과 연약함 사이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그녀의 글은 한국 문학이 보편적 공감을 얻으며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문학을 통해 이루어진 조용한 축하

12) Ingrid Elam, “Hon graver fram minnen som visar hur valdet har drabbat”, SVT, 11th Oct. 2024.

13) Ibid.

14) Jonas Thente, “Fem bocker av Han Kang man bor lasa”, Dagens Nyheter, 11th Oct. 2024.

15) Lyra Ekstrom Lindback, “Recension av kritiker: meta-kritik av Han Kangs författarskap”, SVT, 11th Oct. 2024.

16) Aase Berg, “Han Kang - En stark röst i världslitteraturen”, SVT, 12th Oct. 2024]

수상 발표 후 한강은 기자들과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 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¹⁷⁾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문학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더라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결과적으로 한강의 수상은 단지 한국 문학의 승리가 아니라, 문학의 힘과 가능성을 강력히 증명한 사례다. 그녀의 글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성의 상처를 넘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을 안겨준다. 스웨덴의 시선에서 본 한강의 목소리는 세계가 한국 문학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III. 결론 - 노벨문학상 선정과 한국 문학의 의미: 새로운 목소리로의 초대

다시 노벨문학상의 본질로 돌아가 보자. 노벨문학상은 단순히 문학적 성취를 기리는 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 상은 문학이 인류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상징한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한강의 문학적 해답이 노벨이 꿈꿨던 이상적인 방향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 한국 문학이 세계적 무대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노벨문학상이 새로운 문학적 이상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를 통해 문학의 경계를 확장하는지를 검토했다. 한강의 수상은 단순히 한국 문학의 승리가 아니라, 문학이 인간 경험의 심연을 탐구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다.

물론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과정은 때때로 오해와 논란을 낳는다. “이번에는 아시아 차례라서”, “여성 작가라서”, 혹은 “소설이니까”라는 단순화된 예측이 매년 반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벨문학상을 마치 회전 초밥처럼 “다음 접시는 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학과 상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한강의 수상은 단순한 지역적, 성별적, 혹은 장르적 이유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문학적 진정성과 윤리적 깊이,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낸 결과이다. 스웨덴 아카데미의 선택은 한국 문학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는 강렬한 신호를 전달했다.

결론적으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학이 국가나 지역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가치를 탐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작품은 문학이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을 넘어, 인간 존재와 존엄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는 노벨문학상이 추구하는 이상이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17) Han Kang, “Litteraturpristagaren Han Kang i en exklusiv intervju med SVT”, SVT, 10th Oct. 2024.

영국: 맨부커상 이후, 한국문학 변방에서 세계문학으로

오은영(한국외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건은 2015년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과 2016년 맨부커상 수상이었다. ‘KL 문학 에이전시’ 이구용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채식주의자』를 해외에서 출간하기까지 7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말한다(『문화일보』 2024. 11. 13). 한강의 주요 작품 중에서 『작별하지 않는다 2021』(We Do Not Part 2025)의 영어번역본만 25년 1월에 출판 예정이고 다른 작품들 – 『채식주의자 2007』(The Vegetarian 2015), 『소년이 온다 2014』(Human Acts 2016), 『흰 2016』(The White Book 2017), 『희랍어 시간 2011』(Greek Lessons 2023) – 모두 출판되었다. 이구용 대표의 말에 따르면, 국제적인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후보에 오르려면 ‘5-15-20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14년 전에 만들었던 법칙인데 5편 이상의 장편소설을 출간하고, 15개 이상 국가에 번역 출간이 되고 20년 이상 영미권 독자들과 소통하는 작가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강 작가는 앞의 두 개의 조건은 충족되었는데 영국에 『채식주의자』가 소개된 지는 이제 막 10년이 되었으니 10년을 앞당긴 셈이다”(『문화일보』 2024. 11. 13).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 이후, 『신동아』는 2016년 7월 특집기사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의 김성곤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식주의자』의 영국 ‘포토벨로 북스’(Portobello Books) 출판사와 영어 번역이 성사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13년부터 데보라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지원했다. 스미스는 번역원의 자문위원이자 이곳에서 발행하는 영문 한국문학 계간지 『리스트』(List)의 해외편집위원이었다.

『채식주의자』는 번역원의 주도로 201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스페인, 중국, 포르투갈, 폴란드에서 차례로 출간된 뒤 영미권 진출을 노리던 참이었다. 스미스는 2013년 런던 도서전에 한국 주빈국 행사 준비위원으로 참석해 포토벨로 출판사 편집자에게 『채식주의자』 번역 샘플과 홍보자료를 건넸고 그것이 출간으로 이어졌다. 이듬해 런던 도서전에는 한강과 스미스가 함께 참가했다.

『채식주의자』를 펴낸 ‘포토벨로 북스’ 수석 편집자 맥스 포터(Max Porter)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데보라가 보내온 번역문 20쪽을 받고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완벽하게 설득당했다. 100% 출판을 결심했다”(『신동아』 2016. 7)고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해외 출간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7년이 걸렸던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면 이후 한강 소설의 영어 번역과 출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잡지인 『뉴욕커』의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가능하게 할까?”(New Yorker, 2016. 1. 28)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있던 한국문학이 어떻게 세계문학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기사는 그동안 고은 시인을 둘러싼 한국의 노벨문학상에 대한 논의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요원해 보인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기사에서 주로 지적하는 것은 해외에서 뚜렷한 입지를 다질만한 한국 작가 -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작가는 고은, 신경숙, 김영하 정도다 - 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읽었을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2015년 『채식주의자』 영어번역본이 출간되면서 영미권의 한국 문학 수용에 있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미국의 출판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감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기사가 쓰여진지 정확하게 4개월 후에 한강과 스미스는 맨부커상을 수상했고, 변방의 한국문학이 해외독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된다.

1969년부터 영국, 영연방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부커상(The Booker Prize)은 2005년부터 영어권 문학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 작가의 소속 국가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으며, 2016년부터 작가와 번역자 공동수상 형식으로 구조를 재편한다. 맨부커 국제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이 2016년부터 처음으로 작가와 번역가를 공동 수상하도록 만든 배경에는 21세기 초반 영국 출판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2015년 Nielsen BookSca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책 판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저조했던 반면, 200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번역된 소설의 판매는 96% 성장하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번역 소설의 판매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상황을 보자면, 번역 소설은 전체 출판물의 3.5%이고 책 판매율에 있어서는 7%에 불과했다. 맨부커 국제상이 번역 소설 시장의 급성장에서 가능성을 보고, 영미권 출판시장의 다양성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자 작가와 번역자 공동수상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출판시장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영국의 문학상을 대표하는 부커상이 점점 떨어지는 영국 문학의 활력을 주변부 문학을 적극적으로 통합해 들이면서 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부커상을 재편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커 재단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도미니크 오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채식주의자』의 비폭력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이국적이고 육식의 언어를 빌어 부커 재단은 ‘드물게 매혹적인 물고기들이 살기 마련인, 익숙한 영어 소설의 물 밖으로 출판업자들이 대담하게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번역 생태계를 추동하기 위한’ 자신들의 야망을 설명한다”(Dominic O’key 1276).

반면, 외국 번역 소설이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국제적인 상과 출판시장을 움직이는 현실에 대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폴라 모리스(Paula Morris)는 부커상같은 국제적인 상이 다수의 영연방 작가를 배제하는 역차별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모리스가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2014년부터 작가의 소속 국가의 제한을 풀면서 미국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미국 작가에게도 부커상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그러잖아도 소외되어 온 영연방 국가들의 지역 원주민 문학은 더욱더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모리스는 부커상이 “지역 영어권 출판물보다는 디아스포라 문학과 비원주민(non-indigenous) 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한다(261). 모리스가 직접적으로 비서구권이나 아시아 문학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이는 비서구권 번역 소설들이 점점 강세를 보이는 런던과 뉴욕 중심의 출판시장과 부커상의 흐름에 대한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1. 부커상 이전의 영미권 반응

2015년 1월에 『채식주의자』의 영어번역본이 출간되자마자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 매체인

『가디언』은 다음과 같이 한강 작품을 소개한다. “이것은 한강의 첫 번째 영어 소설로, 영어권 독자의 식탁에 신선하고 강렬하며 충격적인 경험을 추가한다. . . 『채식주의자』는 문장 하나하나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작년 런던 도서전에서는 영어권 출판사들이 더 많은 현대 한국 소설가들을 발굴하려는 희망 속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지만, 『채식주의자』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The Gaurdian 2015. 1. 24). 그러나 『가디언』의 점잖은 평과 달리 미국의 『인디펜던트』는 한국 독자가 느끼기에는 충격적일 만큼 솔직한 서평을 내놓기도 한다. “내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설 중 하나. . . 자신의 정체성을 감히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것은 여성들이다. 소설은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한국식 예절(etiquette)의 무자비한 억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Independent 2015. 1. 10). 이렇게 솔직한 서평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나온 서평 중에서도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의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던 로리 휘더즈(Lori Feathers)의 글이 그러하다. 그는 『채식주의자』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작가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잘못된 신념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영혜에게 목소리를 주지 않고 대신 영혜의 이야기를 그녀의 남편, 언니, 형부를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Words Without Borders 2015. 4. 30). 즉 영혜에게 목소리를 주지 않은 것은 영혜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영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서사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2007년에 쓰여진 『채식주의자』 속의 영혜의 현실은 사실 2015년 한국의 독자에게조차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선 감이 있다. 그러나 한강 소설에서 반복되는 폭력의 양상은 개인적 폭력이든 사회, 국가적 폭력이든 하나의 근본적인 뿌리와 맞닿아 있다. 『오늘의 세계문학』과의 인터뷰에서 한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폭력은 인간성의 일부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인간 중의 하나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와 관련된 고통이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World Literature Today, 2016. 5월). 한강 소설에서 다뤄지는 폭력은 표면적, 사회적 차원의 폭력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다. ‘인간이 인간인 한 폭력의 가해자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나’라는 질문이 한강 소설에서 반복되는 이유다. 이러한 질문 속에 폭력의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한국의 고질적인 가부장제 문화의 폭력적 현실을 다루지만, 소설의 서사를 가부장적인 사회의 특수한 폭력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영혜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가부장제 사회는 서구-비서구라는 지역 구분을 떠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니는 폭력 일반에 대한 비유로 읽을 필요가 있다.

한강이 반복적으로 다루는 폭력의 참혹함은 1980년 5월 광주에 항쟁을 다룬 『소년이 온다』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이를 두고 작가는 “책이 나온 후 첫 여름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The Independent 2016. 1. 7)고 회상한다. 광주 학살에 관한 자료를 찾을 때부터 시작된 악몽과 불면증이 계속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작가의 고통을 그나마 견디게 해준 것이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미오 레비(Primo Levi)의 자전소설 『주기율표』(The Periodic Table)였다. 한강이 『소년이 온다』와 『주기율표』가 공유한다고 생각한 것은 “매우 사적인 서사”(an infinitely private narration, The Independent 2016. 1. 7)였다. 레비의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꼈다”고 절망하는 한강에게 위로를 건넰 것은 바로 작가가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은 문체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한강이 레비의 소설을 읽기 전에 이미 한강 소설의 특징이기도 했다. “『소년이 온

다』를 쓸 때 잠정적인 제목이 ‘당신’(You)이었다”(The Independent 2016. 1. 7). 한국 역사의 가장 큰 비극적 사건인 5·18과 4·3 항쟁의 폭력을 다룰 때 소설의 서사가 독자 개인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듯한 특징은 레비의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받았던 위로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목소리를 낮춰서 가만히 얘기하는 것 같은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사적인 문체는 『채식주의자』의 피가 똑똑 떨어지는 듯한 강렬한 문체와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삶과 죽음이 무시로 오가는 극한의 폭력 앞에서 작가는 오히려 목소리를 낮춤으로써 소설을 읽으면서 그 폭력을 몸으로 경험하는 독자를 위로한다.

위에서 언급한 『인디펜던트』의 충격적인 서평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영어판 저널인 『오늘의 한국 문학』(Korean Literature Now)에서 스미스가 언급한 “(특히 아시아)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수동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식의 단순하고 솔직하게 인종차별적인 독법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2024. 11. 15)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작품의 주제가 함축하고 있는 폭력의 주제를 깊이 있게 살피기보다, 낯선 한국 가부장제의 단면에 충격적으로 반응했던 초기의 반응과 달리 2016년 『뉴욕 타임스』 기사는 훨씬 더 균형감 있고 종합적으로 한강 소설을 평가한다.

위험한 점은 이 소설을 오직 민속학적 또는 사회학적으로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영국에서 『채식주의자』가 《이브닝 스탠더드》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을 때, 평론가들은 이 소설의 기이함을 한국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려 했다. 《인디펜던트》는 “소설이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한국식 예절의 무자비한 억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영국 평론가들도 한국에서 채식주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려 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 서구의 페미니즘 시각으로 이 소설이 여성을 비하하는 작품이라거나 ‘고문 포르노’로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인의 기준에 따른) 문제적인 정상성을 가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 작품을 평가하는 결과가 된다. 서구의 시장이나 유행에 맞추지 않고, 서구의 정치적 성향을 따르지 않는 비서구 문학의 방대한 세계가 존재한다. (New York Times 2016, 2. 2)

애나 오구시크(Anna Auguscik)는 맨부커상의 역사와 문화적 역할을 분석한 자신의 저서에서 “부커상이 최고의 소설에 부여된다기보다, 상이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고의 소설을 만들어 간다”(15)고 표현한다. 상대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소설이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을 때와 부커상 같은 국제적인 상을 받은 이후 그 소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2015년에 영국에서 처음 영어로 출간된 『채식주의자』를 둘러싼 영미권의 반응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obscure) 한국 문화와 작가에 대한 솔직한 서구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2016년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은 한강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어로 번역될 수많은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영미권의 반응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부커상 이후의 반응

영국 리즈대학(U of Leeds) 영문과의 도미니크 오키(Dominic O’key) 교수는 학부 학생들을 위한 세계문학 수업에서 2017년부터 꾸준히 『채식주의자』를 교재로 택해서 강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원 수업이 아니라 학부 수업에서 한강 소설을 다룬다는 것은 이미 세계문학의

정전(canon)이 된 한강 소설의 문학적 위상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맨부커상 이후 2022년까지 『채식주의자』는 영국에서 외국 소설로는 기록이라고 할 만한 16만 부가 팔렸다(Dominic O'key 1263). 2015년에 『채식주의자』를 처음 출판한 '포토벨로 북스' 출판사는 2005년에 설립된 런던의 독립출판사이다. 주로 번역 소설을 출판하면서 영미권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문학적 관점을 강조해 왔다. '포토벨로 북스'는 2011년에 '그랜타'(Granta) 출판사에 합병되었고 2019년부터는 '포토벨로'라는 이름 대신 '그랜타 북스'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되고 있지만, 수준 높은 외국 소설을 영미권에 소개해 왔다는 유산을 남겼다. '포토벨로' 출판사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출판이 2015년의 『채식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한국에서 출판된 『흰』은 2017년에 데보라 스미스에 의해 번역되었고, 2017년에 '포토벨로 북스'에서 출판되었으나 2023년 이후부터는 '그랜타 북스'의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한국 독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문학의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영혜의 섭식장애는 카프카(Franz Kafka)의 「단식예술가」(A Hunger Artist), 『변신』, 멜빌(Herman Melville)의 『필경사 바틀비』, 혹은 남아공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쿣시(J. M. Coetzee)의 『마이클 K의 삶과 시대』에서 주인공들의 모습과 겹친다.¹⁸⁾ 또한 『채식주의자』를 지배하는 카프카 소설에서의 초현실적 분위기나 '출구 없음'의 느낌 등은 한강의 소설이 모더니스트 문학의 미학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이 소설이 한국 사회의 억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이들은 주인공의 변신을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명백한 오마주로 본다. 그러나 이 작품의 본질은 정상성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타인과 가족과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룬 것이다. 한강은 이러한 보편적 주제를 180여 쪽에 촘촘하게 엮어 넣으면서 단 한 문장도 낭비하지 않는다. (*Irish Examiner* 2016. 10. 8)

도미니크 오키는 “모더니스트적 미학, 환상적인 요소의 도입, 억압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 한국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균형”(1280) 같은 요소로 인해 한강 소설이 부커상을 받고 세계문학의 정전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채식주의자』는 한국 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문(gateway)이 된 소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참고로, 2018년 『흰』, 2022년 정보라의 『저주토끼』, 2023년에는 천명관의 『고래』, 2024년 황석영의 『철도원 삼대』가 부커상 최종후보(shortlists)에 올랐다. 한강의 수상 이후, 최근 3년 연속으로 한국 소설이 부커상 최종후보로 선정된 것은 세계문학 속 한국 문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2년에는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과 정보라의 『저주토끼』 등 같은 해에 두 명의 한국 작가가 부커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강 소설이 세계문학의 모더니스트적 전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소설들이 주로 출판되는 '호가스'(Hogarth) 출판사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호가스'는 1917년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와 그녀의 남편인 레너드 울프(Leonard Woolf)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다. 기존의 대형 출판사가 아닌 독립출판사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이 작은 출판사는 버지니아 울프뿐만 아니라 엘리엇(T. S. Eliot), 맨스필드 (Katherine Mansfield) 등 20세기 초반의 실험적인 모더니스트 작품들을 출판했다는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현재의 '호가스'는 출판계의 초대형 다국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펭귄 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의 자회사

18) 가령, 매주 발행되는 의학 잡지 『랜싯』(The Lancet)에서 마차릭(Daniel Marchalik)과 주레식(Ann Jurecic)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카프카의 『변신』과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한다.

로 주로 실험적이고 수준 높은 특정 문학 장르—문학적이고 모더니스트적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가 ‘호가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11년에 한국에서 출판되었던 『희랍어 시간』이 2023년에 스미스와 이에원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서 펭귄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해미쉬 해밀튼’(Hamish Hamilton)에서 출판되었다가, 2024년 1월에 ‘호가스’가 아닌 ‘펭귄 북스’(Penguin Books)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펭귄 북스’에서 출판되는 문학 서적들은 모두 세월의 검증을 끝낸 영미권의 고전들임을 상기할 때, 노벨상 수상 이전에 이미 한강의 소설이 ‘펭귄 북스’에서 출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벨상 수상 이전에 이미 한강의 소설이 세계문학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음을 출판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3. 노벨상 이후

한강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던 당일 『가디언』(2024. 10. 10)은 문학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짧은 인터뷰를 소개한다.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의 편집자이자 소설가인 맥스 포터, 한국의 정보라 작가, 소설가 데보라 레비(Debra Levy), 문학 에이전트 로렌스 랄루옥스(Laurence Laluyaux), 2016년 맨부커 심사위원장 보이드 톤킨(Boyd Tonkin)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16년 한강이 부커상을 수상했던 8년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obscure) 한국 작가를 선정한 것에 대해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소설미디어에 글을 올렸던 톤킨은 이제 “더 많은 독자가 이 독특한 관점과 목소리를 가진 작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며 축하했다. 톤킨에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8년 전 맨부커 심사위원들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한강의 영국 출판사 ‘해미쉬 해밀튼’의 출판 총책임자인 사이먼 프로써(Simon Prosser)는 다음과 같이 작가를 평한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명료한 글쓰기를 통해 한강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왜 인간은 그토록 잔인하고 동시에 그토록 아름다운가—에 대한 고통스러운 질문을 깨끗하게 마주한다. 누구와도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작가이다”(The Guardian 2024. 10. 10).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마자 나온 또 다른 기사에서 거의 20년에 걸쳐 한강 소설을 종종 강의했다고 밝힌 옥스퍼드대의 무커지(Ankhi Mukherjee) 교수는 한강 소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한강의 소설은 가차 없이 정치적 - 그것이 몸의 정치든, 젠더의 정치든, 국가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정치든 - 이지만, 결코 문학적 상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경건한 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난기 많고, 재밌고, 초현실적이다”(Smithsonian Magazine, 2024. 10. 10). 호주의 ABC News(2024. 10. 12)는 노벨상 이후 한국의 주요 서점들에서 한강의 소설들이 모두 품절되는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동시에 한강 작가가 현재에도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자회견이나 어떤 축하 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에 비견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이후 <영국 문학번역 센터>(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의 책임자인 라지(Duncan Large)는 호주의 『대담』(The Conversation 2024. 10. 14)의 한 신문기사에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UEA) 내의 <영국 문학번역 센터>에서 2015년에 여름 계절 학기로 진행한 번역 워크숍에 데보라 스미스와 한강이 참여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문학번역원>과의 공동 지원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스미스가 주도하고 한강과 한국어-영어 번역에서

활약하는 6명의 차세대 주자가 모여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작가와 번역가들이 같이 참석함으로써 서로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다. 이후 <영국 문학 번역 센터>와 <한국문학번역원>은 여러 차례 이러한 워크숍을 지원했으나, 그 첫 번째 사례였던 2015년 워크숍은 특히 중요했다고 평가받는다. 영국 내의 SOAS대학, UEA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문학번역 센터가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특히 한국어 번역의 인기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강이 노벨상을 받기까지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에 속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도 한국의 문학번역원과 같은 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Open Letter대표이자 출판업자인 포스트(Chad Post)는 전 세계 경제 13위권에 있는 한국이 재정적으로도 우위에 있지만, 정말 눈에 띄게 다른 것은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출판사의 이해와 상관없이 작품 전체를 번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점이라고 말한다. (*New Yorker*, 2016. 1. 28)

데보라 스미스는 『오늘의 한국 문학』에 실린 최근 에세이에서 『채식주의자』를 둘러싼 오역 논쟁에서 작동했던 ‘여성혐오’가 이 소설 자체에 대한 나이 든 남성들의 반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그만큼 이 소설은 한강의 소설 중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에 맨부커상이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채식주의자』를 대표작품으로 선정했을 때 상당히 놀랐었다고 회상한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2016년 1월에 출판된 『소년이 온다』도 분명히 맨부커상의 수상작 반열에 올라 있었고, 보통 “국제적 문학상들이 역사적, 국가적 트라우마를 다룬 작품들을 선호한다는 점”(2024. 11. 15)을 고려할 때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채식주의자』가 선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스미스의 아쉬움은 2024년 노벨문학상이-노벨문학상은, 맨부커상과 달리, 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수여되지만-특히 『소년이 온다』를 대표작으로 언급함으로써 말끔하게 불식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스미스가 한강의 작품을 번역하고 그것을 둘러싼 오역 논쟁에 휘말리면서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왜 내가 번역가가 되었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이는 번역가의 고뇌를 담고 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한국 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젠더와 인종에 대한 차별 등-가 여전히 만만찮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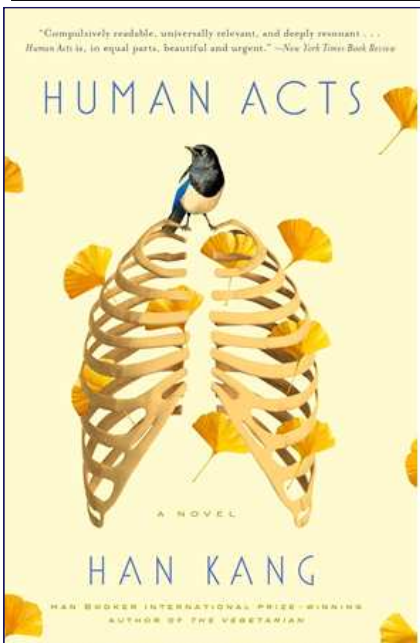
그럼에도 스미스와 같은 좋은 번역가를 만나 한국 문학은 이미 세계문학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다. 『채식주의자』를 해외에서 출간하기 위해 7년을 노력한 이구용 대표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문학의 정점이나 목표지점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문화일보』 2024. 11. 13)고 말한다. 누구보다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에 앞장섰던 그는 이제 한국 문학만이 아니라 “문학에서 시작해서 문화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성”(『문화일보』 2024. 11. 13)이 필요하고 노벨상은 하나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에는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오래된 역사에서 나온 다양한 산문들이 존재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의 철학, 국악, 인문학 등이 더 활발하게 번역되어서 외국의 독자들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인 용 문 헌>

- Auguscik, Anna. *Prizing Debate: The Fourth Decade of the Booker Prize and the Contemporary Novel in the UK*. New York: Columbia UP, 2017.
- Cai, Jenny. "Han Kang declines press conference after Nobel win citing global wars, as her books sell out in South Korea." ABC News(Australia). 2024. 10. 12.
- Feathers, Lori. Han Kang's "*The Vegetarian*." *Words Without Borders: New Palestinian Writing*. 30 April 2015.
- Hahn, Daniel. "*The Vegetarian* by Han Kang review-an extraordinary story of family fallout". *The Gaurdian*. 24 January 2015.
- Han, Kang. *Human Acts*. Trans. Deborah Smith. New York: Hogarth, 2017.
- - -. "*The Periodic Table* by Primo Levi, book of a lifetime: 'An infinitely private narration.'" *The Independent*. 7 January 2016.
- - -. *The Vegetarian*. Trans. Deborah Smith. London: Portobello Books, 2015.
- Khakpour, Porochista. Book Review of *The Vegetarian*. *New York Times*. 2 February 2016.
- Large, Duncan. "Han Kang: translators share memories of working with the winner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The Conversation*. 14 October 2024.
- Lee, Crys. "Violence and Being Human: A conversation with Han Kang." Interview. *World Literature Today*. May 2016.
- Marchalik, Daniel and Ann Jurecic. "Mental illness in Han Kang's ." *The Lancet* (British edition). 13 January 2017.
- Morris, Paula. "The 'leftovers of empire': Commonwealth writers and the Booker Prize." *Journal of Postcolonial Writing*. 56. 2 (2020): 261-170.
- Mythili G. Rao, "Can a Big Government Push Bring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to South Korea?" *New Yorker*. 28 January 2016.
- O'key, Dominic. "Han Kang's *The Vegetarian* and 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 reading with and against world literary prestige." *Textual Practice*. 36.8 (2022): 1262-88.
- Pascal, Julia. "*The Vegetarian* by Han Kang, book review: Society stripped to the bone." *Independent*. 10 January 2015.
- Ring, Paul. Book Review of *The Vegetarian*. *Irish Examiner*. 8 October 2016.
- Smith, Deborah. "Reflecting on Han Kang." *Korean Literature Now*. 15 November 2024.

텍스트와 파라텍스트: 노벨문학상 미국 주요 기사 분석

김수연(한국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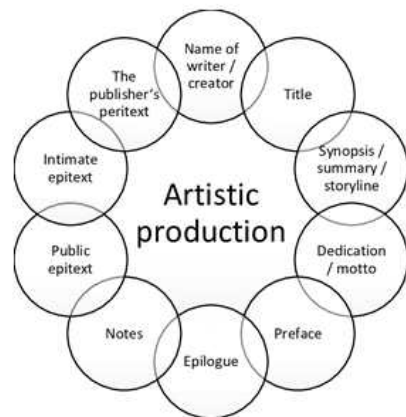
The book cover for 'Human Acts' by Han Kang features a central illustration of a human ribcage. A small blue and white bird is perched on the left side of the ribcage. The background is a light yellow color with scattered yellow ginkgo leaves. At the top, there is a quote: "Compulsively readable, universally relevant, and deeply resonant... Human Acts is, in equal parts, beautiful and urgent." -New York Times Book Review. The title 'HUMAN ACTS' is written in large, blue, sans-serif capital letters. Below the illustration, it says 'A NOVEL' and 'HAN KANG'. At the bottom, it mentions 'HAN BOOKER INTERNATIONAL PRIZE-WINNING AUTHOR OF THE VEGETARIAN'.

텍스트와 파라텍스트 노벨문학상 미국 주요 기사 분석

김수연 | 영미문학·문화학과 | 2024 가을

파라텍스트 (paratext)

- 제라르 주네트, 『파라텍스트: 해석의 문턱』 (1997)
- “책의 내·외부 경계에 위치하며 책, 작가, 독자를 중재하는 장치와 관습들”
- 예: 소설의 제목, 작가 이름, 서론, 주석, 편집자의 페리텍스트(peritext), 에필로그 등
- 문학작품 뿐 아니라 다양한 개별 텍스트를 분석할 때 주변 파라텍스트를 고려해야 함.
- 신문기사의 제목, 기자, 독자 코멘트 등
→ “디지털 파라텍스트”



분석 대상 파라텍스트

- 2024 노벨문학상 수상에 관한 기사 제목
- 주요 일간지 독자 코멘트 분석

The New York Times

A Woman Won South Korea's First Literature Nobel. That Says a Lot.

While Han Kang's victory was celebrated as a crowning cultural achievement for her country, her work also represents a form of rebellion against its culture.



기사 제목

“‘율리시즈’란 제목이 없다면 어떻게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읽을 수 있겠는가” (p. 2)

<뉴욕 타임즈>

“여성이 한국의 첫 노벨문학상을 수상: 여기에는 많은 뜻 담겨”

<워싱턴 포스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한국인들 기뻐하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작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한국인들 기쁨과 놀라움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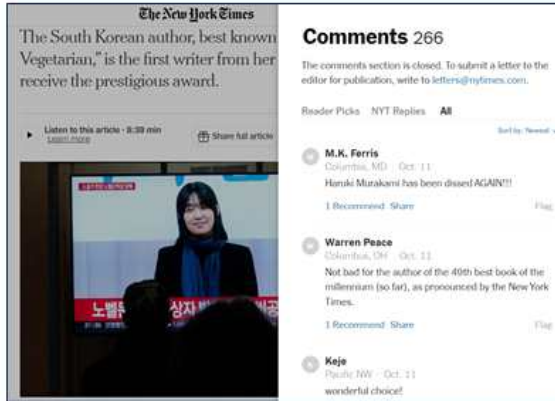
<AP 통신>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한국인들 자부심으로 응답”

<애틀랜틱> (시사주간지)

“한강의 저항적 예술 - 한국문화 비판을 서슴지 않던 작가 한국에 첫 노벨상 안기다”

독자 코멘트 개수



- <뉴욕타임즈>
 - ✓ “한강 노벨문학상 받다 -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작가, 한국 최초로 권위 있는 상 수상” (266개)
 - ✓ “여성이 한국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 여기에는 많은 뜻 담겨” (78개)
- <워싱턴 포스트>
 -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 <채식주의자>로 유명한 한국 작가, 역사에 맞서는 ‘강렬한’ 시적 언어로 수상의 영예 안다” (115개)



<주제어 데이터 시각화>

문학 언어의 증명: 독일 언론과 문학계의 한강 문학 인식

서유정(한국외대)¹⁹⁾

1. 한강 문학의 독일 소개 과정

독일에서 지금껏 한강의 작품을 독점 출판해온 출판사는 저명한 출판사 중 하나인 아우프바우 출판사(Aufbau Verlag, 베를린 소재)이다. 이 출판사는 『채식주의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다섯 권의 한강 작품을 번역 출간하였으며, 곧이어 올해 12월에 출간될 『작별하지 않는다』를 합하면 총 여섯 권을 독점 출간하게 된다. 아우프바우에 한강의 작품을 소개한 사람은 당시 편집자인 톰 뮐러(Tom Müller)이다. 그는 2016년 초, 이미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영국의 그란타(Granta) 출판사의 맥스 포터(Max Porter)의 열광적인 추천으로 『채식주의자』 영역본을 읽게 된다. 뮐러는 포터를 만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곧장 이 작품을 읽었고, “대한민국의 가혹한 현실에 던지는 시적인 시선”에 반하게 되었다고 한다(Küchemann). 그는 다시 출판사 동료들에게 이 책을 제안했고, 모두가 이 소설에 열광했다고 한다. 이미 다수의 독일 출판사가 한강 작품을 검토하고는 모두 출판을 거부한 후여서 아우프바우는 사실상 뒤늦게 한강 작품에 뛰어든 셈이었다. ‘저항의 의미로 식물로 변신한 여성’이라는 주제가 지나치게 독특하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 특별한 책을 찾고 있던 아우프바우는 일종의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고, 당시만 해도 아직 저렘했던 한강 작품 판권비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고 한다.²⁰⁾ 게다가 독일어판이 발행되었을 때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국제상을 타게 된 것도 좋은 타이밍이었으며, 유명 주간지인 <슈피겔>지에 한강을 소개하는 바이더만의 글(Weidermann)이 실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한다(Küchemann). 이후 한강 작품은 아우프바우 출판사를 통해 빠른 속도로 독일의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19) 한국외대 독일어과 졸업. 동 대학원 독문학과 석사, 독일 본(Bonn) 대학교 독일현대문학 석사 및 박사. 2005년 한국이 주빈국이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전시를 위한 한국의 명저 100선 번역출판 공모에 천상병 시인의 시집 <주막에서> 독역(공역)이 선정되어 『Im Gasthof: Gedichte』(Haag+Herchen 출판사, 2005)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이임하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2004)의 독역본 『Frauen, erstanden aus dem Krieg. Koreakrieg und Gender』(eos, 2007)도 출간하였다. 독한 번역서로는 『사로잡힌 영혼』(공역), 『팝콘 먹는 소크라테스』, 『하늘의 문화사』, 『마이카의 황새』, 『괴테, 예술 같은 삶』(공역), 『문학적 인간학. 문학에서 인간을 새롭게 발견하다』 등이 있다. 주요 연구분야: 여성문학, 노년문학, 매체와 서사, 문학과 심리, 문학적 인간학. 현재 한국외대 독일어과 교수.

20) 판권비는 5천 유로(약 734만원)였다고 한다. "한강 문학, 부드러움·폭력성 동시에...마법 같고 신비로워", 연합뉴스, 2024년 11월 16일, <https://spt.co.kr/news/cm3jltlvu00005qa0dqv57z4g>

2. 독일에서 출간된 한강의 소설들

사실, 『채식주의자』가 처음 출간된 2016년보다 10년 앞서 한강의 소설 한 편이 이미 독일어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아우프바우 출판사에서 출간되지 않은 유일한 작품이다. 바로 『채식주의자』와 모티브가 유사한 단편소설 『내 여자의 열매』이다. 이 소설은 『한국단편소설선』(Koreanische Erzählungen)에 포함되어 발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독일에서 번역 출간된 한강의 작품 목록을 모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원서명	국내 출판사	독역본 제목	독일 출판사	번역자
내 여자의 열매 (1997)	<창작과비평> 1997 봄호	Die Früchte meiner Frau(2005) ²¹⁾	dtv	이기향 ²²⁾
채식주의자 (2007)	창비	Die Vegetarierin(2016)	아우프바우 출판사 (Aufbau Verlag)	이기향
소년이 온다 (2014)	창비	Menschenwerk(2017) ²³⁾	아우프바우	이기향
그대의 차가운 손 (2002)	문학과지성사	Deine kalten Hände(2019)	아우프바우	경해 플뤼겔 ²⁴⁾
흰(2016)	문학동네	Weiß(2020)	아우프바우	이기향
희랍어 시간 (2011)	문학동네	Griechischstunden(2024) ²⁵⁾	아우프바우	이기향
작별하지 않는다 (2021)	문학동네	Unmöglicher Abschied (2024년 12월 출간 예정) ²⁶⁾	아우프바우	이기향

21) 실비아 브레젤/이광숙(Sylvia Bräsel/Lie Kwang-Sook)이 편집한 『한국단편소설선』(Koreanische Erzählungen)에 포함됨.

22) 이기향(Ki-Hyang Lee, 1967~): 최근 독일에서는 작가 한강뿐만 아니라 한강의 소설 대부분을 독일어로 번역한 역자 이기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기향은 한국외대(현)독일어통번역학과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후, 1992년 독일로 유학하여 뷔르츠부르크 대학과 뮌헨 대학을 거쳐 중세독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독일 뮌헨에 거주하면서 번역가로 일하는 동시에 뮌헨 공대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 2011년부터 아동도서 출판사 <메르헨발트>(Märchenwald)를 혼자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간한 그림책 “Mondeis”(백희나의 창작 그림책 “달샤베트”의 독역, 역자: Nina Jung)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과 최근에는 저명한 독일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이기향은 2024년 라이프치히 도서관에서 정보라의 『저주투끼』(Der Fluch des Hasen)로 번역상을 수상했다. Hordych 참조.

23) 대산문화재단 번역 지원. 번역 과정에 관한 역자의 글 참조, 이기향: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옹기다. 독역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https://www.daesan.or.kr/webzine_read.html?uid=3331&ho=77

24) 경해 플뤼겔(Kyong-Hae Flügel, 1972~): 서울 태생, 중앙대 독어독문과 졸업. 독일 예나 대학에서 독문학 전공. 현재 예나 거주.

25) 대산문화재단 번역 지원.

26) 대산문화재단 번역 지원. 참고로 지금까지 대산문화재단은 전체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강 작품 9건의 번역출판을, 한국문학번역원은 76건의 번역출판을 지원했다. <한강 세계에 알린 번역가들 “韓, 문학 번역 지원 늘려야”>, 동아일보, 2024-10-14,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41013/130203178/1>

3. 노벨문학상 수상 및 한강 문학에 대한 독일의 인식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에 독일 대형 서점들에서 한강의 작품은 곧바로 베스트셀러 상위권으로 진입했고, 책은 바로 품절 되었다. 한강 작품의 주 번역자인 이기향이 운영하는 출판사에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Hordych). 수상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2024년 11월 15일, 베를린 소재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토론회 행사가 대표적이다. 이 행사는 톰 뮐러, 프리데리케 실바흐(아우프바우 편집장) 등 독일 문학계와 출판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문학토론회로 한강 작품의 번역 및 출간 과정과 향후 한강 작품 출간 계획 등에 대해 다루었다.²⁷⁾



3.1. 노벨문학상 수상의 문학 외적 요인에 대한 평가

<주독일한국문화원 토론회 행사>

독일의 우수 주요 일간지의 수상에 대한 첫 반응은 모두 한결같이 한강의 수상이 ‘깜짝 수상’이라는 것이며, 이어서 이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실렸다. 그러나 독일 언론은 이 사실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다. 즉, 스웨덴 한림원이 “자율성과 어떤 식의 공적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음을 또다시 증명”(Bartels)한 것으로, 한강이 아시아권 최초 여성 수상자이며, 게다가 비교적 젊은 작가라는 점에 대해 스웨덴 한림원의 결정을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Stephan/Rühle) 환영했다. 1901년부터 현재까지 배출된 총 121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었으며, 한강이 여성으로서는 18번째 수상자임을 강조하였다. 2010년 이후 스웨덴 한림원은 수상자 선정의 편향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2018년 일어난 미투 운동 이후에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0년 이후 한강을 포함하여 여성 작가 4명, 남성 작가 3명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음을 밝히면서 향후 노벨문학상이 전 인류를 포괄하는 상으로 개선되리라 전망한다.²⁸⁾ 또한 한강이 기수상자에 비해 비교적 젊은 작가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강 작가의 “활력과 신선함 etwas Belebendes, Erfrischendes”은 “육체성을 갖는 문학”, “계속 반복되는 폭력의 모티브 Gewalt ist ein wiederkehrendes Motiv in ihrem Werk.”(Bartels)와 연결된다고 본다.

3.2. 미학적 관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한강의 소설은 아직까지는 단연코 『채식주의자』이고, 그다음으로 『소년이 온다』를 들 수 있다. 독일 언론 및 문단의 관심도 지금까지는 이 두 작품에 특히 집중되어 있으나, 이는 노벨상 수상과 함께 점차 다른 작품들의 인지도가 확장되면서 보다 폭넓은 한강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올해 독일어로 번역된 『희랍어 시간』도 점차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곧 출간될 『작별하지 않는다』도 벌써부터 독일 독자들의 기대를 모

27) <독일서 조명하는 한강의 작품세계...주독일문화원 문학토론회>, 연합뉴스, 2024-11-11,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1047300005>

28) „Für ihre intensive poetische Prosa“; Autorin von „Die Vegetarierin“ Literaturnobelpreis 2024 für Han Kang; Platthaus 참조.

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05년 『한국단편소설선』에 실린, 사실상 독일에서 소개된 한강의 첫 작품인 『내 여자의 열매』에 대한 2005년 당시 매우 상반된 문단의 평가가 눈에 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심리적 기록 Psychogramme der Mittelschicht"으로서의 한국현대여성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내 여자의 열매』는 카프카의 『변신』을 떠올리게 하는 인상 깊은 작품으로 평가되는 (FAZ, 25.11.2005) 한편, 이 소설선에 실린 작품들의 수준 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평가 함께 글자 그대로 식물로 변신한 여성이라는 "우울한 이야기"가 "너무 직접적인 알레고리적 특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상당한 혹평을 받기도 했다(한강과 비교해서 김영하의 작품이 큰 호평을 받았다)(Süddeutsche Zeitung 19.10.2005).²⁹⁾

하지만 그 후 『채식주의자』의 성공적인 독일 데뷔와 함께 독일 문단에서는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호감을 표명한다. 특히 독일문학사의 명작들과 한강의 작품(『채식주의자』)을 줄곧 비교하는데, 무엇보다도 『채식주의자』의 변신 모티브로 인해 "카프카적인 kafkaesk"이라는 독일어 형용사를 사용해서 카프카의 『변신』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Janker; Körting; Rudtke; Stephan/Rühle). 또한 연작소설 중 하나인 『몽고반점』 때문에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노발리스(1772~1801)의 소설 『하인리히 폰 오프터딩엔』(일명 『푸른 꽃』(Die blaue Blume)과 비교되기도 한다. 『채식주의자』는 "잃어버린 순수를 찾는 한 여자의 이야기"이며, 영혜가 갖고 있던 몽고반점은 노발리스가 동경했던 '푸른 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Weidemann). 나아가 세계문학사를 놓고 볼 때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혜는 숭고하고 비극적인 인물 유형인 "바이런적인 영웅 역할을 맡은 첫 번째 여성 Als erste Frau in der Byronic-Hero-Rolle"(Stephan)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단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한강의 작품이 독일문학을 위시한 서구문학 반열에 올랐으며, 서구 문단도 한강을 대한민국의 이국적인 작가라는 틀을 넘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읽힐 수 있는 문학으로 새로운 문학적 위상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문단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인간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스펙트럼을 넘어서는"(Stephan/Rühle) 작품으로 흥미롭게 수용된다. 따라서 영혜와 그녀의 형부의 결합은 섹스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지점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영혜는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벗어 던지고 식물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한 걸음 크게 다가감으로 "또 하나의 다른 세계"(Stephan/Rühle)가 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육식을 거부하는 모티브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양상에 대한 현대문학의 중요한 예(Böhm)로 접근하는 등의 최근 연구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강 문학의 매력은 독특한 문체적, 언어적 개성 때문이다. 이 점은 놀랍게도 번역서를 통해 작품을 읽는 독일 독자들에게도 자주 공감되는 특징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에도 명시되었던 "시적 산문"³⁰⁾ 형식이라든가 마술적이고 초현실적인 독특한 문체³¹⁾, 한강 언어의 감각성과 육체성이 잔혹한 현실과 함께 훌륭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된다. 이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에서 모두 관찰되는 언어적 특징인데, 특히 『소년이

29) 문화잡지 <perlentaucher>에 소개된 기사, <https://www.perlentaucher.de/buch/koreanische-erzaehlungen.html#reviews>

30)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 산문"

31) Nadeschda Bachem(본 대학 한국학 및 일본학과 교수)과의 라디오 인터뷰. Literaturnobelpreis. Han Kang ist eine feministisch-kritische Stimme in Südkorea,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die-bedeutung-von-han-kang-fuer-die-suedkoreanische-literatur-dlf-kultur-4fd370ae-100.html>

온다』에서는 객관적이고 기록적이면서 동시에 육체성으로 각인된 묘사에 대해 독일의 문단은 놀라움을 드러낸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의 언어에 대해 톰 밀러는 “새롭고 특별한 공감을 가능하게 만들어 경험이 독자에게 바로 신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언어”(Küchemann)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한강은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언어임을 증명”(Küchemann)했다고 밀러는 평가한다. 한강은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을 가져온 작가 Mit ihrem „experimentellen Stil“ sei sie eine Erneuerin der zeitgenössischen Prosa.”³²⁾로 문학사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소년이 온다』에서 한강의 언어는 “짧고 건조한 동시에 감각적이고 고요하고 시적이며 때로는 초현실적인 영상들”(Hueck)들을 만들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희랍어 시간』에서는 나아가 언어가 세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과 언어의 불일치를, 언어의 불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캐고 있다고 본다(Stephan/Rühle).

그 밖에도 현재 한강의 작품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희랍어 시간』이 독일어 오디오북(Hörbuch)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라디오 방송극 장르가 보편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2017년 북독일라디오 방송국(NDR)에서 유일하게 『채식주의자』가 라디오 방송극(Hörspiel)으로 제작되었다.³³⁾

3.3. 정치적 관점

『채식주의자』는 미학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자주 논의된다. 독일에서는 국내에서처럼 이 소설을 간혹 불온한 소설로 보는 관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전체적으로 한강의 소설을 보다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플라트하우스는 한강의 소설을 “전후 한국의 현대사를 비추는 거울 Spiegelbilder der koreanischen Nachkriegsgeschichte”(Platthaus)로 결론짓는다. 즉, 『채식주의자』의 경우 혜영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주부로,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의 포식자 Kommunistenfresser”로서 베트남 참전 경험을 자랑하는 가장으로, 남편은 이해심 없고 “국가에 충성하는 staatsreu” 평범한 남성으로 설정되었음을 강조한다(Platthaus). 하지만 한강이 “페미니즘 여성 작가”가 되기에는 충분한 “투쟁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Platthaus). 그는 가부장적 지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 영혜의 식물 변신을 수용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형태에서 올려 퍼지는 정치적 드라마”(Platthaus)로 바라본다. 그는 한강 작품의 사적인 형태를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대한민국 사회 같은]에서 올려 나오는 개인적인 문학의 표준적인 소리”(Platthaus)로 평가한다. 한강은 『흰』에서처럼 서구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경계를 넘어 전 인류와의 공통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Platthaus; Körting).

무엇보다도 『채식주의자』의 영혜를 “변신하는 반란자 Verwandlungsrebellin”(Hordych)로 규정하면서 그녀의 변신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부장적 규범(가부장적 국가 규범을 포함한)에 저항하는 싸움으로 즉, 해방을 추구하는 소설(Körting)로 본다는 점에서 독일 문단은 이 작품

32) „Für ihre intensive poetische Prosa“: Literaturnobelpreis geht an Südkoreanerin Han Kang, 10.10.2024, Tagesspiegel

33) 연출: 이레네 슈크(Irene Schuck), 대본: 수잔네 호프만(Susanne Hoffmann), 73분짜리 방송극, <https://www.ardaudiothek.de/episode/ndr-hoerspiel-box/han-kang-die-vegetarierin-1-nobel-preis-fuer-literatur-2024/ndr/13798873/>

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반면, 식물의 삶이라는 “수동적 주인공 Antiheldentum”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영혜의 설명하지 않음과 침묵이 만들어내는 빈자리 Leerstelle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소설의 강점이라고 보기도 한다(Janker). 또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와도 언어와 주제 면에서 유사하지만, 하루키보다 한강의 작품은 “분명 더 정치적”인 요소를 갖는다고 평가한다(Körting).

무엇보다도 1980년 군부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평범한 개인들의 내면에서 바라보는 『소년이 온다』는 독특한 역사소설로 인식된다. 특히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한강의 언어를 통해 결합되면서 독일 독자들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소설은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독일인들에게 역사를 인식시키는 기능과 함께 인간의 잔인함과 존엄성에 대해 질문하는 “강력한 밀도”를 갖는 “대서사”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Hueck).

3.4. 한국 문학의 향후 전망

독일에서 바라보는 한국 문학의 향후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르텔스는 지금껏 노벨문학상이 유럽국가에 집중적으로 수여된 요인은 세계문학이 스웨덴어와 영어로 집중적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 붐이 일고 있다는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강보다 더 젊은 한국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 다수가 독일어로 이미 번역되었기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선정은 앞으로 한국문학이 널리 소개될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낙관한다(Bartels 참조).

참고자료

<독일서 조명하는 한강의 작품세계 ... 주독일문화원 문학토론회>, 연합뉴스, 2024년 11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1047300005>

이기향: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옹기다. 독역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참조, https://www.daesan.or.kr/webzine_read.html?uid=3331&ho=77

<“한강 문학, 부드러움·폭력성 동시에...마법 같고 신비로워”>, 연합뉴스, 2024년 11월 16일, <https://spt.co.kr/news/cm3jltlvu00005qa0dqv57z4g>

<한강 세계에 알린 번역가들 “韓, 문학번역 지원 늘려야”>, 동아일보, 2024-10-14,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41013/130203178/1>

Autorin von „Die Vegetarierin“ Literaturnobelpreis 2024 für Han Kang,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nobelpreis-literatur-2024-han-kang-100.html>

Bachem, Nadeschda(본대학 한국학 및 일본학과 교수). 라디오 인터뷰.

Literaturnobelpreis. Han Kang ist eine feministisch-kritische Stimme in Südkorea,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die-bedeutung-von-han-kang-fuer-die-suedkoreanische-literatur-dlf-kultur-4fd370ae-100.html>

Bartels, Gerrit: Literaturnobelpreis für Han Kang: Eine gute, belebende Wahl, 10.10.2024,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literaturnobelpreis-fur-han-kang-eine-gute-belebende-wahl-12512030.html>

- Böhm, Alexandra: Species Trouble: Verunsicherungen der Mensch-Tier-Grenze in veganen Narrativen der Gegenwartsliteratur (J.M. Coetzee's *The Lives of Animals*, Han Kang's *Die Vegetarierin* und Jakob Heins *Wurst und Wahn*. Ein Geständnis) *LiLi*,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2023-06, Vol.53 (2), p.233-258.
- „Für ihre intensive poetische Prosa“ : Literaturnobelpreis geht an Südkoreanerin Han Kang, 10.10.2024, Tagesspiegel
- Hordych, Barbara: Porträt der südkoreanisch-deutschen Übersetzerin und Verlegerin Ki-Hyang Lee. *Die Welt mit ihren Worten*, 19. November 2024, *Sueddeutsche Zeitung*, <https://www.sueddeutsche.de/muenchen/literatur-aus-suedkorea-literaturnobelpreistraegerin-han-kang-maerchenwald-verlag-muenchen-uebersetzerin-ki-hyang-lee-lux.3ZAGtVkk9rKBobsoSjfaX9?print=true>
- Hueck, Carsten: Han Kang: „Menschenwerk“. Eine große Erzählung über Grausamkeit und Würde, 19.09.2017, *Deutschlandfunk Kultur*,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han-kang-menschenwerk-eine-grosse-erzaehlung-ueber-100.html>
- Janker, Karin: Roman von Han Kang. *Selbstverzehr*, 1. September 2016, *SZ*, <https://www.sueddeutsche.de/kultur/roman-von-han-kang-selbstverzehr-1.3139082?print=true&internal-referrer=www.sueddeutsche.de%2Fkultur%2Froman-von-han-kang-selbstverzehr-1.3139082>
- Körting, Thilo: „Die Vegetarierin“ von Han Kang. *Fleischverzicht als Revolte*, 16.09.2016, *Deutschlandfunk*, gelesen am 20.11.24, <https://www.deutschlandfunk.de/die-vegetarierin-von-han-kang-fleischverzicht-als-revolte-100.html>
- Küchemann, Fridtjof: Verleger Tom Müller über das erste Buch von Han Kang auf Deutsch „Ich war eigentlich zu spät dran“, 10.10.2024, *FAZ*,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buecher/themen/verleger-tom-mueller-ueber-das-erste-buch-von-han-kang-auf-deutsch-110039011.html>
- <perlentaucher>, <https://www.perlentaucher.de/buch/koreanische-erzaehlungen.html#reviews>
- Platthaus, Andreas: Auszeichnung jenseits des Tellerrands, 10.10.2024, *Frankfurter Allgemeine*,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buecher/autoren/der-nobelpreis-fuer-han-kang-ehrt-endlich-asiatische-literatur-110038848.html>
- Rudtke, Tanja: *Ekel und Appetit als soziale Indikatoren bei Kafka mit einem Ausblick auf Han Kang »Die Vegetarierin*. *The Journal of Korean Buchner Society*, 2017-11, Vol.49, p.165-182.
- Stephan, Felix: *Lady Byron*. Wie junge, außereuropäische Autorinnen die universalistische Literatur wiederbeleben. In: *Süddeutsche Zeitung*, Nr. 108, 12./13. Mai 2018, S. 20.
- Stephan, Felix/Rühle, Alex: *Literaturnobelpreis für Han Kang*. Eine glänzende Entscheidung, 10. Oktober 2024, *SZ*, <https://www.sueddeutsche.de/kultur/>

han-kang-literaturnobelpreis-was-muss-man-gelesen-haben-die-vegetarierin-lux.P
U75HfSd2T7cNK1xo9uLLE

Weidermann, Volker: Lasst uns blaue Blumen essen, 26.08.2016, DER SPIEGEL
35/2016, <https://www.spiegel.de/politik/lasst-uns-blaue-blumen-essen-a-4197d657-0002-0001-0000-000146502102>

트랜스내셔널: 네덜란드가 본 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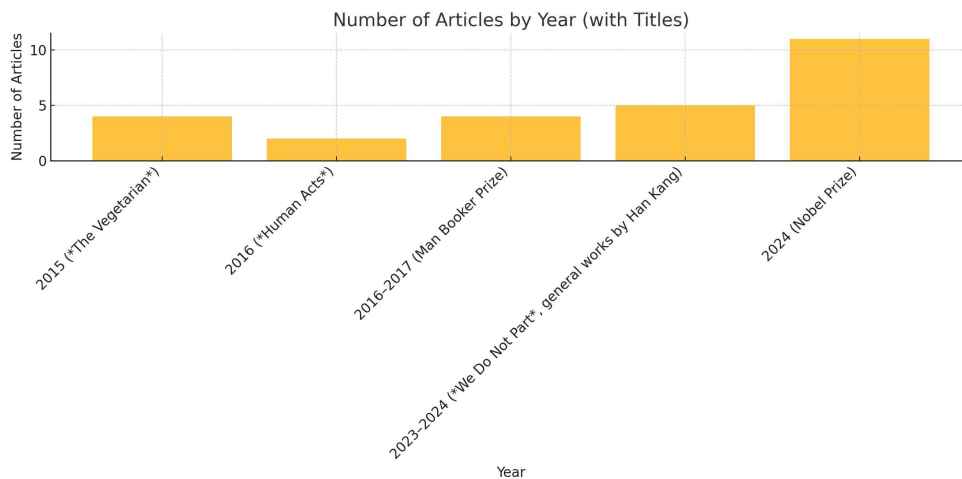
문지희(한국외대)

I. 들어가며

이 글은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네덜란드 언론 및 문학저널에 비친 한강의 작품세계를 조사하고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한강 작가의 작품은 총 4개이며, 『채식주의자』(De Vegetariër, 2015), 『소년이 온다』(Mensenwerk, 2016), 흰(Wit, 2017)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Ik Zeg Geen Vaarwel, 2023)이다. 첫 세 작품은 영어에서 번역되었으며,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국어에서 직접 번역되었다.

자료는 네덜란드의 주요일간지 NRC, Volkskrant, Trouw, Het Parool를 중심으로 한강 관련 기사를 조사하였으며, 덧붙여 문학저널 1개와 주간지 1개, 그리고 벨기에의 네덜란드어 일간지 2개와 주간지 1개를 포함해 총 27개 언론 기사를 살펴보았다. 한강에 관련된 네덜란드어 주요 언론 기사 및 저널의 발간 시기와 수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어권에서의 한강에 대한 관심은 2015년 『채식주의자』가 번역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2016년 『소년이 온다』가 번역되고 또 맨부커상을 수상했을 때, 그리고 2023년 『작별하지 않는다』의 네덜란드어 번역이 출간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주요 기사들이 나왔으며,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주요 기사는 11개 정도로 집계된다.

II. 시적인 힘과 미학

네덜란드 언론은 한강 작품의 섬세한 언어와 깊은 감수성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감수성이 그

녀의 철학적 통찰과 어우러져 독자에게 전달되는 강렬한 울림에 주목한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하며 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미 올해 초, 네덜란드 언론은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다. “마치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경험들에 대한 사랑의 선언처럼 보인다. 한강은 아이가 곤충, 새, 혹은 꽃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 쓴다. 그녀의 묘사는 너무나도 섬세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압도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Volkskrant, 2024년 2월 29일). 한강의 작품을 한국어에서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마토 만더슬로트는 그녀의 “시적이고 파편적인 언어”(Athenaum Boekhandel, 2024년 10월 11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녀 작품에는 시처럼 읽히는 구절이 있고, 한강은 특히 단어 하나하나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는 작가입니다. 각 단어는 신중히 선택되고, 간결하게 표현됩니다. 짧은 텍스트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경우죠. [...] ‘시적 산문(poëtic prose)’이라는 표현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Athenaum Boekhandel, 2024).

III. 네덜란드 언론이 본 한강 작품: ‘포스트휴먼’, ‘경계성’, ‘트라우마’ 그리고 트랜스내셔널 한국문학

네덜란드 언론이 본 한강 작품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이다. 2015년, 『채식주의자』의 네덜란드어 번역이 출간되었을 때, 네덜란드의 유명 문학가인 아논 흐룬베르그(Arnon Grunberg)는 “이 책은 꼭 읽어 봐야 합니다”라고 피력하며,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소설”이라고 기사에서 평가했다(De Volkskrant 2015년 5월 23일). 이는 2016년 한강이 맨부커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전인 시점이었다. 2016년 맨부커상을 받은 이후와, 2023년 『작별하지 않는다』의 네덜란드어 번역이 출간되었을 때도 흐룬베르그는 한강 작품에 주목하며 기사를 냈다. 이 밖에도 27개 내외의 기사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다양한 접근 속에서도 가장 부각되는 주제는 ‘폭력’, ‘트라우마’, ‘몸’, ‘포스트휴먼’ 그리고 ‘사랑’으로 귀결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시선이 네덜란드 혹은 벨기에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사 분석을 통한 네덜란드어 언론이 바라 본 한강 작품은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로 접근 가능하다.

1) 포스트휴머니즘

일간지 폭스크란트에서 작가 흐룬베르그는 소설 『채식주의자』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 책은 충분히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e)’ 소설로 불릴 수 있다 [...] 『채식주의자』는 약간 애니메이션을 떠올리게 한다. 영혜는 인간, 동물, 나무 사이에 존재한다. 누가 죽어야 하고 누가 이미 몰래 죽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De Volkskrant, 2015). 『채식주의자』에서 영혜는 ‘죽느냐 죽임을 당하느냐’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식을 시작하게 되고 점점 자신이 나무고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전통적인 휴머니즘의 인간 개념이 차이(다름)에 입각하여 인간/동물, 인간/기계, 인간/인간-아닌-존재, 인간/비인간의 위계를 정초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를 통하여 다른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착취적 태도를 ‘정상화’하고 있는

지를 폭로한다.³⁴⁾ 작품 속 영혜는 반복되는 꿈으로 채식을 시작하게 되고 점점 자신이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인간과 자연화된 타자의 이분법적 정체성에 저항하며, 탈-인간중심적 서사를 풀어간다. 주인공 영혜는 기존의 인간이라는 개념의 경계를 흐리며, 일관성 없는 다중적 정체성을 창조함으로써 포스트휴먼-되기를 실현한다.³⁵⁾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탈인간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트휴먼은 끊임없이 자아를 갱신하여 새롭게 변신하고, 결국 ‘인간’ 개념을 재정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영혜는 마치 벌이라도 서듯 미동도 없이 물구나무를 선다. 살아서 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무해의 존재인 나무처럼 시늉이라도 하듯 말이다. 2017년 네덜란드의 신문 NRC와의 인터뷰에서 한강은 『채식주의자』를 포스트휴머니즘 작품으로 보는 데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인간을 넘어, 인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라면 그렇습니다 [포스트휴머니즘 작품이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시되지 않습니다”(NRC 2017).

2) 삶과 죽음의 경계성

삶과 삶이 아닌 것, 존재와 부재의 경계성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하나의 장치로 인식된다. 이는 은폐된 대량 학살과 트라우마, 그리고 애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갑자기 다시 살아난 죽은 새,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인선의 존재, 벽 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살아있는 그림자'들. 작가는 이러한 유령 같은 이미지들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주제는 한강이 영감을 받은 불교 철학과 연결되며, 삶과 삶이 아닌 것이 서로 뒤섞이는 경계의 영역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독자로서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존재와 부재가 뒤섞이는 이 유령 같은 묘사는 제 주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형태이다. 이를테면 사라진 오빠를 평생 찾아다녔지만, 집단 매장지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했던 인선의 어머니처럼 말이다”(Trouw 2023년 11월 23일).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후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이 책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작별하지 않는다』, 329). 네덜란드 언론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죽음과 사랑이 낭만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NRC, 2024년 2월 29일).

3) 현재하는 폭력과 트라우마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소년이 온다』에 대해, 한강은 2017년 NR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아홉 살 때 서울로 이사간 직후, 고향에서 학살이 일어

34) 신상규, 2020,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명”, HORIZON, KIAS. <https://horizon.kias.re.kr/12689/>

35) 박수진, 2019,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적 변신”, 국제비교한국학회, Vol(1), p. 147.

났습니다. 이것은 저를 형성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후 폭력과 잔인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 어떤 기억은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대신 다른 모든 것들이 닳아 없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는 것은 그 기억뿐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집니다”(NRC 2017). 이러한 폭력에 대해 NRC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모든 독재 정권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으며, 이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학살할 수 있다는 비관적이고 경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 한강은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이 자기기만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가해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징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는 점에서 자신이 의도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NRC 2017). 비슷한 맥락에서 작가는 벨기에 저널 HUMO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나는 전 세계의 모든 학살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수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에 굴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HUMO, 2023년 12월).

한 인터뷰에서 작가는 어렸을 때 아우슈비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곤 했는데, 항상 구토를 일으켰다고 언급한다. NRC는 ‘런던 리뷰 오브 북스’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와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비교하는 리뷰에 주목한다.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자국민 유대인의 희생을 경험했던 네덜란드는 (우리가 아는 ‘안네의 일기’를 포함하여) 증언 문학이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소설에 친숙하다. 이에 기사는 “우리가 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절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선함(또는 한강의 말을 빌리자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한다 (NRC, 2017).

4) 확장되는 한국문학

한강의 작품은 한국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온 전쟁, 식민지 경험, 민주화 운동 등 국가적 트라우마와 연결된다. 따라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감각적 서술이 한강 작품만의 ‘독특함’이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다룬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2009)와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최윤 작가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2008)’를 언급하며, 네덜란드 언론은 한국의 국가적 트라우마를 다룬 작품들로 시선을 확장한다 (NRC, 2024년 2월 29일).

더 나아가 한강의 작품과 같이 폭력과 분노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폭력이 남긴 몸과 마음의 상처에 주목하고 그 트라우마를 생생히 묘사하는 보편적 문학적 전통을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게서 찾는다. “이러한 전통은 이제 젊은 세대의 작가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이들은 전쟁과 갈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여성혐오, 권력 남용, 그리고 다른 형태의 현대적 억압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종종 초현실적 공포 이야기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 예로는 하성란의 ‘곰팡이 꽃’(Flowers of Mold, 2019)과 윤고은의 심리 생태 스릴러 ‘밤의 여행자들(The Disaster Tourist, 2021)’를 들 수 있다”(NRC, 2024년 2월 29일).

네덜란드 언론은 한강의 작품을 확장시키며 최근 번역된 한국 작가의 작품에도 주목한다. 한강의 소설처럼, 꿈과 현실이 잔인한 이야기 속에 뒤섞이며 카프카적 분위기를 띠고 있는 편혜영의 『홀(2016)』을 소개하고, 현대 도시화와 생태적 위기에 따른 인간 소외를 다루는, 판타지, 어반 누아르, 기후 소설이 혼합된 형태의 강영숙의 『아령 하는 밤』(2011)에도 주목한다.

IV. 나가며

발표문 제목에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트랜스내셔널 문학은 흔히 다양한 국가-민족적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문학, 비교문학, 세계문학 등의 개념과 비교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트랜스내셔널’의 개념은 문학에 대한 범주론이나 방법론이라기 보다는 문학을 사유하고 논의하는 방식을 재고하는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적 영역을 구획화하거나, 특정 종류나 장르를 지칭하는 문학이 아니라,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사용해진 논의의 틀 또는 그 기저의 보편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네덜란드 언론이 접근하는 한강의 작품은 한국이라는 국가적 범주와 정체성의 틀에 주목하거나, 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는 세계문학으로 보기보다는, ‘시적 언어와 미학’, ‘포스트휴머니즘’, ‘삶과 죽음의 경계’, ‘현재하는 보편적 폭력과 트라우마’, ‘여성혐오, 권력남용, 도시화와 생태적 위기에 따른 인간 소외’의 보편적 담론에 무게를 두며, 트랜스내셔널 문학으로서 한강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된다.

부록

한강과 관련된 네덜란드어 주요 언론기사

날짜	신문	원제목	한국어 제목	주제
2015.3.7.	Trouw	Ze eet geen vlees, dus is ze gek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미쳤군.	채식주의자
2015.3.20	De Volkskrant	Han Kang maakt in wonderlijke roman diep liggende driften voelbaar	"한강은 놀라운 소설에서 깊이 숨겨진 욕망을 느끼게 한다"	채식주의자
2015.4.7	NRC	Vegetariër? Je bent gek!	채식주의자라고? 미쳤군!	채식주의자
2015.5.23	De Volkskrant	Dit boek moet u lezen	"이 책은 꼭 읽어야 합니다"	채식주의자
2016.1.30	Trouw	Mensenwerk van Koreaanse beulen	한국 가해자들이 저지른 폭력	소년이 온다
2016.2.13	De Volkskrant	Waarom mensen in staat zijn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소년이 온다
2016.5.21	De	Boom worden is lastig voor	"사람에게 나무가 되는 것은	채식주의자

36) 참고: 박선주, 2010. 트랜스내셔널 문학, 『영미문학연구회』, 28, pp.165-197.

	Volkrant	een mens	쉽지 않다"	(맨부커상)
2017.11.17	NRC	'Ik probeer een mens te zijn'	나는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 (맨부커상)
2017.11.19	Trouw	Han Kang omarmt de schoonheid van de vergankelijkheid	한강, 무(덧없음)의 아름다움을 포용하다	"흰" - 상실과 치유의 여정
2017.12.30	De Volkrant	Han verschoont met poëtische contemplaties over het leven ook het gemoed van de lezer	"한강은 삶에 대한 시적인 성찰로 독자의 마음까지 정확시킨다"	(맨부커상)
2023.11.7	De Volkrant	Arnon Grunberg las 'De vegetariër' van Han Kang. Boom worden lijkt hem niet zo absurd als het klinkt	"아르논 그룬베르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다: 나무가 되는 것은 생각만큼 비현실적이지 않다"	채식주의자
2023.11.23	Trouw	Han Kang wil met 'Ik zeg geen vaarwel' de doden van Jeju een naam geven	한강, '작별을 고하지 않는다'로 제주 희생자들에게 이름을 주다	"나는 작별하지 않는다".
2023.12.8	Literair Nederland	Suikerklontje in een glas heet water	뜨거운 물에 녹는 설탕 한 조각	"나는 작별하지 않는다"
2024.1.10	De Groene Amsterdammer	Een lichaam dat smeekt	간청하는 몸	죽음, 폭력, 트라우마
2024.2.29	NRC	Tegen het vergeten: de bloeiende literatuur van Zuid-Korea	망각에 맞서는 한국 문학의 번성	잊혀진 학살과
2024.10.10	NRC	Han Kang schrijft boeken die je bijblijven, maar moeilijk te vertalen zijn	한강, 기억에 남지만 번역하기 어려운 책들	"나는 작별하지 않는다"와 번역
2024.10.10	NRC	Han Kangs literatuur wil verborgen, ongemakkelijke waarheden onthullen - en omarmen	한강의 문학은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내고 - 그리고 그것을 포용하려 한다.	진실의 폭로와 포용
2024.10.10	NRC	Nobelprijs voor Literatuur naar Zuid-Koreaanse Han Kang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한국의 한강	역사적 트라우마
2024.10.10	Trouw	Nobelprijs Literatuur gaat naar Zuid-Koreaanse Han Kang	노벨 문학상, 한국의 한강에게	노벨상. 폭력과 연민
2024.10.10	De Volkskrant	De Nobelprijs voor Literatuur 2024 is donderdag toegekend aan de Zuid-Koreaanse auteur	노벨문학상, 한국의 한강에게	작가, 작품,

		Han Kang.		
2024.10.10	De Volkskrant	Nobelprijs voor Literatuur gaat naar Zuid-Koreaanse Han Kang, schrijver van 'De vegetariër'	올해 노벨 문학상은 채식주의자의 저자인 한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녀는 독특하고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독자를 깊이 사로잡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2024.10.11	Volkskrant	Over de poëtische, fragmentarische taal van Han Kang, door Mattho Mandersloot	한강의 시적이고 파편적인 언어에 대해	시적 산문과 역사적 트라우마
2024.10.10 (2023.12)	HUMO (B)	Nobelprijswinnares Han Kang: 'Het valt me niet zwaar gevoelig te zijn, ik vind het ook niet zwak. Dat ik zo fragiel ben, maakt juist dat ik méér leef'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민감한 것이 저에게는 힘겹지 않습니다. 그것을 약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인터뷰
2024.10.10	De Morgen (België)	Verrassende Nobelprijs-winnaar Literatuur Han Kang: 'Ik schrijf om het licht in de duisternis te vinden'	놀라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글을 씁니다."	노벨상
2024.10.10	Het Parool	'Haar werk is pijnlijk en laat je nooit meer los': Zuid-Koreaanse schrijfster Han Kang wint Nobelprijs voor de Literatuur	그녀의 작품은 고통스럽지만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다": 한국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노벨상
2024.10.10	De Standaard (België)	De Nobelprijs Literatuur gaat dit jaar naar de Zuid-Koraanse schrijfster Han Kang, bekend van onder andere De vegetariër en Mensenwerk. "Ze hanteert een unieke, poëtische taal. Het zijn boeken die je aangrijpen en je altijd bijblijven."	올해 노벨 문학상은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로 알려진 한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녀는 독특하고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독자를 깊이 사로잡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노벨상

프랑스 언론에 비친 한강 작가의 초상

남윤지(한국외대)³⁷⁾

I. 들어가며

지난 10월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후 아직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뜨거운 환희 속에 프랑스 언론 반응을 차분히 돌아보고자 한다. 우선 현지 수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번역 현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언론 보도와 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은 총 28개 언어로 82건³⁸⁾(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28개 언어 76종³⁹⁾)이 번역 출간되었다. 프랑스어로는 우선 단편소설 2편이 한국문학선집에 실려 소개되었고, 이어서 작가의 단행본으로 소설 6종이 출간되었기에, 언어권 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 중 프랑스어 번역서 출간 현황>

	원제	번역 작품·수록서 제목	출판사	출간 연도
한국문학 선집 수록작	『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Les Chiens au soleil couchant”, <i>Cocktail sugar et autres nouvelles de Corée</i>	Zulma	2011
	『아홉 개의 이야기』	“Neuf épisodes”, <i>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 - Nouvelles coréennes</i>	Philippe Rey	2014
작가 단행본	『바람이 분다, 가라』	<i>Pars, le vent se lève</i>	Decrescenzo	2015
	『채식주의자』	<i>La Végétarienne</i>		2015
	『소년이 온다』	<i>Celui qui revient</i>	Le Serpent	2016
	『희랍어 시간』	<i>Leçons de grec</i>	à Plumes	2017
	『흰』	<i>Blanc</i>		2019
	『작별하지 않는다』	<i>Impossibles adieux</i>	Grasset	2023

한강 작가의 작품 번역·출간과 함께 이정표로 삼을 만한 사건으로는 현지에서 관심을 보인 유럽권 주요 문학상 수상 내역이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현지 뉴스 언급 빈도, 비중,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7)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HUFS GSIT) 한불과 겸임교수. HUFS GSIT 한불과 석사학위, 프랑스 파리3대학 통번역대학원(ESIT) 번역학 DEA(박사논문제출자격)학위, 파리8대학 비교문학 박사학위 취득. 주요 논문으로 「프랑스의 이청준 문학 수용에 대한 번역비평적 연구」(『통번역학연구』, 2020), 「한국여성문학의 프랑스어 번역 양상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르뷔 드 코레』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24) 등이 있다.

38) 차형석,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진 한국문학 번역의 힘」, 『시사IN』, 2024.11.05.

39) 한국문학번역원, 「꾸준한 한국문학 해외 소개가 만들어 낸 韓 최초 노벨문학상 쾌거 - 한국문학번역원 한강 作 도서 28개 언어권 76종 번역출간 지원」, 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4.10.10.

<프랑스 주요 언론에 언급된 문학상 수상 현황>

수상작	문학상	수여국	수상 연도
『채식주의자』(<i>The Vegetarian</i>)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40)	영국	2016.05.
『작별하지 않는다』(<i>Impossibles adieux</i>)	메디치상 외국문학 부문(41)	프랑스	2023.11.
	에밀기메 아시아문학상	프랑스	2024.02.
한강(Han Kang) 작가의 작품 전체	노벨문학상	스웨덴	2024.10.10.

위에 나온 현황을 기초로 현지 기사를 검토하기 위해서, 프랑스 언론 매체 뉴스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강작가의 이름 ‘Han Kang’을 키워드로 프랑스의 전국종합일간지, 주간지, 문학·문화잡지를 검색하였고⁴²⁾, 인터넷상에서 일반 검색엔진을 통해 추가로 검색해 보완하였다. 지방지와 통신사 뉴스는 제외하였다⁴³⁾. 노벨문학상 발표 후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같은 그룹의 지역별 자매지가 많은데다 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 등으로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노벨문학상 선정기관인 스웨덴 한림원의 수상자 선정 발표문을 하나 같이 인용하여 그대로 보도하였다(‘현대 산문의 혁신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 등). 또한 ‘한국 작가로는 최초’,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라는 점, 작가 생애 및 경력,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및 메디치상 외국문학 부문 수상도 단골로 언급되는 사항이다. 널리 언급된 내용은 가능한 반복을 피하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프랑스 언론 보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II.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 프랑스 언론의 시선

프랑스 주요 언론 매체에서 한강 작가가 언급된 흔적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단편소설이 두 번째로 번역 출간되고 난 후인 2014년이다. 프랑스 문단의 거장이자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장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J.-M. G. Le Clezio)가 현지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 2014.5.15.)에 젊은 한국여성작가 중심의 작품선집 번역서(*Nocturne d'un chauffeur de taxi*)를 소개하며, 수록작들이 유머, 진실, 잔혹, 기괴, 상상력,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를 자기연민 없이 정확한 언어로 냉철하게 서술하고 있다며 서둘러 읽어볼 것을 권하였는데, 마지막 순서로 한강 작가의 「아홉 개의 이야기」는 다른 작품들과 괴리가 있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산문시 9편’이라 언급한 내용이다. 이듬해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도서 섹션지인 『르몽드 데 리브르』(*Le Monde des livres*, 2015.02.27.)가 『바람이 분다, 가라』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어서 2016년 3월 파리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참가한 한강 작가가 대표작(『바람이 분다, 가라』, 『채식주의자』)과 함께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였다. 한강 작가의 단행본을 4종이나 펴낸 출판사 르세르팡아플뤼름(Le Serpent à Plumes)을 설립하였고 이후 『작별하지 않는다』를 공동 번역한 피에르 비지우(Pierre Bisiou)⁴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채식

40) 영어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공동 수상하였다.

41) 포르투갈 작가 리디아 조르즈(Lidia Jorge)가 *Misericórdia*로 공동 수상하였다.

42) 해당 기사들은 이후 인용 시 서지정보로 원문 출처 매체와 게재 날짜만 명시했다.

43) 발표문의 취지상 한국학·한국문학 전문지와 사이트도 제외하였다.

44) Schmitt, Amandine. “« L’écriture de Han Kang est si belle qu’elle en donne des frissons »”, *Le Nouvel Obs*, 10 octobre 2024

<https://www.nouvelobs.com/bibliobs/20241010.OBS94817/l-ecriture-de-han-kang-est-si-belle>

주의자』의 프랑스어판은 포켓판 전문 출판사에 판권을 넘기기 전까지 판매 부수가 400부에 불과했다.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 전이었고, 한국문학이 전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2016년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소식은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2016.11.14.)가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놀라운’ 선정이라 반응하며,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엘레나 페란테(Elena Ferrante)와 노벨상 수상자인 튀르키예 작가 오르한 파묵(Orhan Pamuk)을 제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작가’가 수상했다고 언급하는 분위기였다.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 수상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독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듯하다. 그 후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Future Library)’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한강 작가가 2019년 5월 오슬로 ‘미래 도서관의 숲’에서 2114년까지 미공개 예정인 원고 전달식을 가진 소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 명에 한강 작가도 이름을 올린 점이 기사화되었다.

2023년부터 한강 작가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시사 주간지 『르푸앵』(Le Point, 2023.05.11.)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찾아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마지막에 ‘곧 문학 한류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조만간 해외에서 한국문학이 크게 수용될 거라 예견하였고, 이를 선도할 작가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제일 먼저 꼽았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어 번역서 출간을 전후로는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다. 『르푸앵』(2023.08.19.)은 2023년 가을 ‘문학 시즌’ 가장 기대되는 외국문학 작품 중 하나로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했다. 시사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 2023.09.21.)도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을 언급하며 한강 작가를 비중 있게 다뤘다. 동안과 여린 목소리 뒤로 이처럼 강력하고 개성적인 소설가가 숨어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한국문단의 신세대 작가 중 주요 인물로 언급하며,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글을 쓴다고 강조했다.

『르몽드 데 리브르』(2023.08.18.)는 여름부터 가을 ‘문학 시즌’까지 소설 약 450종이 출간 예정이고 그중 145종이 해외 작품 번역이라면서, 주목할 만한 작가 다섯 명 중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했다. 그리고 가을 첫 호(2023.09.01.)의 1면과 2면에 걸쳐 한강 작가의 초상(‘한강, 마술적 시각과 역사적 악몽 사이에’), 작품 세계, 평론, 작가 인터뷰(‘나는 어떤 책을 쓰는 폭력성이 튀어나온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탄생 배경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대문장가의 작품(virtuose)’이라 평했다. 해당 기사에서, 「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가 수록된 한국문학선집을 펴내며 한강 작가의 작품을 처음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한 쥘마(Zulma) 출판사의 편집장 로르 르루와(Laure Leroy)는 한강이 위대한 작가라 경탄하며, 내밀한 글쓰기를 통해 극심한 비관주의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각성을 통해 희망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르루와 편집장은 가장 후회되는 일로 과거에 『채식주의자』의 판권을 우선 확보했다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포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이미 완성된)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고 하는데 번역은 편집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듬을 수 있기에 다른 속사정도 있었으리라 본다. 『르몽드 데 리브르』는 한강 작품이 15편 정도 되니, 희소식은 아직 번역할 게 많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학잡지 『리르』(Lire, 2023.10.01.)의 편집장이자 소설가인 알렉시스 브로카(Alexis Brocas)도 극작을 아끼지 않았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잊혀진 잔혹한 사건을 다루며 요란한 스캔들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문학적 자질에만 의지한 소설이며, 독자가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는 마법의 공간을 의심 없이 따라가며 눈과 어두운 기억으로 가득한 세계를 눈이 부신 채 거닐게 되는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작품처럼 모든 것이 '은유'인 듯하다고 평했다.

같은 해 11월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하며 한강 작가는 세계적인 문학장에서 한 계단 더 오르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올해 10월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기에 이른다. 브로카 『리르』 편집장에 따르면 『작별하지 않는다』를 펴낸 프랑스 출판사 그라세(Grasset)⁴⁵⁾의 공로가 크다고 평가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현지 주요 출판사인 그라세가 2023년 가을 '문학 시즌'에 펴낸 유일한 외국 작가 소설이기에 문학비평가들이 읽을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읽기 시작하자마자 첫 장면부터 빨려들어가게 되는(happé)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주도에서 벌어진 대학살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문학적 공간'에서 이야기한 한강의 글에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의 유사성(현실이 너무나 잔혹한 나머지 환상에 가깝게 느껴져 그러한 현실을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풀어놓는 점)을 보았다.

III.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프랑스 언론의 시선

지난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프랑스 TV와 라디오 진행자들은 한강 작가의 존재를 그제서야 알게 된 기색이 역력했다. 프랑스 출판 전문 잡지 『리브르 에브도(Livres Hebdo)』⁴⁶⁾가 '프랑스에서는 아직 명성이 높지 않은 작가'로 언급할 만하다. '예상치 못한' 수상이라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프랑스 공영방송 국제보도 전문 채널 France 24(프랑스24) 뉴스에서 소식을 전한 기자가 '절반의 놀라움(une demi-surprise)'⁴⁷⁾이라 표현했듯, 『작별하지 않는다』의 공동 번역자, 출판사 편집자, 눈 밝은 일부 기자나 문학평론가 등은 언젠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거라 확신했지만 그게 이번이 될 줄 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르푸앵』(2024.10.10.)은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은 누구인가?' 소개하며 작가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채식주의자』, 『희랍어 시간』, 『작별하지 않는다』를 권했다. 문화 전문 잡지 『텔레라마』(Télérama, 2024.10.19.)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인 작년 가을 메디치문학상 외국문학 부문을 수상했고, 프랑스에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비범한 작가(이자 시인)에게 그에 걸맞는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한 듯했다고 밝혔다.

『르몽드』(2024.10.12.)는 지난 반세기 동안 뛰어난 한국작가들의 많은 작품이 전 세계에 번역되어 온 만큼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그간의 '비정상(anomalie)'을 바로잡는 셈이라고 보았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완성되고, 가장 놀라운 소설이라 평했다. 이어서 한강 작가의 세계를 프랑스 대중에 알리는 데 힘써온 다니엘 메딘(Daniel Medin) 파리 아메리칸대학교 교수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세 작품은 소설이 침묵을 통

45) "Le Nobel de littérature décerné à l'autrice sud-coréenne Han Kang", FRANCE 24, 10. oct.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cPIbKOtAMFk>

46) Buijtenhuijs, Adèle. "Han Kang, une écrivaine à la notoriété encore modeste en France", Livres Hebdo, le 10.10.2024, mis à jour le 11.10.2024. <https://www.livreshebdo.fr/article/han-kang-une-ecrivaine-la-notoriete-encore-modeste-en-france>

47) "L'autrice Han Kang offre le premier Nobel de littérature à la Corée du Sud", FRANCE 24, 11. oct.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ONlzL03jh84>

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넓혀준 작품들이라고 밝힌 점을 소개했다. 그리고 『르몽드』 기자는 한발 더 나아가 침묵이 한국의 정서 ‘한’과 맞닿아 있으며,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는 보편성을 가지지만, 이름 자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겹치는 작가에게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단이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고 덧붙였다. 『리르』(2024.11.01.)는 『채식주의자』 3부작을 시적인 동시에 실험적이며, 에로틱하고, 몽환적이며, 또한 불교색이 짙은 작품으로 소개했다. 이처럼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찾는 움직임이 보였다.

논쟁적 글쓰기로 잘 알려진 소설가 마리 다리외세크(Marie Darrieussecq)⁴⁸⁾는 2023년 『작별하지 않는다』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메디치 문학상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는데, 시사 주간지 『르 누벨옵스(Le Nouvel Obs)』를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받기며 영미권 작가를 선정하지 않은 것을 환영했다. 다리외세크는 당시 『작별하지 않는다』가 인상 깊었던 점으로 ‘섬세함’(la délicatesse)을 꼽았다. 그리고 한강의 다른 작품들도 읽었는데, 자신이 자주 찾는 파리 동네서점 책방지기가 추천해서 읽게 된 『채식주의자』를 읽고 작품에서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낮선 감정’에 놀랐던 기억을 떠올렸다. 문예지 『르뷔 데 뒤 몽드(Revue des Deux Mondes)』의 편집장이자 문학평론가인 오렐리 줄리아(Aurélie Julia)⁴⁹⁾는 한강 작가의 꾸준한 독자인데다 문학 행사 기회로 파리와 서울에서 좌담을 진행하며 한강 작가와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기에, 길을 가다가 수상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만 소리를 질렀을 정도라고 밝혔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전에 이탈리아 연출가 다리아 데플로리안(Daria Deflorian)이 『채식주의자』를 원작으로 기획한 연극이 지난 11월 8~16일 파리 국립극장에서 공연되고 나서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원작을 얼마나 잘 살려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르몽드』(2024.11.14.)는 한국어 원작을 극화한 연극의 이탈리아어 대사를 프랑스어로 자막으로 번역하여 공연을 올리는 순간 『채식주의자』는 더 이상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평했다. 또한 원작에서 주인공 영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인 “꿈을 꿔”가 일상을 범람해 알레고리로 승화하는데, 데플로리안의 연출로 카프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 je préférerais ne pas », 영어 원문 표현은 ‘I would prefer not to’)의 ‘분신’(alter ego)이 한강 작가의 펜 끝에서 탄생했다고까지 평했다.

IV. 나가며... ‘K-문학’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몰고 온 순풍을 타고 K-문학이 세계로 더 힘차게 뻗어 나가리라 다들 기대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 지난달 말,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은 한 프로그램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주목할 만하지만 실제 서가를

48) Jacob, Didier. “Pourquoi j’aime Han Kang, par Marie Darrieussecq”, *Le Nouvel Obs*, 10 octobre 2024. <https://www.nouvelobs.com/bibliobs/20241010.OBS94814/pourquoi-j-aime-han-kang-par-marie-darrieussecq.html>

49) Wéry, Claudine. “Prix Nobel. Aurélie Julia : « Han Kang a été un choc littéraire »”, *Revue des Deux Mondes*, Oct 11, 2024 <https://www.revuedesdeuxmondes.fr/prix-nobel-aurelie-julia-han-kang-a-ete-un-choc-litteraire/>

채우는 한국 책들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한류가 급부상하며 문화콘텐츠로서 폭발적인 파생력을 증명한 영화와 드라마작품들은 『기생충』, 『오징어게임』처럼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에 중심을 둔 픽션인 ‘Dark Romance’였는데, 이제는 ‘K-Healing’이 대세⁵⁰⁾라 영미권에서 출판 저작권을 경쟁하듯 매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공동번역자인 피에르 비지우는 K-문학이란 기치하에, 이처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나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워 영화와 드라마로 파생 제작이 가능하고 잘 팔리는 대중적인 책 위주로 관심을 가질까 우려하며,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계속 번역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참고문헌

- 프랑스 언론 뉴스 기사 DB 검색(인용 시 간행물 제목, 언론사명, 게재일을 본문에 명시)
차형석,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진 한국문학 번역의 힘」, 『시사IN』, 2024.11.05.
한국문학번역원, 「꾸준한 한국문학 해외 소개가 만들어 낸 韓 최초 노벨문학상 쾌거 - 한국문학번역원 한강 作 도서 28개 언어권 76종 번역출간 지원」, 한국문학번역원 보도자료, 2024.10.10.
“L’autrice Han Kang offre le premier Nobel de littérature à la Corée du Sud”, *FRANCE 24*, 11. oct.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QNlzLO3jh84>
“Oubliez la Dark Romance, place à la tendance K-Healing !”, *France Inter, Un monde nouveau*, par Mathilde Serrell, Mercredi 23 octobre 2024.
<https://www.radiofrance.fr/franceinter/podcasts/un-monde-nouveau>
“Le Nobel de littérature décerné à l’autrice sud-coréenne Han Kang”, *FRANCE 24*, 10. oct.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cPIbK0tAMFk>
Buijtenhuijs, Adèle. “Han Kang, une écrivaine à la notoriété encore modeste en France”, *Livres Hebdo*, le 10.10.2024, mis à jour le 11.10.2024.
<https://www.livreshebdo.fr/article/han-kang-une-ecrivaine-la-notoriete-encore-moderne-en-france>
Jacob, Didier. “Pourquoi j’aime Han Kang, par Marie Darrieussecq”, *Le Nouvel Obs*, 10 octobre 2024.
<https://www.nouvelobs.com/bibliobs/20241010.OBS94814/pourquoi-j-aime-han-kang-par-marie-darrieussecq.html>
Schmitt, Amandine. “« L’écriture de Han Kang est si belle qu’elle en donne des frissons »”, *Le Nouvel Obs*, 10 octobre 2024
<https://www.nouvelobs.com/bibliobs/20241010.OBS94817/l-ecriture-de-han-kang-est-si-belle-qu-elle-en-donne-des-frissons.html>
Wéry, Claudine. “Prix Nobel. Aurélie Julia : « Han Kang a été un choc littéraire »”, *Revue des Deux Mondes*, Oct 11, 2024
<https://www.revuedesdeuxmondes.fr/prix-nobel-aurelie-julia-han-kang-a-ete-un-choc-litteraire/>

50) “Oubliez la Dark Romance, place à la tendance K-Healing !”, *France Inter, Un monde nouveau*, par Mathilde Serrell, Mercredi 23 octobre 2024.
<https://www.radiofrance.fr/franceinter/podcasts/un-monde-nouveau>

한강 문학과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의 한국 문학 수용

임소라(한국외대)⁵¹⁾

1. 들어가며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선정 사유를 밝히며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다.⁵²⁾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작가 한강은 기존 통념에 맞선 획기적인 작품들을 선보인 “현대 산문의 혁신가”로 인정받으며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포르투갈어권 주요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하며 그의 작품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역사적 상흔과 인간 내면의 고통을 다룬 한강의 문체와 그의 작품이 지닌 독특한 미적 요소에 대한 분석 기사가 주를 이뤘지만, 국가별로 수상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의 시각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온도 차가 나타난다.

포르투갈의 주요 일간지 코헤이우 다 마냐(Correio da Manhã)⁵³⁾ 을 비롯해, 디아리우 드 노티시아스(Diario de Noticias)⁵⁴⁾ 와 푸블리쿠(Publico)⁵⁵⁾ 등은 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18번째 여성 작가, 작년 수상자인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Jon Fosse, 1959~)의 뒤를 잇게 되었다”라며, “2007년 발표한 소설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유력한 수상자로 중국의 대표적 아방가르드 여성 작가로 꼽히는 찬쉐(Can Xue, 1953~)에 대한 예측 기사를 주로 다뤘던 포르투갈 언론은 이번 수상이 예상 밖이었다고 전하며, 아시아 작가로는 4번째에 해당하는 한 작가의 수상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다양화를 꾀하는 흐름과도 관계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브라질의 주요 일간지 플라 지 상파울루(Folha de Sao Paulo)⁵⁶⁾와 이스타당(Estadao)⁵⁷⁾, 우 글로부(O Globo) 등은 “한강,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제목의 “한국

51)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52)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 [검색일자: 2024년 10월 15일]

53) “Han Kang vence Premio Nobel da Literatura”, <https://www.cmjornal.pt/mais-sobre/Nobel-da-Literatura> [검색일자: 2024년 10월 20일]

54) “Sul-coreana Han Kang vence Nobel da Literatura”, <https://www.dn.pt/3214996432/sul-coreana-han-kang-vence-nobel-da-literatura/> [검색일자: 2024년 10월 20일]

55) “Han Kang e a Premio Nobel da Literatura 2024”, <https://www.publico.pt/2024/10/10/culturaipilon/noticia/han-kang-premio-nobel-literatura-2024-2107172> [검색일자: 2024년 10월 20일]

56) “Nobel de Literatura consagra Han Kang como a primeira vencedora da Coreia do Sul”, <https://www1.folha.uol.com.br/folha-topicos/han-kang/> [검색일자: 2024년 10월 20일]

57) “Han Kang, autora de ‘A Vegetariana’, ganha o Premio Nobel de Literatura 2024: conheça a sul-coreana”, <https://www.estadao.com.br/tudo-sobre/han-kang/?srsltid=AfmBOoqw0TE2YwGmrOiVpHsW7xwz2YTrozgLCMDbEmxYmtdtIWwuVHxX>, [검색일자: 2024년 10월 20일]

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노벨문학상은 본질적으로 문학적 성취를 기리는 상이지만 작가 개인의 역량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국가와 언어가 지닌 문화적 역량이 축적될 때 가능해진다며,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K팝, K드라마에 이어 한국의 문화적 위상 변화가 문학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평했다. 특히 브라질 언론은 한강을 “한국의 카프카”로 소개하며,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그의 주요 작품에 대한 분석 기사와 함께 주로 한국의 정치적 배경과 작품의 상징성에 주목한다.⁵⁸⁾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이후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한강의 작품은 다층적인 상징과 깊이 있는 서사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문학은 번역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양한 국가에서 한강의 작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한강의 작품이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의 한국 문학 번역 및 연구 동향이 작품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한강 작품과 포르투갈어 번역

2024년 현재,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은 총 67권으로, 이 중에서 59권이 브라질에서 출간되었고 포르투갈에서는 8권이 출간되었다. 최초의 포르투갈어 번역 작품은 1985년에 출간된 『한국 단편 소설 Contos coreanos』로 영어를 사이에 둔 중역이었다. 포르투갈어는 전 세계 4개 대륙에 걸쳐 사용되는 범용어로, 지역에 따라 언어와 어휘, 발음, 구문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 문학의 포르투갈어 번역은 통상적으로 유럽식 포르투갈어와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판본으로 구분하여 번역·출간된다.⁵⁹⁾ 흥미로운 점은 포르투갈에서 출간된 모든 번역본이 중역이라는 것이다. 포르투갈에는 브라질에 비해 재외동포의 수가 현저히 적고⁶⁰⁾ 번역학 연구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탓에⁶¹⁾ 한국 문학이 모두 중역으로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모든 한강 작품의 유럽식 포르투갈어 판본 역시 동키호테(Dom Quixote) 출판사를 통해 중역으로 발간되었다. 또한, 그 장르에 있어서도 브라질의 경우 고전 문학을 비롯해 5권의 시집이 출간된 비해, 포르투갈에서는 단 한 권도 출간되지 않았다. 한국 문학 진출 초기에는 대부분의 직역이 한국문학번역원(LTI Korea)이나 그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나,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출판사의 출간 제안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58) “Nobel de Literatura 2024 vai para a escritora sul-coreana Han Kang”, <https://oglobo.globo.com/cultura/noticia/2024/10/10/nobel-de-literatura-2024-vai-para-a-escritora-sul-coreana-han-kang.ghtml> [검색일자: 2024년 10월 20일]

59)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브라질식 포르투갈어’와 포르투갈 및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사용되는 ‘유럽식 포르투갈어’를 통상적으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60) 2024년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47,544명이고 포르투갈은 314명이다(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현황」, <https://oka.go.kr/oka/information/know/status/> [검색일자: 2024년 11월 18일]).

61) 포르투갈어 번역가이자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USP) 한국어문학전공 교수인 임윤정은 “브라질 번역계가 중역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수십 년간의 정교한 번역 실습과 이론화를 통해 확립된 학문적 전통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Park, Yun Jung Im. “A literatura coreana no Brasil: quadro atual e desafios”, *Criacao & Critica*, n° 24, out. 2019, p. 9).

번호	출판국가	원서명/번역서명	저자	번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1	브라질	한국 단편 소설 선집 Contos coreanos*	김동인 외	Luís Palmery	GRD/Rio-Arte	1985
2	브라질	한국 현대 시선집 O pássaro que comeu o sol: poesia moderna coreana	한용운 외	임윤정	Arte Pau-Brasil	1993
3	브라질	한국 시조 선집 Sijó: Poesia-canto coreana clássica	최충 외	임윤정, Alberto Marsicano	Iluminuras	1994
4	브라질	오감도 외 Olho-de-corvo de outras obras de Yi Sang	이상	임윤정	Perspectiva	1999
5	브라질	새가 날아드는 풍경 Paisagem de Pássaros	한은선	Elizabeth Kim	Callis	2008
6	브라질	잡동사니 Bugigangas	신혜은	Elizabeth Kim	Callis	2008
7	브라질	엄마가 어렸을 적에 Quando Mamãe Era Pequena	이혜옥	Elizabeth Kim	Callis	2008
8	브라질	도깨비가 내기를 걸면 Apostando com o Monstro	김경화, 정윤철	Elizabeth Kim	Callis	2008
9	브라질	한국 현대 단편 소설 선집 Contos contemporâneos coreanos	김채원 외	임윤정	Landy	2009
10	브라질	곰곰씨와 담담이의 꿈 O sonho de Dam-Dam e do sr. Gom-Gom	신지윤	Elizabeth Kim	Callis	2010
11	브라질	뒤죽박죽 마녀의 성 O castelo da bruxa confusa	차보금	Elizabeth Kim	Callis	2010
12	브라질	좋은 아빠 되세요! O tempo voa, papai!	차보금	Elizabeth Kim	Callis	2010
13	브라질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Achem meu pai, por favor!	신지윤	Elizabeth Kim	Callis	2010
14	브라질	진짜 마법사에게 필요한 것 Aprendiz de mágico	유영소	Elizabeth Kim	Callis	2010
15	브라질	영당이 좀 들어줘 Levante um pouquinho, por favor!	장희정	Elizabeth Kim	Callis	2010
16	브라질	지하철은 달려온다 O Metrô Vem Correndo	신동준	임윤정	Cosac Naify	2010
17	브라질	미술관에서 만난 수학 A Matemática no Museu de Arte	마중물	Elizabeth Kim	Callis	2010
18	브라질	할아버지와 나의 건축여행 Minha viagem arquitetônica com o vovô	조은정	Elizabeth Kim	Callis	2011
19	브라질	아주 특별한 음악 이야기 Por dentro da música	마중물	Elizabeth Kim	Callis	2011
20	브라질	곰가족과 시골벽책 괴물들 A família de ursos e os monstros agitados	차보금	Elizabeth Kim	Callis	2011
21	브라질	누구 알이 더 많을까? Quem será que tem mais ovos?	김해원	Elizabeth Kim	Callis	2011
22	브라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돼지 O porco mais elegante do mundo	신지윤	Elizabeth Kim	Callis	2011
23	브라질	무시무시 고양이를 피하는 방법 Como fugir do gato assustador	최윤정	Elizabeth Kim	Callis	2011
24	브라질	거미아줌마네 사탕 가게 A aranha e a loja de balas	유영소	Elizabeth Kim	Callis	2011

25	포르투갈	엄마를 부탁해 Por favor cuida da mamãe*	신경숙	José Vieira de Lima	Porto Editora	2011
26	브라질	엄마를 부탁해 Por favor, cuide da mamãe*	신경숙	Flávia Rössler	Intrínseca	2012
27	브라질	이수지의 그림책 A trilogia da margem*	이수지	Cid Knipel	Cosac Naify	2012
28	포르투갈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Tenho o direito de me destruir*	김영하	Maria do Carmo Figueira	Editorial Teorema	2013
29	브라질	채식주의자 A vegetariana	한강	임윤정	Devir	2013
30	브라질	마당을 나온 암탉 Flora Hen*	황선미	Lidia Luther	Geração	2014
31	브라질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Sukiyaki de domingo	배수아	성효정	Estação Liberdade	2014
32	브라질	검은 꽃 Flor negra*	김영하	Ana Carolina Mesquita	Geração	2014
33	포르투갈	채식주의자 A vegetariana*	한강	Maria do Carmo Figueira	Dom Quixote	2016
34	포르투갈	소년이 온다 Atos humanos*	한강	Maria do Carmo Figueira	Dom Quixote	2017
35	브라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Nossas horas felizes*	공지영	Maryanne Linz	Rocord	2017
36	브라질	금오신화 Contos da Tartaruga Dourada	김시습	임윤정	Estação Liberdade	2017
37	브라질	오적 Os cinco bandidos	김지하	문준	7Letras	2018
38	브라질	채식주의자 A vegetariana	한강	우재형	Todavia Livros	2018
39	브라질	알루미늄 오이 Pepino de alumínio	강병용	우영신	Topbooks	2018
40	브라질	껌 Chiclete	김기택	임윤정	7Letras	2018
41	포르투갈	흰 O livro branco*	한강	Maria do Carmo Figueira	Dom Quixote	2019
42	브라질	종의 기원 O bom filho	정유정	우재형	Todavia Livros	2019
43	포르투갈	설계자들 Os Conspiradores*	김언수	Carmo Vasconcelos Romao	Lua de Papel	2019
44	브라질	파친코 Pachinko	이민진	Marina Vargas	Intrínseca	2020
45	브라질	홍길동전 A história de Hong Gildong	허균	임윤정	Estação Liberdade	2020
46	브라질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 Noite e dia desconhecidos	배수아	성효정	DBA Editora	2021
47	브라질	소년이 온다 Atos humanos	한강	김지윤	Todavia Livros	2021
48	브라질	기다림 A Espera	김금숙	임윤정	Pipoca e Nanquim	2021
49	브라질	준이 오빠 Jun	김금숙	임윤정	Pipoca e Nanquim	2022
50	브라질	카스테라 Castella	박민규	Nick	Martin Claret	2021

				Farewell	Ltda.	
51	브라질	82년생 김지영 Kim Jiyoung, nascida em 1982*	조남주	Alessandra Esteche	Intrinseca	2022
52	브라질	딸에 대하여 Sobre minha filha	김혜진	성효정	Fósforo	2022
53	브라질	나쁜 친구 Más Companhias	양꼬	임윤정	Veneta	2023
54	브라질	개 Cães	김금숙	임윤정	Pipoca e Nanquim	2023
55	포르투갈	희랍어 시간 Lições de Grego*	한강	Maria do Carmo Figueira	Dom Quixote	2023
56	브라질	흰 O livro branco*	한강	Natália T. M. Okabayashi	Todavia Livros	2023
57	브라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Céu, vento, estrelas e poesia	윤동주	임윤정	7Letras	2023
58	브라질	아몬드 Amêndoas*	손원평	Yonghui Qio Pan	Rocco Digital	2023
59	브라질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Bem-vindos à livraria Hyunam-dong	황보름	우재형	Intrinseca	2023
60	브라질	불편한 편의점 A inconveniente loja de conveniência	김호연	우재형	Bertrand Brasil	2023
61	브라질	달리구트 꿈 백화점 A Grande Loja De Sonhos*	이미예	Luis Girão	WMF Martins Fontes	2024
62	브라질	평형추 Contrapeso*	듀나	Luis Girão	Suma	2024
63	브라질	저주 토기 Coelho maldito	정보라	성효정	Alfaguara	2024
64	포르투갈	82년생 김지영 Kim Jiyoung, nascida em 1982*	조남주	Cláudia Ramos	Singular	2024
65	브라질	튤브 O impulso*	손원평	Núbia Tropéia	Rocco Digital	2024
66	브라질	보테로 가족의 사랑 약국 Farmácia do amor da Família Botero	이선영	우재형	VR Editora	2024
67	브라질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A incrível lavanderia dos corações*	윤정은	Núbia Tropéia	Intrinseca	2024

출처: 한국문학번역원, <https://ltkorea.or.kr/kr/pages/archive/translationBook.do> 재구성

* 중역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2013년 브라질 데비르(Devir) 출판사를 통해 첫 발간되었다가,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이후 2018년에 현 출판사인 토다비아 리브루스(Todavia Livros)에서 재출간되었다. 『채식주의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포르투갈어권에서 출간된 한강의 작품은 『소년이 온다』, 『흰』, 『희랍어 시간』, 총 4권으로, 포르투갈어권 국가에서 작품 4개가 번역 소개된 한국 작가는 한강이 유일하다. 한강의 작품은 한국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번역학, 여성주의 문학, 생태 문학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학계는 한강의 작품이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보편적인 인간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독특한 시적 산문과 깊이 있는 상징체계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한강의 작품은 각국의 번역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특히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와 한국 독자들 간의 번역 논란은 한강 작품의 번역 문제에 대한 중

요한 사례로 언급된다. 스미스의 영어 번역이 원문의 미니멀리즘적 특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문장을 삽입했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 한강 연구자이자 포르투갈어 번역가인 김지윤은 한강의 서사를 원문에 가깝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소년이 온다』의 ‘당신/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서술의 주체가 되는 상황은 작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텍스트 이면에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2인칭으로 서술된 소설들 가운데 5.18과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은 것 또한 이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서는 비극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죽은 소년이 각각 ‘나’와 ‘너’로 표현된다. 살아남은 여러 명의 ‘나’들이 호명하는 2인칭의 ‘너’는 과거 사건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계의 기호로 작용한다. 소설은 독자들에게 5.18을 기억하고 그날의 상처를 위로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보편적인 윤리이자 공공의 책임임을 당부하고 있다. 각 장을 서술하는 여러 인물들은 계속해서 2인칭 단수로 누군가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 지칭 대상은 독자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오롯이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주인공인 동호를 암시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서술자와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서사는 조용한 저항의 색채를 띠고 동시에 죄책감과 동정심 역시 불러일으킨다. 김지윤의 번역은 이러한 요소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감이 반영된 포르투갈어의 ‘voce’와 ‘tu’를 번갈아 사용하여 서술의 다성성(多聲性)을 더욱 강조한다. 이를 통해 침묵과 말하기의 문제, 저항과 기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고 있다.⁶²⁾

한강의 차기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5년 브라질의 토다비아 리브루스 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이 소설은 『소년이 온다』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다루지만, 두 여성의 우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며 새로운 차원의 인간적 고찰을 보여준다. 사실, 역사적, 세대적 트라우마를 다룬 작품들은 브라질 문학계에서 인기가 높다. 이는 최근 제페르손 테노리오(Jeferson Tenorio, 1977~)의 『피부의 이면 O avesso da pele』(2020년)이나 이타마르 비에이라 주니오르(Itamar Vieira Junior, 1979~)의 『휘어진 쟁기 Torto arado』(2019년)와 같은 작품들이 브라질 독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브라질 출판 시장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소셜 미디어에서 ‘힐링 소설’로 분류되는 간단한 서사의 아시아 작품들에 주목하고 있다. 윤정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김호연의⁶³⁾ 『불편한 편의점』,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한강의 작품은 그 깊이와 독창성으로 인해 분명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뛰어난 문학은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거나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차이와 특이성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작가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그가 속한 국가와 언어의 문화적 역량이 결집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한강의 문학이 바로 그러하다. 그의 글쓰기는 현실을 고양하며 세상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가능케 한다. 그의 문학은 교훈적이지 않으며 스타일을 과시하지 않고, 단순히 위안을 주는데 머물지 않는다. 대신, 독자로 하여금 타자와 자기 이해로 이끄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스스로에게 던지게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62) Kim, Ji Yun. “O Menino Vem no Ritmo”, *Henri Meschonnic: Ritmo, Historicidade e a Proposta de uma Teoria Crítica da Linguagem*, Maria Sílvia Cintra Martins (Editor), Editora Mercado de Letras; 1ª edição, 2023, 222-247.

한강의 작품은 뻔하지 않은 서사와 송고한 인간적 통찰을 통해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이는 브라질을 포함한 세계 독자들에게 단순히 치유를 넘어, 문학이 지닌 근원적 힘과 의미를 재발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이러한 문학적 깊이를 통해 브라질 문학계와 독자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Ⅲ. 나가는 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에서 한국 문학의 수용 및 번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이라는 두 주요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 간의 번역 방식과 수용의 차이는, 한국 문학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브라질에서는 직역을 선호하는 번역 관행과 한국 문학 번역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기반이 한국 문학의 더 깊은 이해와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 문학 작품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중역에 의존하는 번역 관행과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문학 노출도가 문화 간 교류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 문학 연구 및 번역 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요컨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같은 사건은 한국 문학의 번역과 수용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은 단순히 한류의 일부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전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에서 한국 문학 번역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지평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Park, Yun Jung Im. "A literatura coreana no Brasil: quadro atual e desafios", *Criação & Crítica*, n° 24, out. 2019, 4-17.
- Kim, Ji Yun. "O Menino Vem no Ritmo", *Henri Meschonnic: Ritmo, Historicidade e a Proposta de uma Teoria Crítica da Linguagem*, Maria Sílvia Cintra Martins (Editor), Editora Mercado de Letras; 1ª edição, 2023, 222-247.
- Kim, Ji Yun. *Tradução de Aula de Grego de Han Kang ao Português: o corpo e o ritmo* (Tese de Doutorado), Universidade de São Paulo, 2022.

이탈리아, '한강'의 범람

박문정(한국외대)



이탈리아, '한강'의 범람

박문정



이탈리아 언론 보도 키워드 1

“예상 못한 수상자”

La vigilia è stata come sempre animata dal toto-nomi, tra grandi esclusi che da tempo sono in odore di vittoria e autori che si sono imposti nelle previsioni dei bookmaker. Tra i favoriti la scrittrice cinese **Can Xue**, l'australiano **Gerald Murnane** e **Alexis Wright**, scrittrice aborigena australiana il cui romanzo più noto è stato pubblicato in Italia nel 2008 da Rizzoli con il titolo *I cacciatori di stelle*. Tra i big le previsioni puntavano su **Salman Rushdie**, **Michel Houellebecq**, **Margaret Atwood**, **Mircea Cartarescu** e **Haruki Murakami**, autore giapponese superfavorito da anni. Il premio prevede un premio in denaro di **11 milioni di corone svedesi** (1 milione di dollari) da un lascito lasciato dal creatore del premio, l'inventore svedese **Alfred Nobel**.

“전야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오랫동안 승리의 냄새를 맡아온 거물급 패자들과 북메이커의 예측에서 승리한 작가들 사이에서 토토 노미네이션으로 활기를 띠었다. 중국 작가 **칸 쉬에**, 호주 작가 **제럴드 머네인**, 호주 작가 **알렉시스 라이트**, 2008년 이탈리아에서 리졸리가 <별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가장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가 우승 후보로 꼽혔다. 유명 작가 중에는 **살만 러쉬디**, **미셸 후엘베크**, **마가렛 앳우드**, **미르체아 카르타레스쿠**, 수년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등이 거론되었다”.



“전야제의 토토 이름

한강은 전야제 토토 예상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라카미 하루키부터 살만 러쉬디, 미셸 후엘베크, 마가렛 앳우드, 돈 딜로까지 매년 돌아오는 '클래식'한 이름들이었다”

Il toto-nomi della vigilia

Han Kang non figurava nel classico **toto-nomi** della vigilia sui possibili vincitori: tra questi c'erano nomi ormai "classici" che ritornano ogni anno, da **Haruki Murakami** a **Salman Rushdie**, passando per **Michel Houellebecq**, **Margaret Atwood** e **Don DeLillo**.

In nomi "più forti" per l'edizione 2024 del Premio Nobel per la Letteratura era però quello della scrittrice cinese **Can Xue**, autrice di "La strada di fango giallo" (Utopia), e il romeno **Mircea Cartarescu**, autore di "Solenioide" (Il Saggiatore) e "Melancolia" (La Nave di Teseo).

Pronostici traditi

Fino a stamattina si pensava che la favorita fosse la scrittrice e poetessa cinese **Can Xue**, anche lei asiatica (l'ultimo autore asiatico a ricevere il Nobel per la Letteratura fu lo scrittore giapponese naturalizzato britannico Kazuo Ishiguro, nel 2017).

“배신당한 예측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수상자는 아시아인인 중국 작가이자 시인인 **캔 쉬에**로 여겨졌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마지막 아시아 작가는 2017년 영국으로 귀화한 일본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였다.) ”

이탈리아 언론 보도 키워드 2

“한류의 영향력”

Edizioni Locali ▾ Servizi ▾ **CORRIERE DELLA SERA**

Figlia di padre scrittore, esordio nel 1995 con una raccolta di racconti, Han ha appreso la notizia quando a Seul era ormai sera e stava cenando con il figlio. Il minimalismo della reazione, «festeggerò bevendo una tazza di tè», ne riflette la natura appartata, a sua volta in sintonia con il successo a scoppio ritardato che l'ha investita. La vegetariana, infatti, è stato tradotto in inglese, con tanto di exploit del Booker, ben 9 anni dopo la pubblicazione in patria (in Italia uscì per Adelphi, come i titoli successivi, tradotto da Milena Zemira Ciccimarra dall'inglese). **Lo sfasamento temporale fotografa lo scarto con cui il mondo si è accorto che la Corea (del Sud) ha qualcosa di più da offrire rispetto a fenomenali brand industriali e tecnologici, film da Oscar, serie tv, musica e una gastronomia in ascesa.** Han Kang non è pop, né è in linea con la severa tradizione colta delle lettere del suo Paese, tuttavia il Nobel incorona il momento di grazia del soft power sudcoreano.

“그녀의 작품 '채식주의자'는 한국에서 출간된 지 9년 후에야 영어로 번역되어 Booker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탈리아에서는 Adelphi 출판사에서 Milena Zemira Ciccimarra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세계가 한국이 훌륭한 산업 및 기술 브랜드,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TV 시리즈, 음악, 그리고 떠오르는 미식 문화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을 보여준다. 한강은 대중적이지도 않고, 한국 문학의 엄격한 전통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은 한국 소프트 파워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Domani
Ambiente Fatti Italia Europa Mondo Giustizia Economia Dati Commenti Cultura Tecnologia Video Podcast
Aneddoti Cibo #Coronavirus Deutsch Vita Frazioni Incomunicazione Inchiostro Tempopieno Blog-mafia

CULTURA
I romanzi di Han Kang e il Nobel che certifica la forza della Korean wave

KOREAN WAVE

L'impatto della cultura sudcoreana su quella occidentale, "Korean wave", è stato massiccio e si è diffuso rapidamente negli ultimi decenni. Questo fenomeno include la musica K-pop, il cinema, - che ha avuto un grande successo, culminato con la vittoria di *Parasite* agli Oscar nel 2020, che ha portato alla ribalta il regista Bong Joon-ho e l'intera industria cinematografica del paese - i K-drama (serie televisive coreane) come *Squid Game*, che hanno conquistato piattaforme di streaming globali come Netflix, diffondendo temi coreani in Occidente e influenzando varie sfere della cultura pop occidentale, anche nella moda e nella cosmetica.

“한류의 힘을 증명한 한강의 소설과 노벨상”

“서구 문화에 대한 한국 문화의 영향, 즉 '한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규모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K팝 음악, 영화,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장악한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한국 드라마)가 포함된다. 특히 2020년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은 봉준호 감독과 한국 영화계 전체를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했으며, K드라마는 서구에 한국적인 주제를 전파하고 패션과 화장품을 포함한 서구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LAPRESSE
WHERE THE NEWS IS

Han Kang vince il Nobel: non solo cinema e K-Pop, Corea del Sud premiata anche per la letteratura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영화와 케이팝뿐 아니라 한국도 문학상 수상”

VOGUE
IT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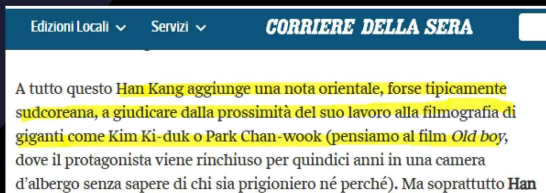
LIBRI
Tutto su Han Kang, che ha appena vinto il Premio Nobel per la letteratura

C'è stato un momento in cui possedere una copia di *La vegetariana* (Adelphi) bella in mostra sul tavolino del salotto era in gran voga. Pubblicato nel 2007 in Corea, viene tradotto in Italia e nel mondo anglosassone nel 2016, anno in cui vince anche il prestigiosissimo **International Booker Prize**, il premio letterario più importante di narrativa tradotta in lingua inglese. *La vegetariana* è un romanzo surreale, segue la vita di una casalinga noiosa e

“커피 테이블 위에 <채식주의자>를 올려놓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이탈리아 언론 보도 키워드 3

“동양사상” “불교”



“한강은 동양적인, 어쩌면 한국적인 색채를 더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김기덕이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예를 들어 주인공이 15년 동안 누구에게 왜 갇혔는지도 모른 채 호텔 방에 갇히는 영화 '올드보이'처럼) 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 유사점을 보여준다”

Edizioni Locali ▾ Servizi ▾ **CORRIERE DELLA SERA**

A tutto questo Han Kang aggiunge una nota orientale, forse tipicamente sudcoreana, a giudicare dalla prossimità del suo lavoro alla filmografia di giganti come Kim Ki-duk o Park Chan-wook (pensiamo al film *Old boy*, dove il protagonista viene rinchiuso per quindici anni in una camera d'albergo senza sapere di chi sia prigioniero né perché). Ma soprattutto Han Kang risente della lettura di Franz Kafka, la questione della colpa, la colpa costitutiva del vivente, è onnipresente nei suoi romanzi. Ovunque si nasca, per sopravvivere bisogna esercitare una forma di violenza: la semplice violenza di essere venuti al mondo, nell'ottica occidentale (Anassimandro), la violenza di strappare le cose alla natura, nell'ottica buddista. Così per *La*

“한강은 동양적인, 어쩌면 한국적인 색채를 더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김기덕이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예를 들어 주인공이 15년 동안 누구에게 왜 갇혔는지도 모른 채 호텔 방에 갇히는 영화 '올드보이'처럼) 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 유사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강은 프란츠 카프카의 영향을 받았다. 죄책감, 살아있는 존재의 근원적인 죄책감이라는 주제는 그녀의 소설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어디에서 태어나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 서양 철학(아낙시만드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폭력이고,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폭력이다.”

euro news. **Ultim'ora Europa Mondo Business Next Green Salute Cultura Viaggi Video**

L'opera di Han Kang è caratterizzata da una doppia esposizione del dolore, una corrispondenza tra tormento mentale e fisico con stretti legami con il pensiero orientale.

“한강 작가의 작품은 동양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의 이중적 노출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언론 보도 키워드 4

“낮선 보편성”

oni Edizioni Locali v Servizi v **CORRIERE DELLA SERA** LETUE NOTIZIE Lettore_15102886 v

Nobel per la Letteratura 2024: la prosa leggera e crudele di Han Kang stringe come un nastro di seta

La voce di Han Kang ([Premio Nobel per la Letteratura 2024](#)) è limpida, almeno quanto risulti inquietante. Dopo *La vegetariana*, il suo successo è stato planetario, ma la scrittrice sudcoreana ha [iscritto nello stile la cifra della sua universalità. È una scrittura che parla al mondo. Incredibile pensare al viaggio che debba compiere il suo pensiero per arrivare a noi attraverso gli abissi culturali e linguistici che ci dividono da lei, eppure, per lontano che sia il bersaglio, la freccia lo raggiunge a ogni tiro. È il mistero](#)

“비단리본처럼 조여오는 한강 작가의 경쾌하고 잔인한 산문”

“한강(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맑고 투명하다. ‘채식주의자’ 이후 그녀의 성공은 전 세계적이었지만, 이 한국 작가는 자신의 스타일 속에 보편성을 새겨 넣었다. 그녀의 글은 전 세계에 말을 건넨다. 우리를 그녀와 갈라놓는 문화적, 언어적 심연을 건너 그녀의 생각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정을 생각하면 놀랍다. 그러나 목표물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의 화살은 매번 명중한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신비, 어쩌면 언어가 가진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 중 하나일 것이다.”

l'Unità

POLITICA CRONACA ESTERI GIUSTIZIA ECONOMIA AMBIENTE VIDEO

IN EVIDENZA: MIGRANTI ISRAELE GUERRA UCRAINA CARCERI

La scrittrice sudcoreana

Chi è Han Kang e perché ha vinto il Premio Nobel per la letteratura

Dalla "Vegetariana" a "L'ora di greco", nei suoi romanzi c'è uno stile frammentario eppure nitidissimo: ogni cosa viene sfrondata da inutili orpelli per catturare l'essenziale

한강은 누구이며 왜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았나

"채식주의자"에서 "그리스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소설은 단편적이면서도 선명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여 핵심을 포착한다."

I romanzi di Han Kang

Nella *Vegetariana* (2019, Adelphi, come gli altri suoi titoli), romanzo insieme ascetico e perversamente compulsivo, la protagonista, una giovane sposa, rifiuta di mangiare carne a seguito di un incubo: da quel momento sembra quasi aspirare a confondersi in un indistinto universo vegetale, a fondersi con la natura per liberarsi dalla pena delle normali relazioni umane. Non siamo certi che sia una illuminazione o l'esito di una pulsione autodistruttiva. I suoi personaggi femminili sembrano tutti voler cambiare per emanciparsi da ogni vincolo, perfino dal vincolo del proprio corpo. **Nei romanzi di Han Kang non c'è mai la retorica o l'esibizionismo del dolore che affligge molta letteratura italiana contemporanea:** glielo impedisce la prosa, limpida e quasi autoprosciugata, capace di aderire ai dettagli – ai petali delle viole, alle unghie tagliate spaventosamente corte – fino a dissolver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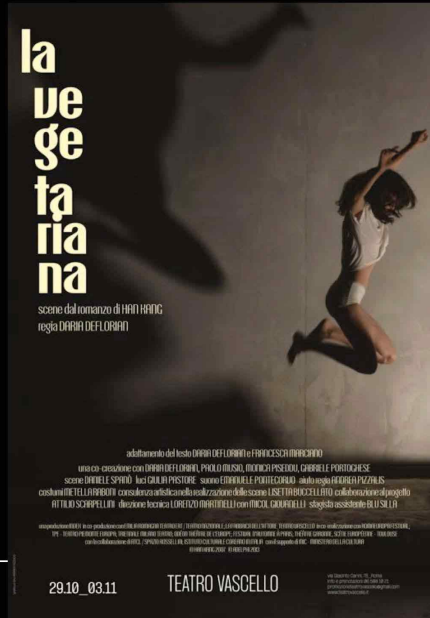
"한강의 소설에는 현대 이탈리아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통의 수사학이나 과시욕이 전혀 없다."

LAPRESSE
WHERE THE NEWS IS

Il suo romanzo più recente, "We Do Not Part", dovrebbe essere pubblicato in inglese l'anno prossimo. Olsson, presidente del comitato, ha definito "Atti umani" un'opera di "letteratura di testimonianza". Si basa sull'uccisione nella vita reale di manifestanti pro-democrazia nella città natale di Han, Gwangju, nel 1980. I sei giorni di annunci del Nobel si sono aperti lunedì. Il premio Nobel per la pace sarà annunciato venerdì e quello per l'economia lunedì 14 ottobre. Il riconoscimento prevede un premio in denaro di 11 milioni di corone svedesi (1 milione di dollari) da un lascito lasciato dal creatore del premio, l'inventore svedese Alfred Nobel. I vincitori sono invitati a ricevere i loro premi durante la cerimonia del 10 dicembre, anniversario della morte di Nobel.

"올손 위원장은 '소년이 온다'를 '증언 문학'이라고 정의했다"

이탈리아에서
연극으로 각색된
〈채식주의자〉



“다리아 데플로리안(Daria Deflorian)이 연출하고 공연하는 이 연극은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인간의 폭력에 대한 한 여성의 거부를 극적이고 본능적으로 표현한 작품”



Corea del Sud: letteratura e libri degli scrittori Sudcoreani

Nel 2024 la scrittrice Han Kang diventa la prima donna asiatica - e prima personalità coreana - a vincere il Premio Nobel per la Letteratura.

La letteratura coreana, in forte ascesa, ha origini molte antiche, sebbene si stia affermando a livello mondiale in epoca contemporanea. Nata come strettamente connessa alla tradizione letteraria cinese di cui traduceva i testi classici, la transizione a letteratura moderna è segnata al contrario dall'**influenza del mondo occidentale**. Dopo una prima fase caratterizzata da tematiche illuministe, con l'occupazione del Giappone, gli ideali del secolo dei Lumi non furono più espressi nelle opere letterarie a causa del controllo sulla libertà di parola e di stampa. I romanzi di inizio Novecento da un lato ospitavano le **vite sofferite degli intellettuali dell'epoca**, dall'altra le **condizioni miserabili dei lavoratori**. Dopo la resa del Giappone nel 1945, la Corea ottenne l'indipendenza, ma fu presto costretta ad una divisione tra nord e sud, che ebbe un forte impatto anche sulla letteratura. Nasce il genere **Shilhomp'a** con lo scopo di andare oltre le tradizioni, creando una corrente con stile e tematiche nuove. La letteratura sudcoreana si distingue nel **testimoniare l'esperienza della gente comune**, con le sofferenze e le sfide di ogni giorno. La definitiva spinta verso una **letteratura sociale** arriva poi con l'industrializzazione che amplifica l'isolamento e la precarietà della vita operaia. Sono gli anni in cui spicca anche la satira sociale, grazie agli scritti di **Park Wan-suh**.

La **letteratura contemporanea**, oltre alla già citata **Han Kang**, innovatrice assoluta, dallo **stile poetico unico e sperimentale**, vanta autori di spicco in diversi generi. Tra le autrici ricordiamo anche **Kyung-Sook Shin**, vincitrice dello **Yi Sang Literary Award**, uno dei più prestigiosi premi letterari del Paese, e consacrata al successo mondiale grazie a *Prencliti cura di lei*.

Nel **romanzo storico**, citiamo **Mirinae Lee** con *Le otto vite di una centenaria senza nome*, romanzo ispirato alla storia di una sua prozia fuggita dalla Corea del Nord, e **Min Jin Lee**, autore della fortunatissima saga familiare *Pachinko*, da cui è stata tratta una serie di successo targata Apple TV.

Nel genere **comfort novel**, tra piccole lavanderie, minimarket e case isolate, con storie commoventi che celebrano la felicità nelle piccole cose, troviamo **Kim Jiyeon**, **Kim Ho-yeon** e **Jungeun Yun**.

Nel campo della **saggistica**, spicca invece la figura di **Byung-Chul Han**, filosofo apprezzato in tutto il mondo, autore in particolare di **saggi sulla globalizzazione e l'ipercoltura**. I suoi scritti sono stati pubblicati in Italia da Nottetempo ed Einaudi.

참고자료

- https://www.corriere.it/cultura/24_ottobre_10/nobel-la-letteratura-2024-prosa-leggera-crucele-han-kang-stringe-come-nastro-seta-d8046956-8740-11ef-a7e6-a8816a51a364.shtml
- https://www.corriere.it/la-lettura/24_ottobre_10/ne-voce-ne-vista-tatto-tutto-l-intervista-sudcoreana-han-kang-nobel-la-letteratura-2024-efda28ba-86f8-11ef-a7e6-a8816a51a364.shtml
- https://www.corriere.it/cultura/24_ottobre_10/nobel-la-letteratura-2024-han-kang-e28ab4de-86eb-11ef-a7e6-a8816a51a364.shtml
- https://www.corriere.it/cultura/24_ottobre_10/nobel-la-letteratura-2024-han-kang-e28ab4de-86eb-11ef-a7e6-a8816a51a364.shtml
- https://www.repubblica.it/cultura/2024/10/10/news/premio_nobel_per_la_letteratura_2024han_kang-423547051/
- <https://www.ilpost.it/2024/10/10/nobel-letteratura-2024/>
- <https://www.vogue.it/article/han-kang-scrittrice-premio-nobel>
- https://www.ansa.it/sito/notizie/cultura/2024/10/10/il-nobel-per-la-letteratura-2024-va-alla-scrittrice-sudcoreana-han-kang_35b7b13f-f09d-41d6-81dd-62caf6290c30.html#:~:text=Poetica%2C%20onirica%2C%20visionaria%20e%20nello,presidente%20Kim%20Dae%2DJudg%20nel
- <https://it.euronews.com/cultura/2024/10/10/il-nobel-per-la-letteratura-alla-scrittrice-sudcoreana-han-kang>
- <https://www.unita.it/2024/10/11/chi-e-han-kang-e-perche-ha-vinto-il-premio-nobel-per-la-letteratura/>
- <https://www.unita.it/2024/10/10/premio-nobel-letteratura-han-kang-scrittrice-sudcoreana/>
- https://www.lastampa.it/cultura/2024/10/10/news/nobel_letteratura_han_kang-14705212/
- <https://www.lapresse.it/cultura/letteratura/2024/10/10/han-kang-vince-il-nobel-non-solo-cinema-e-k-pop-corea-del-sud-premiata-anche-per-la-letteratura/>
- <https://www.editorialedomani.it/idee/cultura/han-kang-nobel-letteratura-corea-korean-wave-romanzi-chi-e-cosa-ha-scritto-cbr3xqkl>
- [Scrittori sudcoreani: libri, romanzi e saggi della letteratura della Corea del Sud](#)

스페인어권 국가들의 한강 문학 수용 양상

고슬기(한국외대)

1. 들어가는 글

본 발표문에서는 스페인어권 국가들에서 한강의 문학작품이 어떻게 번역되고 소개되었고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요약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스페인어권 국가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스페인어권 국가 수는 총 21개국이다. 종주국인 유럽의 스페인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의 19개국, 또 아프리카에 있는 적도기니가 이에 해당한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5억 이상으로 표준 중국어(약 9억)에 이어 2위이다. 미국에도 약 5000만 명의 스페인어 사용자가 있다.

3. 스페인어권 국가들에서의 한국 문학작품과 한강 작품 수용 양상

아르헨티나에서는 일찍이 1935년 이미륵의 작품이 『엘 오가르 El hogar』라는 잡지에 소개되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스페인에서 1983년 한국 시 모음집이 번역 출판된다. 1990년대에는 간간히 한국 문학 번역 작품들이 나왔다. 1991년 멕시코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문학 스페인어 번역본이 출판되었고 1994년에는 페루와 볼리비아에서도 번역본이 나왔다. 또 스페인의 베르bum(Verbum) 출판사에서는 한국문학 컬렉션이 나왔고 2000년 이후에는 멕시코의 에르미타노(Ermitano) 출판사와 아르헨티나의 바호 라 루나(Bajo la luna) 출판사에서도 각각 한국문학 컬렉션을 선보였다. 2019년 초에 생긴 아르헨티나의 화랑 출판사(Hwarang Editorial)는 아예 한국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출판사이다.⁶⁴⁾

한강 작품이 최초로 소개된 외국은 베트남으로 2010년의 일이다.⁶⁵⁾

한강의 작품은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도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번역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특히 한국문학번역원과 아르헨티나 교포 번역가 윤선미의 노력으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서양언어로는 최초로 2012년에 번역했고 이로 인해 다른 스페인어권 국가들에서도 한강 문학의 소개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64) Braessas

65) 임인택

3-1. 스페인

스페인에 최초로 한강의 작품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바르셀로나 출신 편집자 올란다 바탈예(Iolanda Batalle: 1970)는 2016년 아직 한강이 부커상을 받지 않았고 서양에 아직 알려지기 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석했다가 『채식주의자』를 추천받고 바로 카페에서 밤새 다 읽는다. 이 작품의 비범함을 알아본 그녀는 자신이 막 운영을 시작한 출판사인 라타(Rata)출판사에서 출판하기로 마음먹고 『채식주의자 La vegetariana』와 『소년이 온다 Actos humanos』의 스페인어와 카탈루냐어 판권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동반하고 한강을 바르셀로나에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만남 후에 그녀는 아들에게 한강에게서 노벨문학상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아들은 웃어 넘겼지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리며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한다. 불행이도 라타 출판사는 백과사전을 만드느라 한강의 책을 소홀히 했고 한강의 책을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자 팡귤랜덤하우스 출판사가 그 권리를 사들여 현재 한강의 작품들을 출판하고 있다.

또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서 청소년들의 독서함양을 목표로 1993년에 창설한 산 클레멘테 상(Premio Literario Arcebispo Juan de San Clemente)의 24번째 수상작으로 외국 소설 부문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선정되었다. 특이하게도 이 상의 심사위원단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수상으로 이미 스페인의 청소년들은 2018년 11월 산 클레멘테 상 수상 이전부터 2016년 맨부커상 수상으로 유명해진 한강의 작품을 널리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강 작가는 번역가인 윤선미 교수와 시상식에 참석하여 청소년기 독서 경험을 내용으로 하는 수상소감을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하였고 청소년 독자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고 한다.

3-2. 멕시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이전에 한강의 작품을 번역하고 관심을 보였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 비해 멕시코에서는 뒤늦게 한강의 작품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전부터 여러 차례 케이팝 콘서트가 있었던 멕시코에서는 2023년에도 뮤직뱅크에서 기획한 케이팝 콘서트에도 1만 7000명이 운집하는 등 한류가 꾸준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 문학 쪽에서는 한국계 작가의 『파친코』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수많은 멕시코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에서는 총 4개의 한강의 작품이 시중에 나와 있으며 약 23000원에서 3만원 사이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점에서 품절이라고 한다.⁶⁶⁾

이로 인해 여러 신문, 잡지에서 한강의 작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존 번역본과 차기 번역본이 나오는 시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3-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서양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2012년 『채식주의자』 스페인어 번역본이 나온 나라이다. 2012년 이 작품이 소개되고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낸 계기로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서전에 한강이 초청되었다. 그 당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기사에 따르면 2012년 ‘바호 라 루나(Bajo la Luna)’ 라는 출판사에 아르헨티나 교포 번역가

66) 조성빈

인 윤선미 씨가 『채식주의자』 번역 일부를 보여주자 출판사 대표는 검토를 거쳐 바로 출판을 결정했다고 한다. 또 2013년 그 당시에 현지 신문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은 물론 그해 아르헨티나 한국문학 독후감대회 대상작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⁶⁷⁾

이런 열광적인 반응과 이미 2016년 맨부커 수상 한참 전에 한강이 자국에 소개가 된 계기로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강의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자신들의 수상인 것처럼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 또 아르헨티나의 대문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와의 연관성도 언급하며 한강 작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파히나12(Página 12) 신문은 『희랍어 시간』이 보르헤스를 모티브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비록 보르헤스가 노벨문학상을 받지 못하고 별세했지만, 한강은 자신의 작품 『희랍어 시간』에서 보르헤스를 오마주하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설명했다고 한다.⁶⁸⁾ 보르헤스를 비롯해 상당한 수준의 문학가들을 배출했지만 아직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 아르헨티나의 아쉬움을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달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국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화랑출판사의 편집인 니콜라스 브라에사스(Nicolás Braessas)는 지금은 한국문학이 한류의 유행에 힘입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차차 한국문학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⁶⁹⁾

4. 나가는 글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지니고 있었던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에게 아시아에서 여성 작가가 받은 최초의 노벨문학상이 한국의 한강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은 큰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했고 큰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최초의 서양어 번역본이 아르헨티나에서 출판되었다는 것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이민 국가로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스페인의 경우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아르헨티나 발 스페인어 번역본이 전달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적극적인 출판에 뛰어들었고 멕시코의 경우 이제 한강의 열풍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한강의 문학작품들과 다른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들이 스페인어권 국가들에서 얼마나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성과를 거두게 될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계정훈,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아르헨에서 커다란 호응,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2304, 2013-05-07

남미리, 문학뉴스, 한강 '채식주의자' 스페인서 문학상, <https://www.mun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9>, 2018-11-20

67) 계정훈

68) 박찬근

69) Braessas

박찬근, SBS 뉴스, "보르헤스 오마주" 아르헨티나서 뜨거운 '한강 신드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31605&plink=COPYP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316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TE&cooper=SBSNEWSEND, 2024-10-13

임인택, 한겨레신문, 한강 첫 해외 소개 번역가 “하루 만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어”,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162828.html>, 2024 -10-16

조성빈,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멕시코에서도 뜨거운 관심
받 아 ,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244](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24404)
04, 2024-10-16

Laura Islas, *Merca2.0*, Premio Nobel de Literatura 2024. ¿Dónde conseguir los
libros de Hank Kang en México?,
[https://www.merca20.com/premio-nobel-de-literatura-2024-donde-conseguir-l](https://www.merca20.com/premio-nobel-de-literatura-2024-donde-conseguir-los-libros-de-hank-kang-en-mexico/)
os-libros-de-hank-kang-en-mexico/, 2024-10-10

Leticia Blanco, *El Periódico*, Iolanda Batallé, la descubridora en España de la
Premio Nobel Han Kang: "Es silenciosa, vive para escribir. Evita mucho el
ruido. Pero sobre todo, es valiente",
[https://www.elperiodico.com/es/ocio-y-cultura/20241010/iolanda-batalle-desc](https://www.elperiodico.com/es/ocio-y-cultura/20241010/iolanda-batalle-descubridora-espana-premio-109162785)
ubridora-espana-premio-109162785, 2024-10-10

Nicolás Braessas, *Infobae*, La primera traducción de Han Kang en Occidente se
hizo en Argentina: hoy Corea es potencia cultural,
[https://www.infobae.com/cultura/2024/10/10/la-primera-traduccion-de-han-k](https://www.infobae.com/cultura/2024/10/10/la-primera-traduccion-de-han-kang-en-occidente-se-hizo-en-argentina-hoy-corea-es-potencia-cultural/)
ang-en-occidente-se-hizo-en-argentina-hoy-corea-es-potencia-cultural/,
2024-10-10

Noemi, *El Diario 24*, Argentina «ganó» el Nobel de Literatura junto con Han Kang:
de la traducción de su libro a su amor por Borges,
<https://www.eldiario24.com/culturas/2024/10/18/nobel-de-literatura-ganado/>,
2024-10-18

Premio San Clemente, <https://www.premiosanclemente.es/>

발트 3국의 한강 문학 수용

서진석(한국외대)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발트 3국을 공통의 무언가를 갖추었을 법한 지역으로 인식하곤 한다. 세 나라가 서로 인접해 있다는 점,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등에서는 어느 정도 공동정체성의 존재가 인정되긴 한다. 사실 이 세 나라는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으로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 소련 붕괴와 유럽연합 가입 이후 겪어야 했던 사회적 변혁, 지리적 위치, 역사청산 및 탈러시아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동질감이 그러한 착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발트 3국의 정체성과 상황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많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를 수용하고 현지화하는 방식과 속도에서도 각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서적 차원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관심도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각 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나 연구자의 존재 여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환경인가 등을 다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발트 3국은 근본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골고루 보이는 국가적 집단 내에서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외적 영향과 자극이 얼마나 차별화되어 적용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술대회의 연구대상인 한강을 포함하여 한국의 문학이 얼마나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있는가를 한 국가 대상이 아닌 발트 3국이라는 국가군을 전체적으로 들어 분석한다는 시도가 유의미한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발트 3국에서 한국 이미지의 전파와 형성은 국가들마다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다. 주로 대중문화가 한국 이미지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한국문학은 대중문화와 비교해볼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우선 가장 북쪽의 위치한 에스토니아의 경우 에스토니아어로 번역된 한국 순수문학은 단 한 권에 불과하다. 이전에 한국신화가 현지어로 번역되어 발간된 적이 있긴 하지만 한국문학은 현지인들에게 세계문학으로 자리매김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에스토니아가 전반적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현지 언론 매체들에서는 한강의 수상 소식과 함께 작가의 작품세계를 분석하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어 감추어져 있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에스토니아의 주간지 「포스티메스」지에서는 상당수의 지면을 할애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며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선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규정들과 사회적 장애물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논평했다. 비록 한림원의 발표를 다수 인용하긴 했지만 에스토니아 신문독자들에게 한강 작품의 철학과 가치를 비교적 잘 소개하였다.

게다가 에스토니아의 국영방송 ETV에서는 대표 저녁방송 프로그램인 RINGVAADE에서 한강에 대한 특집방송을 편성함으로써 특별한 관심을 표하였다. 한국에서 특별히 섭외된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진행자는 한강의 작품세계와 성공비결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이는 현재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한국인들에게 한강 작가가 어떤 의

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시청자층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니만큼 한강과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 거론한 대로 에스토니아는 현재 한강의 작품이 한 권도 번역된 것이 없으며 현재 영어를 통해서 『채식주의자』 번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중역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과 한국문학의 소개가 미진한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한국어를 현지어로 번역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세종학당을 기반으로 한 수업 이외에는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은 전혀 없어 한국어에서 직역하여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에스토니아 독자들은 영어권 번역판을 통해서만 한강의 작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라트비아의 경우에는 신문지상에 짙막한 소개기사로만 나갔을 뿐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처럼 작가의 작품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분석 기사 등은 없었다. 라트비아는 인접 국가들과는 달리 중역 여부에 상관 없이 한강의 작품을 포함하여 한국문학이 단 한 편도 소개된 것은 없다. 그러나 라트비아 내 상당수를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어 번역본을 접해 읽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와는 달리 한국어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한국문학을 한국어에서 직역된 번역본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는 한강에 대한 관심이 이미 맨부커상을 수상하기 전부터 조성되어있었다. 리투아니아의 최대 출판사 VAGA에서는 이미 수상 전부터 『채식주의자』의 가치를 파악하여 리투아니아어로 책을 출간하였으며 2023년에는 『소년이 온다』도 리투아니아어로 출간되었다. 특히 리투아니아의 문화비평지인 「베르나르디네이」에서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특별 기사를 네 편이나 연속 게재했다.

빌뉴스 대학교의 철학부 아시아 트랜스컬처 연구소 교수는 해당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강의 책은 개인이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생각하는가를 중요시하며, 개인에 대한 연구는 공동체적 인식과 연관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의 문학은 반드시 사회를 아름답게 묘사하지는 않으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뿐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리투아니아는 인접국가인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에 비해서 한국문학이 상당히 보급된 상황이다. 이는 이미 수 년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번역가인 마르티나스 샤유츨나스-카친스카스의 공이 크다. 그는 이미 신경숙, 조남주, 서미애, 하일지 등의 다수 작품을 리투아니아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그는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여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한국서적 전문번역가로 상당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김영하, 이문열의 작품도 번역되었으며 신화와 설화까지 번역 출간되어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전체에서 한국문학이 가장 많이 대중화된 나라였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에서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넓게 퍼졌다고 보긴 힘들다. 한강에 대한 집중 분석 소개 보도가 나간 지면도 일반 대중신문이 아닌 문화비평지에 불과하고 대표 대중일간지에는 한강의 수상 소식 이후 한국에서 한강 작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한 것이 전부였다.

「베르나르디네이」의 독자층이 비교적 제한되어있음을 볼 때 일반일간지와 방송을 보는 이들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 리투아니아에서 한국문학과 언어교육에 종사하는 지인들의 말을 빌면 한국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매니어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을 뿐 이것이 문화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국문화의 대한 관심은 한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현상으로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잠깐 리투아니아인 일부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줄 순 있어도 한강의 책을 읽고 즐길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에 한국문화를 구가하던 일부 매니아층에게 국한되어있음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한강 작품의 수용은 리투아니아 사회에 블랙핑크나 BTS처럼 특정 계층에 국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리고 현재 한강의 제 3의 작품이 출간될 계획이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아 출판계에서도 초기에 보이던 한강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생긴다.

발트 3국은 서로 인접해 있다는 점과 현대사회에서 역사적 사회적 공통점을 보였다는 데서 다양한 동질감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특수 언어권 해외 문화에 대한 인식도와 수용 차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 내에서 문학적인 이미지가 탄탄하게 굳어진 국가의 경우에는 소련 독립 이후부터 상당한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당시 양성된 전문가들이 여전히 아시아 문학을 소개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문학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당분간은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

특히 발트 3국 중 한국문학의 보급이 가장 잘 되어있다고 알려진 리투아니아 역시 한국문학의 소개가 단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인적 성향과 취향이 작품을 선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강을 비롯한 기타 한국문화의 진정한 수용 가능성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분석한다.

“한강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게 된 바르샤바”- 폴란드 언론에 비친 한강의 문학

최성은(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노벨 문학상은 그 자체가 전 인류를 향한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의 참상을 목도하며 스웨덴 한림원은 증오와 폭력을 향해 끈질기게 반성과 성찰을 촉구해 온 한강의 문학을 올해의 목소리로 선택했다. 폴란드의 문단과 독자들 또한 한강의 작품이 전달하는 시대정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강의 문학에 대한 폴란드 언론과 문학계의 시선을 살펴보는 작업은 비서구권 문학이 각자의 언어로 소통하고 교감할 때 형성되는 특별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폴란드 독자들이 자국의 역사와 연결하며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한강의 작품들은 노벨상 수상 이전부터 폴란드 문학계와 언론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올라 토카르추크는 한강의 수상 소식을 듣고 “『채식주의자』를 비롯해서 한강의 책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폴란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며 마치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기뻐한다는 따뜻한 축하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⁷⁰⁾



한강에게 축하 인사를 남기는 올라 토카르추크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는 외침(外侵)을 겪으면서도 문학을 구심점으로 정체성을 지켜왔다. 수많은 풍파와 질곡을 겪으면서도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곳곳이 수호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닮은 구석이 많은 나라이다. 18세기 말 폴란드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분할 점령당하면서 123년간 유럽 지도에서

70) <https://www.youtube.com/watch?v=B8gIFcwToMc>

사라지는 비운을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비에트의 강점으로 또다시 나라를 잃었고, 이후 동서 냉전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국으로 전락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외세의 억압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도 문학의 본령을 수호하기 위해 분투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폴란드 국민의 열망이 더해지면서 역설적으로 국가의 수난기에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문학적 토양이 다져졌고, 다섯 명이나 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문학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⁷¹⁾ 그래서 폴란드인들의 문학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폴란드어로 번역된 한강의 책은 총 네 권으로 『채식주의자』(2014), 『소년이 온다』(2020), 『흰』(2022), 『작별하지 않는다』(2024년 1월) 순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2023년에 출판된 소설집 『이야기의 거장들. 여성에 대하여(Mistrzowie opowieści. O kobiecie)』⁷²⁾에 단편 「내 여자의 열매」가 수록되었다. 『희랍어 시간』 또한 이미 폴란드어 번역이 완료되어 내년 초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출간 또는 출간 예정인 책은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희랍어 시간』까지 총 3권이다.



폴란드 W.A.B.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강의 책들 (좌로부터)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흰』, 『작별하지 않는다』

바르샤바의 북북(BookBook) 서점 입구에 진열된 한강 작가의 책들 (2024년 11.5)

흥미로운 것은 『채식주의자』의 경우, 한강이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하기 2년 전인 2014년, 영어판보다도 먼저 폴란드어판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문학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가 거의 없어 출판사를 구하기 힘들었던 2000년대 초,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한 마제나 스테판스카-아담스(Marzena Stefańska-Adams)가 한국 문학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동양의 꽃들(Kwiaty Orientu)”이라는 소규모 출판사를 설립했고, 『채식주의자』 역시 이곳을 통해 폴란드 독자들과 처음 만났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소멸된 판권을 대형 출판사인 W.A.B.가 인수하여 2021년에 재출간되었고, 이후 한강의 책들은 모두 W.A.B.에서 출판되고 있다.

71) 폴란드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는 헨릭 시엔키에비츠(1905), 브와디스와프 레이몬트(1924), 체스와프 미워쉬(1980), 비스와바 침보르스카(1996), 그리고 울가 토카르추크(2018)가 있다.

72) 셀마 라게를뢰프부터 버지니아 울프, 한강 등 전 세계 21개국의 작가들이 다양한 언어로 집필한 25편의 단편 소설을 모은 소설집. 학생, 어머니, 연인, 아내, 요리사, 뮤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였다.

2. 폴란드와의 인연, 작가가 남긴 발자취

한강 작가와 폴란드의 인연은 번역가인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Justyna Najbar-Miller)로부터 시작된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나이바르-밀러가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는 ‘번역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여자의 열매」를 번역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 한강 작가를 직접 만났고, 이후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과 조교수인 최정인과 함께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면서 작가를 폴란드로 초대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번역가는 모두 필자의 제자들이다.)⁷³⁾



한강 작가와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 번역가. (2013. 여름. 서울)

젊은 번역가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인 한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폴란드에 머물게 된다. 훗날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탈고한 뒤 휴식이 필요했고, 그때 나를 부른 곳이 오직 바르샤바였다. 하필 왜 그렇게 춥고 어두운 곳으로 가느냐는 지인들의 질문에 남극이나 북극이라도 상관없었다”⁷⁴⁾고 고백했지만, 그가 폴란드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던 듯하다. 소설 『흰』(2016)의 1장과 2장을 바르샤바에서 집필했기 때문이다.

폴란드에 머무는 동안 한강은 자신의 번역자인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와 최정인이 교편을 잡고 있는 바르샤바 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문학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강연을 했다. 나이바르-밀러에 따르면, 첫 번째 강연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주제로 폴란드의 젊은 한국학도들과 토론을 했고, 두 번째 강연에서는 폴란드어판 출간을 앞둔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자신의 문학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73)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는 필자가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재직 중에 만난 제자이고, 최정인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 졸업생이다.

74) 한강, 작가의 말 - 『흰』, 문학동네, 2023년, 184쪽



한강 작가와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 (2014. 가을)

또한 『채식주의자』 폴란드어판 출간 기념으로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북토크가 개최되었는데, 행사의 진행을 소설가 올라 토카르추크가 맡았다. 2006년 한국문학번역원이 개최한 문학 축제 「2006 서울, 젊은 작가들」에서 처음 만난 두 작가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북토크를 계기로 돈독한 인연을 맺게 된다. 폴란드에서의 만남 이후 한강과 올라 토카르추크는 권위 있는 문학상을 차례로 석권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게 된다. 2016년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하자 토카르추크가 2018년도에 『방랑자들』로 같은 상을 받았고, 이후 한강은 『흰』(2018년도)을, 토카르추크는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2019년도)와 『야콥의 서』(2021년도)를 부커상 최종 후보(쇼트 리스트)에 올리며 글로벌 문단에서 그 위상을 굳건히 다졌다. 이후 토카르추크가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먼저 안았고, 올해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2014.11.28.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북토크 (좌로부터 번역가 최정인, 한강, 올라 토카르추크)

『채식주의자』 출간 기념으로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강 작가의 북토크 (2014.11.28.)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강과 폴란드의 인연은 계속되었는데, 2021년 10월 18일~24일에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미래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1 콘라드 페스티벌(Festiwal Conrada 2021)”에 초청된 것이다.⁷⁵⁾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으므로 한

75) 폴란드 최고의 문예지로 꼽히는 <주간 평설(Tygodnik Powszechny)>과 크라쿠프 시가 공동 주최하는 유서 깊은 문학 축제로 2021년에는 한강을 비롯하여 미국의 에세이스트 리베카 솔닛(Rebecca

강은 화상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페스티벌에 참여했는데, 특히 번역자인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와 함께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무려 한 시간에 걸쳐 심층 대담을 나누는 영상은 아직도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⁷⁶⁾

화상 인터뷰에서 한강은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흰』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이 겪는 변화에 대해 번역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바르샤바에서 집필한 『흰』에 대해서는 “대로 변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을 향해 꽃을 바치고 촛불을 켜며 애도하는 바르샤바의 문화를 바라보며 복잡한 현대사 속에서 애도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 집필 동기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폴란드 독자들을 위해 『흰』에 수록된 「파도」를 한국어로 낭송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서 출간을 앞두고 있던 신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하며 “매우 고통스럽게 쓴 작품이지만,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이 영상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조회수가 급격히 늘었다.





문예지 「주간 평설」에서 온라인에 게재한 한강과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의 인터뷰
(2021 콘라드 페스티벌: https://youtu.be/_HCB5VL6Cyc)

『채식주의자』 출간 이후 한강 소설의 폴란드어 번역은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가 전담하게 된다. 한국어문학자인 나이바르-밀러는 한강의 문학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한강에 대한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기고하는 한편, 신간이 출간되면 매체와의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한강의 작품을 폴란드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4년 4월 24일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 “전후 한국사의 비극적인 장면들 - 한강의 작품에 나타난 트라우마와 치유(Tragiczne karty powojennej historii korei - trauma i ukojenie w twórczości han kang)”가 대표적인 예다. 이 강연에서 나이바르-밀러는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심층 분석하며 “한강의 문학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상징적으로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공동체에 빛을 전하고 있다”⁷⁷⁾고 설명한다. 현장 강의의 녹화본은 온라인으로도 공개되었는데,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Solnit), 네덜란드 소설가 마리케 뤼카스 레이네벨트(Marieke Lucas Rijneveld), 쿠르드계 이란 저널리스트 베흐루즈 부차니(Behrouz Boochani) 등이 초청되었다.

76) https://youtu.be/_HCB5VL6Cyc

77) <https://www.youtube.com/watch?v=IWe9H6Q3Ww8> (검색일: 2024-11-10)

 <p>2024.4.24.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 포스터 “전후 한국사의 비극적인 장면들 - 한강의 작품에 나타난 트라우마와 치유”</p>	 <p>온라인에 공개된 현장강의 녹화본 (https://www.youtube.com/watch?v=IWe9H6Q3Ww8)</p>
--	--

나이바르-밀러의 번역에 대한 현지 언론의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이다. 유수의 시사·문예저널인 <폴리티카(Polityka)>는 2022년 2월 『흰』의 폴란드어판 서평에서 “나이바르-밀러의 번역은 한강의 섬세한 감성을 훌륭하게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정적 울림을 선사한다”⁷⁸⁾는 찬사를 보냈다.

3. 폴란드 출판시장과 독자들의 반응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이후 폴란드에서도 한강의 책 네 권이 일제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호명된 지 일주일 뒤인 2024년 10월 17일 기준으로 폴란드 최대의 온라인 서점 Empik.com의 순위를 살펴보면,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인 『채식주의자』가 베스트셀러 목록 3위에 올라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6위를 차지했고, 『흰』과 『소년이 온다』 역시 베스트셀러 20위 권에 포함되어 있다. W.A.B. 출판사의 홍보 책임자 마치에이 마르치쉬(Maciej Marcisz)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재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소진되었다”고 밝히며, “종이책의 새로운 판본은 10월 말에나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는 사전 예약 상태로만 주문 가능하다. 당장 구매할 수 있는 버전은 e-book 뿐”⁷⁹⁾이라고 덧붙였다.

78) <https://www.polityka.pl/tygodnikpolityka/kultura/ksiazki/2153575,1,recenzja-ksiazki-han-kang-biala-elegia.read>
 (검색일: 2024-11-10)

79) <https://booklips.pl/newsy/w-tydzien-po-ogloszeniu-nobla-w-korei-poludniowej-sprzedano-ponad-milion-ksiazek-han-kang-w-polsce-w-a-b-robi-dodruki-i-zapowiada-kolejna-powiec> (검색일: 2024-10-31)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 10월 25일 폴란드 서점 현황
(폴란드어판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 『희랍어 시간』
영문판만 판매 중 - 크라쿠프 GKN 서점)



11월 15일 서점 현황
(크라쿠프 로카토르(Lokator) 서점)

2020년부터 한강의 작품을 전담 출판하고 있는 W.A.B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 안느나 카푸시친스카(Anna Kapuścińska)와 요안나 마치우크(Joanna Maciuk)에게 문의한 결과 2024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작품은 『채식주의자』로 2021년에 W.A.B 출판사에서 재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총 8,000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출판사 측에서는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이라는 점이 작품의 인지도를 높여준 덕분에 노벨상 수상 이전부터 꾸준히 판매되는 타이틀이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판매량이 이전 대비 50%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작별하지 않는다』로 노벨상 발표 후에 판매량이 85% 증가하여 현재까지 6,000부가 나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뒤를 잇는 작품은 『흰』인데 5,500부가 판매되었고, 노벨상을 기점으로 판매량이 100% 증가하였다. 『소년이 온다』의 경우, 노벨상 수상 이후 판매량이 70% 증가하여 지금까지 약 5,000부가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요안나 마치우크는 필자와의 이메일에서 “모든 타이틀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폴란드 독자들의 관심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기록적인 수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수상 이전과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는 소감을 남겼다.

작품의 판매량과는 별도로 출간작들에 대한 폴란드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lubimyczytac.pl⁸⁰⁾에 접속하여 한강의 책들을 검색해 보았다.⁸¹⁾ 독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점과 호응을 받은 작품은 『소년이 온

80) 매월 약 200만 명의 사용자가 방문하고 있고, 약 50만 권의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책에 대한 평가와 리뷰를 작성하고, 가상 서재를 구성하며, 새로운 도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출판사 및 문화 기관과 협력하여 도서전이나 문학 페스티벌 등의 미디어 후원을 진행하기도 한다.

81) <https://lubimyczytac.pl/autor/97735/han-kang> (검색일: 2024-11-10)

다』이고, 다음은 『작별하지 않는다』, 이어서 『흰』과 『채식주의자』 순이었다. 『소년이 온다』의 경우, 판매 부수는 가장 적었지만, 작품을 읽은 독자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고, 『채식주의자』의 경우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독자들의 호불호가 갈리며 다양한 평가로 이어졌다. 작품의 판매량과 독자들의 선호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언론과 문학계의 시선

2024년 10월 10일 한림원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호명하면서 폴란드 언론은 일제히 한강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양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와 <제츠포스폴리타(Rzeczpospolita)>는 여러 지면을 할애하여 한강의 생애와 이력,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대표작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또한 번역가인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와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들과의 인터뷰도 수록되었다. 가장 권위 있는 문예지로 꼽히는 <주간 평설>과 시사·문예 저널 <폴리티카(Polityka)>도 한강의 문학에 대한 심층 기사를 게재하였다. 폴란드의 저명한 문학평론가 미하우 노가시(Michał Nogaś)는 “한강 작가가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2024년 10월 10일)⁸²⁾고 논평했다.

하지만 한강의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 전부터 이미 폴란드의 평론가와 독자들, 예술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외세 점령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닌 폴란드 독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었다. 그 예로 2021년 3월 폴란드의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는 평론가 미하우 노가시와 한강의 심층 대담을 특별기획으로 수록하기도 했다.⁸³⁾

본 장에서는 폴란드에서 출간된 네 권의 책을 중심으로 폴란드 언론과 문단이 바라보는 한강의 문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채식주의자』: 시대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

폴란드에서 2014년에 번역·출판된 『채식주의자』는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으로 잠시 주목받았고, W.A.B 출판사가 2021년에 이 작품을 재출간하면서 현재까지 폴란드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한강이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면서 폴란드의 언론 매체나 문학 포털 사이트에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서평이 활발히 게재되었다.

82)

<https://trojka.polskieradio.pl/artykul/3434201,koreanka-han-kang-z-literackim-noblem-nie-jestem-zaskoczony-komentuje-michal-nogas> (검색일: 2024-11-10)

83)

<https://www.wysokieobcasy.pl/wysokie-obcasy/7,157211,26843192,laureatka-literackiego-nobla-jak-bardzo-musisz-rozczarowac.html> (검색일: 2024-11-15)



문학평론가 미하우 노가시는 2014년 『채식주의자』가 폴란드에서 막 출간되었을 무렵, 한 독자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2014년에 한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기억난다. 이 소설이 폴란드에서 출간된 것은 작가가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기 두 해 전, 세상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서서히 알아가던 무렵이었다. 그때 『채식주의자』를 읽은 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소설 같아. 군중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고독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수성과 이해가 가득해.’”⁸⁴⁾

노가시와의 대담에서 한강은 “심지어 한국에 있는 내게도 폴란드 독자들의 반응이 전해졌다”면서 자신의 소설이 그런 방식으로 읽혔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했다고 화답한다.⁸⁵⁾

『채식주의자』의 실험적인 서사에서 프란츠 카프카나 사무엘 베케트를 떠올리는 폴란드 평론가들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독창성을 논하며 서구의 페미니즘이나 그로테스크, 브루탈리즘과 같은 개념들과 연관 지어 분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⁸⁶⁾ 이에 대해 번역가인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는 이렇게 대답한다.

“『채식주의자』에서 여성이 나무로 변하는 장면은 명백히 카프카를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 한국 문학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유럽 예술과 교감하며 영감을 얻기도 하고, 서구의 문학적 흐름이 한국에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강의 경우는 한국 전통문화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영혼의 존재에 대한 신념이나 애니미즘과 같은 토속 신앙의 요소가 그의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⁸⁷⁾

84) <https://www.wysokieobcasy.pl/wysokie-obcasy/7,157211,26843192,laureatka-literackiego-nobla-jak-bardzo-musisz-rozczarowac.html> (검색일: 2024-11-15)

85) 위의 기사 (검색일: 2024-11-15)

86) <https://www.rp.pl/plus-minus/art41307771-justyna-najbar-miller-szamanka-koi-narodowa-traume> (검색일: 2024-11-15)

87) <https://www.rp.pl/plus-minus/art41307771-justyna-najbar-miller-szamanka-koi-narodowa-traume>

평론가 야로스와프 체호비츠(Jarosław Czechowicz)는 『채식주의자』의 매력으로 시각과 청각은 물론, 후각과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공감각적 서사구조를 꼽는다.

“『채식주의자』에서 한강은 절망에 빠진 영혼의 풍경을 빛, 향기, 맛, 소리로 가득 채워 탁월하게 그려낸다. (...) 영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처절히 싸운다. 독자는 나무가 되기를 열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말로는 표현되지 못한 것들, 그로 인해 더욱 강렬해지는 비극에 직면하게 된다. (2014년 7월 10일)⁸⁸⁾

폴란드의 평론가들은 『채식주의자』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작품이 인간과 인간성에 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실존적 텍스트라는 점에 비평의 초점을 맞춘다. 미하우 노가시의 경우, 이 작품이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인간의 삶에 만연한 잔혹함에 저항하는 텍스트”⁸⁹⁾임을 강조한다. 유수의 문예지 <주간 평설> 또한 번역가이자 한국어문학자인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채식주의자』를 에코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것이다. 영혜가 고기를 끊는 것은 이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녀의 결정은 악몽에서 비롯된다. 꿈속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 장면을 깨어서 곱씹으며,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 영혜가 채식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부장적 사회의 불평등한 관습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폭력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혜의 내적 갈등은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삶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녀의 태도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숙고하게 만든다. 인간은 본능적인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세상에 만연한 폭력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의 길인가?”⁹⁰⁾

나이바르-밀러는 식물로 동화되기를 갈망하는 영혜의 몸부림을 ‘인간성을 넘어선 자유에 대한 갈망’이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해석하고 있다. 폴란드 최대 일간지인 <가제타 비보르차>의 보이치에흐 쇼트(Wojciech Szot) 기자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한다.

“한강은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글을 쓰는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녀의 문학에서 중요한 건 보다 보편적인 질문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왜 아름다움을 창조하면서도 잔혹해질 수 있는가? 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무엇일까?” (2024-10-10)⁹¹⁾

(검색일: 2024-11-15)

88) <https://krytycznymokiem.blogspot.com/2014/07/wegetarianka-han-kang.html> (검색일: 2024-11-15)

89) 위의 기사 (검색일: 2024-11-15)

90)

<https://www.tygodnikpowszechny.pl/literacki-nobel-2024-dla-han-kang-koreanskiej-pisarki-167991>

(검색일: 2024-11-13)

91) <https://wyborcza.pl/7,75517,31375124,kim-jest-han-kang-laureatka-nobla-z-literatury.html> (검색일: 2024-11-15)

이처럼 폴란드의 평론가들은 『채식주의자』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철학적인 텍스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채식주의자』는 나와 타자와의 경계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유발하면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답은 각자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허용한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타인의 삶에 우리는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는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정당화할 수 있는가? 어쩌서 우리는 타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자신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을 신중히 되새겨보며, 두려움 없이 깊은 성찰에 빠져 보기를 권한다.” (2021년 2월 8일)⁹²⁾

제9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 특별강연(2023.11.15.)에서 한강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며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다짐을 남긴 바 있다.⁹³⁾ 노가시는 『채식주의자』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시대적 고민이 담긴 질문을 던지는 책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책이 되었다. 탐욕스러운 인간이 만들어 낸 작금의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왜 자연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환경을 적대시하게 되었는가? 식물과 동물에 대한 우리의 공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 인간은 아직 인간으로 남아 있는가?”⁹⁴⁾

평론가 안느나 부가이나(Anna Bugajna) 역시 <문화의 목소리(Głos Kultury)>에 기고한 서평에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채식주의자』의 매력으로 꼽았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읽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작품이다. 단순히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곱씹으며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작품이 난해해서 여러 번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소설은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작품이다. 작품의 서사 속에서 작가는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몇몇 중요한 이미지를 배치해 놓았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독자에게 종종 극단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들에 대해 숙고하다 보면, 이 소설 혹은 우화에 담긴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에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다.” (2021년 4월 6일)⁹⁵⁾

『채식주의자』의 서사는 개인의 저항을 넘어서 사회적·제도적 억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탐구로 확장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92) <https://moznaprzczytac.pl/wegetarianka-han-kang/> (검색일: 2024-11-18)

93) <https://www.munhakin.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 (검색일: 2024-11-15)

94)

<https://www.wysokieobcasy.pl/wysokie-obcasy/7,157211,26843192,laureatka-literackiego-nobla-jak-bardzo-musisz-rozczarowac.html> (검색일: 2024-11-15)

95) <https://www.gloskultury.pl/han-kang-wegetarianka-recenzja/> (검색일: 2024-11-15)

번역가인 나이바르-밀러와의 대화를 통해 한강 스스로가 선언했듯이 “개인적이어서 정치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정확히 선을 그어 나눌 수 없죠. 아주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도 정치적인 것이고, 아주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아주 사적인 것이기도 하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채식주의자』는 정치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는 3분의 2가 남성 화자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두 자매,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두 여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상성과 광기의 경계는 무엇인지 묻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정치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⁹⁶⁾

『채식주의자』에서 비롯된 인간성에 대한 성찰과 고통에 대한 감응, 그리고 사회적 억압과 폭력에 대한 개인의 저항이라는 주제 의식은 한강의 다른 작품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폴란드의 독자들에게 깊은 사색을 유도하고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고 있다.

4.2. 『소년이 온다』: 뺏속까지 파고드는 소설

폴란드에서 『소년이 온다』는 책보다 연극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이 책의 영문판을 읽고 감동한 연출가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Marcin Wierchowski)가 2019년 10월 크라쿠프의 유서 깊은 스타리 국립극장(Narodowy Stary Teatr)에서 전 세계 최초로 『소년이 온다』를 무대에 올린 것이다. 비에슈호프스키 감독은 자신의 작품이 연극으로 각색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던 한강 작가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어 작가를 설득했다고 한다. 폴란드 국영 라디오와의 인터뷰(2019년 12월 14일)에서 비에슈호프스는 폴란드가 아닌,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을 공연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역사는 한국과 닮아있다. 광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폴란드와 한국의 운명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두 나라의 미래는 외세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의 전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겪으며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⁹⁷⁾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연극은 2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1막은 한강의 소설을 바탕으로 광주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2막은 2028년을 배경으로 분열과 내전에 휩싸인 폴란드 사회를 보여준다. 한국의 비극이 폴란드의 미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연극은 초국가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광주 학살의 희생자와 생존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원작과 달리 연극의 2막에서는 가해자의 목소리도 함께 등장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모색

96) https://youtu.be/_HCB5VL6Cyc

97)

<https://polskieradio24.pl/artykul/2422231.nadchodzi-chlopiec-w-rez-marcina-wierchowskiego-w-narodowym-starym-teatrze> (검색일: 2024-11-15)

하고자 했다. 흥미로운 것은 관객이 극장 내 설치된 8곳의 다양한 공간을 이동하며 극을 관람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이다. 광주의 비극 자체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폴란드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서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극장 구조를 적극 활용해서 삶과 죽음의 공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감독은 설명한다: “1980년과 2028년 사이를 오가며 관객들이 마치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영혼과 같은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다.”⁹⁸⁾

『소년이 온다』에서 서사의 출발점인 체육관의 분위기가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면, 관객에게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고 판단한 감독은 한국의 5.18 기념재단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을 요청하는 등 고증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좀 더 강렬한 현실감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연극의 도입부, 학살당한 시체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식초를 끓이는 불쾌하고 자극적인 냄새를 활용했고, 2막의 폴란드 내전 장면에서는 치유와 정화를 의미하는 팔로산토 나무를 태우는 향기가 사용되었다. 덕분에 관객들은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공감각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맛보게 되었고, 이러한 독특한 연출 방식은 폴란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9년 10월 전 세계 최초로 폴란드에서 공연된 연극 『소년이 온다(Nadchodzi chłopi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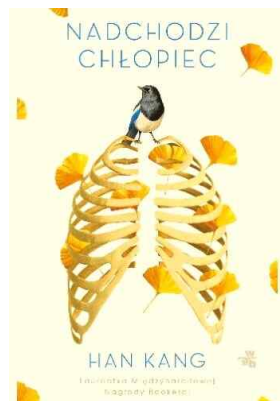
98)

<https://culture.pl/pl/artykul/masakra-w-teatrze-nadchodzi-chlopiec-marcina-wierzchowski>
ego

(검색일: 2024-11-15)

흥미로운 것은 『소년이 온다』가 세계 최초로 폴란드에서 공연된 지 한 달 후 서울에서도 같은 작품을 원작으로 한 <휴먼 푸가(Human Fuga)>가 초연되었다는 사실이다. 남산아트센터에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배요섭 감독의 연출로 상연된 이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연출가 비에슈호프스키는 한국을 방문했다. 또한 배요섭 감독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11월 9일)에도 참여하여 한국의 청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듬해인 202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폴란드판 <소년이 온다>와 한국판 <휴먼 푸가>를 각각 한국과 폴란드에서 교차로 공연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 펜데믹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폴란드에서 연극이 상연된 지 1년 후인 2020년 9월,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의 번역으로 『채식주의자』 폴란드어판이 출간되었다.



『소년이 온다(Nadchodzi chłopiec)』 폴란드어판 표지

폴란드의 언론은 『소년이 온다』가 비극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특히 다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예술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광주의 비극이 폴란드 독자들에게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온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작품이 광주의 아픔을 기록한 소설이지만, 단순히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환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진 억압 속에서도 존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연하게 맞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보편적 이야기로 승화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소년이 온다』에서 한강은 광주라는 지명을 세상과 단절되고 짓밟힌 장소의 대명사로 사용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기에 한강은 말한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2021년 6월)⁹⁹⁾

베아타 바실레프스카(Beata Wasilewska) 또한 고통과 상실을 시적으로 담아낸 서사 기법에 주목하면서 이 작품이 증오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고, 나아가 인간의 본성과 생명의 가치를 치열하게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 밑줄을 긋는다.

99)

<https://www.tygodnikpowszechny.pl/literacki-nobel-2024-dla-han-kang-koreanskiej-pisarki-167991>

(검색일: 2024-11-12)

“한강은 서정적인 문체와 심오한 상징을 통해 독자들을 비극의 한가운데로 이끈다. 작가의 시적이면서도 정제된 문체는 독자들에게 슬픔 속에서도 애뜻한 감동을 안겨주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유효한 메시지 - 인간의 존엄성을 탐구하는 걸작이다.” (2020년 10월 12일)¹⁰⁰⁾

평론가 야쿱 힌츠(Jakub Hinc)는 『소년이 온다』를 “잃어버린 자유를 탄식하는 비가(悲歌)이자 산문으로 쓰인 기도문이며 통곡”이라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낸다.

“이 책은 꿈결 같은 서사 속에서 고통으로 가득 찬 영혼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들려준다. 길을 잃은 영혼,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자, 육체를 떠난 영혼과 여전히 고통스러운 육체에 얽매인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강은 마치 주술사 처럼, 굴욕을 겪는 영혼과 고문과 멸시에 길들여지는 영혼, 그리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불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다.” (2020년 12월 29일)¹⁰¹⁾

평론가 안느나 알리모프스카(anna Alimowska)는 『소년이 온다』의 미덕으로 다층적 관점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성과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절제된 서술을 꼽았다.

“『소년이 온다』에서 한강은 감정의 과잉이나 과도한 서술을 배제한 채 독자들을 비극의 한가운데로 이끈다. 비통한 사건들을 담담히 서술하며, 역사적 배경과 인물들의 내면을 고요히 조명한다. 그렇게 사건의 비극적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독자들에게 오랜 여운을 남긴다.” (2020년 11월 4일)¹⁰²⁾

폴란드의 언론은 『소년이 온다』가 폭력과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고발과 응징이 아니라 회복과 희망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남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소년이 온다』는 독자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여정을 함께하도록 이끈다.”
(2020년 9월 29일)¹⁰³⁾

100)

<https://wasilka-slowajakmarzenia.blogspot.com/2020/10/gdy-wadza-dopuszcza-sie-okrucienstwa.html>

(검색일: 2024-11-15)

101)

<https://zupelnieinnaopowiesc.com/2020/12/29/przemilczane-duchy-kwangju-han-kang-nadchodzi-chlopiec/>

(검색일: 2024-11-13)

102) <https://coprzeczytac.pl/recenzja-ksiazki-nadchodzi-chlopiec> (검색일: 2024-11-15)

103)

<http://booklips.pl/czytelnia/fragmenty-ksiazek/powiesc-o-krwawej-masakrze-w-kwangju-przeczytaj-fragment>

-ksiazki-nadchodzi-chlopiec-laureatki-miedzynarodowego-bookera-han-kang/ (검색일: 2024-11-10)

평론가 보이치에흐 쇼트(Wojciech Szot) 또한 폴란드 최대 일간지인 <가제타 비보르차>에 실린 평론에서 『소년이 온다』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강의 책들은 기억, 세대를 거쳐 전승된 트라우마,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인간힘 등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잃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 동호는 이렇게 말한다: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야,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 (2020년 10월 10일)¹⁰⁴⁾

한강은 2021년 “콘라드 페스티벌” 참가 당시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를 쓰며 신체적·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밝히며, 광주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자신을 매개체로 삼았다고 전했다. 처절한 비극 속에서 무고하게 죽어야 했던 이들, 그리고 살아남아 모진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진심 어린 문장들로 무고한 영혼의 말을 “심장에 받아 적어서”¹⁰⁵⁾ 대신 전하고자 한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진심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 책을 읽는 폴란드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 듯하다. 폴란드의 문화평론가인 마르타 코리츠키(Marta Korycka)는 이 작품을 “뺏속까지 파고드는 소설(powieść przenikająca do szpiku kości)”이라 정의하였다.¹⁰⁶⁾

『소년이 온다』가 이처럼 폴란드인들에게 육체를 관통하는 듯한 강렬한 감동을 안겨주는 이유는 양국 간의 역사적 유사성에 기인한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의 바르샤바 봉기나 공산주의 정권하의 계엄령 선포,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체제 민주화운동과 같은 20세기 폴란드의 역사적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끔찍한 폭력을 마주한 연약한 개인들의 교감과 연대의 이야기는 수난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온 폴란드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성찰과 더불어 폴란드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게 만들기에 폴란드 독자들로부터 남다른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104)

<https://wyborcza.pl/7,75517,31375124,kim-jest-han-kang-laureatka-nobla-z-literatury.html>
(검색일: 2024-11-16)

105) 한강, “그 말을 심장에 받아 적듯이”(말라파르테 문학상 수상소감문), <창작과 비평> 제45권 제4호, 통권 제178호, 438쪽.

106) <https://kultura.gazeta.pl/kultura/7,114528,31374750,kim-jest-han-kang.html> (검색일: 2024-11-16)

4.3. 『흰』: 한강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게 된 바르샤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직후, 폴란드의 언론은 소설 『흰』의 주요 배경이자 작가에게 문학적 영감을 제공한 장소가 바르샤바라는 사실에 환호하며 이 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작품 속에서 ‘바르샤바’라는 지명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공간에 대한 묘사나 역사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서술 덕분에 누구나 공간적 배경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던 도시(바르샤바)가 끈질기게 복원된 모습을 보면서, 그 도시를 닮은 사람(죽은 언니)을 상상하게 됐고, 그런 이미지가 확장되어서 책을 쓰게 되었다”¹⁰⁷⁾고 한강은 술회한다. <매일경제> 김유태 시인과의 인터뷰에서 한강은 “낮선 바르샤바에서 가을과 겨울을 보내며 밤마다 『흰』을 조금씩 써간 시간이 참 좋았다”¹⁰⁸⁾고 회상하기도 했다.

2021년 <가제타 비보르차>가 기획한 문학평론가 미하우 노가시와의 대담에서 한강은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바르샤바에서의 생활을 좀 더 상세히 언급했다.

“처음에는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쓸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바르샤바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거리 곳곳을 걸으면서 건물에 남아 있는 총탄 자국과 오래된 주춧돌을 보았다. 이 도시는 폐허에서 다시 태어난 곳이었다. 그 순간 나는 누군가가 같은 경험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죽은 이가 다시 태어나고,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그때부터 언니의 존재가 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

바르샤바에서 보낸 4개월 동안 나는 언니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소설과 에세이를 결합한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상실감을 받아들이고,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기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잠시나마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 나는 와지엔키 공원을 산책하곤 했다. 매주 일요일 그곳에서 쇼팽 콘서트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2021년 3월)¹⁰⁹⁾

평론가 신형철과의 인터뷰에서 한강은 “언니는 흰빛과 같은, 더럽혀질 수 없는, 더럽혀질 거를도 없이 떠났던 존재”라고 고백한 바 있다.¹¹⁰⁾ 그런 언니의 영혼을 소환한 도시 바르샤바는 한강에게 과거의 기억과 유령들이 되살아나는 장소, 생과 사의 순환적 본질이 깃든 공간이다. 극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인 베로니카 슈차빈스카(Weronika Szczawińska)는 “작중 화자, 그리고 그녀의 죽은 언니와 함께 소설 『흰』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르샤바”라고 단언한다.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흰』은 바르샤바에 대한 가장 독창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바르샤바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제목에 등장하는 ‘흰색’의 중심지이다. (..) 한강이 묘사한 바르샤바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도시이며, 그 자체로 영혼이 된, ‘흰 도시’이다. (2018.6.10.)¹¹¹⁾

107) <https://ch.yes24.com/Article/View/31058> (검색일: 2024-11-15)

108) <https://www.mk.co.kr/news/culture/11137036> (검색일: 2024-11-15)

109)

<https://www.wysokieobcasy.pl/wysokie-obcasy/7,157211,26843192,laureatka-literackiego-nobla-jak-bardzo>

-musisz-rozczarowac.html (검색일: 2024-11-15)

110) <https://www.asiatoday.co.kr/kr/view.php?key=20160628001451232> (검색일: 2024-11-15)

111)

<https://warszawa.wyborcza.pl/warszawa/7,54420,23508707,literacki-nobel-2024-dla-han-kan-g-koreanska>

-pisarka.html (검색일: 2024-11-15)

2022년에 출간된 『흰』의 폴란드어판 제목은 『Biała Elegia』, 즉 한국어로 해석하면 ‘흰 엘레지(哀歌)’, 즉 ‘죽은 자에게 바치는 애도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흰 (Biała Elegia)』 폴란드어판 표지

폴란드의 평론가들은 『흰』이 애도와 추모의 정서를 담은 시적인 산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생명의 순환과 재생의 의미를 일깨운다는 점을 작품의 미덕으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작품 속에 깃들여 있는 치유와 회복의 기능에 주목한다.

“『흰』은 상실의 슬픔 속에서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하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돌아보게 만든다. 소설의 울타리를 넘어 독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가느다란 경계를 사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문학적 체험을 선사한다.” (2022년 2월 5일)¹¹²⁾

“서울과 바르샤바, 두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다. 한국의 작가는 폴란드의 수도를 거닐며 보편적인 사색에 잠기고, 독자들 또한 그 사유에 동참하도록 이끈다. (...)

이 책을 읽으며 독자는 작가와 함께 커다란 상실과 슬픔, 추모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지만, 종국에는 위로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걷게 된다. (...) 이 책은 찬찬히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가슴 깊이 파고드는 책이다.” (2024-10-31)¹¹³⁾

시사·문예 저널 <폴리티카>의 기자인 알렉산드라 젤라진스카(Aleksandra Żelazińska)는 『흰』의 시적이고 간결한 문체, 미니멀리즘적인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평한다.

“『흰』에서 한강은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의미를 전달한다. 144쪽에 불과한 얇은 책이지만, 그 속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가득하다.”¹¹⁴⁾

베로니카 슈차빈스카는 『흰』을 읽으며 한강의 시선으로 바르샤바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인상적인 서평을 남겼다.

112) <https://coprzeczytac.pl/biala-elegia-nowa-ksiazka-han-kang-laureatki-bookera> (검색일: 2024-11-13)

113) <https://urocznica.pl/recenzja-biala-elegia-han-kang/> (검색일: 2024-11-14)

114)

<https://www.polityka.pl/tygodnikpolityka/kultura/ksiazki/2153575,1,recenzja-ksiazki-han-kang-biala-elegia.read>

(검색일: 2024-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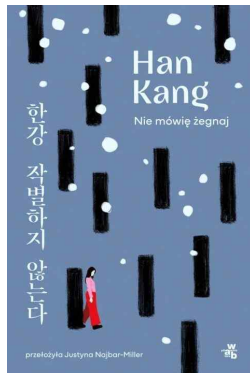
“한강은 바르샤바의 기념비적인 장소를 바라보며 폴란드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 니, 매우 비(非)폴란드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 비극의 현장에 대해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는 것을 그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로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또 하나의 선언 으로 읽어낸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살육당한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길고 깊은 슬픔을 느낄 권리를 자신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 국을 떠올리며, 한국에서는 그런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온전히 애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바르샤바의 아픔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다. 그것은 비판적 시선이 아닌, 깊은 공감의 시선이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슬픔을 넘어 진정한 연민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강의 『흰』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일깨워 주었다.”¹¹⁵⁾

한강의 작품을 통해 바르샤바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의 이야기가 폴란드 역사의 상흔을 되비추는 거울이 되어 화해와 연민의 정서를 느끼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문학이 가진 위대한 힘에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4.4. 『작별하지 않는다』: 역사 소설은 한강처럼!

『작별하지 않는다』의 폴란드어 번역본은 2024년 1월에 출간되었다.



『작별하지 않는다 (Nie mówię żegnaj)』 폴란드어판 표지

한강은 <아카이브 취향>과의 인터뷰에서 “역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죽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과거를 이야기할 어법을 찾아내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¹¹⁶⁾라고 밝혔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폴란드의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 또한 “역사적 책무와 기억의 무게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의 출판사 W.A.B.도 이 작품이 “집단의 기억과 역사적 책임에 대해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¹¹⁷⁾는 점을 강

115)

<https://warszawa.wyborcza.pl/warszawa/7,54420,23508707,literacki-nobel-2024-dla-han-kan-g-koreanska-pisarka.html> (검색일: 2024-11-15)

116) <http://chunchu.yonsei.ac.kr> (검색일: 2024-11-18)

117) <https://kultura.gazeta.pl/kultura/7,114528,31374750,kim-jest-han-kang.html> (검색일: 2024-11-14)

조한다. 폴란드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엠피픽(Empik) 또한 이 책이 피해자를 향한 애도의 윤리를 재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강은 이 소설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이 책은 잊힌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되돌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의무에 대해 역설한다. 또한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할 것인지 우리에게 반성과 사색을 유도한다.” (2024년 1월 29일)¹¹⁸⁾

평론가 프셰미스와프 포즈난스키(Przemysław Poznański)는 “만약 역사의 비극적인 순간을 조명하는 소설을 써야 한다면, 르포르타주 형식이 아니라 한강처럼 써야 한다”고 단언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강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거나 증언에 의존하는 방식을 초월하여 개인의 깊숙한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때로는 후손에게 대물림된 트라우마와 무의식의 심연에까지 다가간다. 이 이야기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었겠지만,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의 잔혹함을 이보다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희생자의 공포와 남겨진 자들의 절망에 온전히 공감하며 쌓아 올린 서사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23일)¹¹⁹⁾

『작별하지 않는다』가 출간된 직후, 폴란드어판 <보그(Vogue)>는 이례적으로 여러 지면을 할애하여 번역가인 유스티나 나이바르-밀러와의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나이바르-밀러는 이 작품이 과거의 비극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세 여성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채 공동체의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작품에서 여성들은 단지 억압에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인한 목소리로 자리매김한다. 그들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채,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진실을 위해 싸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선으로 가득 차 있다. 한강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도전을 문학적으로 조명하며, 독자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고민을 촉구한다. (...)”

흥미로운 지점은 한국에서 제주의 여성들이 매우 강인하고 독립적인 성향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제주도를 창조한 신도 여신이라고 전해진다.” (2024년 2월 3일)¹²⁰⁾

118)

<https://www.empik.com/pasje/odpowiedzialnosc-za-bliskich-i-za-zmarlych-nie-mowie-zegnaj-han-kang-receznia-ksiazki,134067,a> (검색일: 2024-11-15)

119)

<https://zupelnieinnaopowiesc.com/2024/01/23/nakluwanie-miejsc-bolacych-han-kang-nie-mowie-zegnaj/> (검색일: 2024-11-15)

120)

<https://www.vogue.pl/a/nie-mowie-zegnaj-han-kang-rozmowa-z-tlumaczka-powiesci-justyna-najbar-miller> (검색일: 2024-11-15)

나이바르 밀러는 한강의 알테르 에고(Alter Ego)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경하를 ‘샤먼과 같은 존재’로 보고, 이 작품에 무속신앙의 요소가 담겨 있다고 해석한다.

“주인공 경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무녀와 같은 존재이다. 경하의 제주행은 표면적으로는 인선의 앵무새를 살리기 위해서지만, 실제로는 운명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봐야 한다. 학살의 진상을 듣고, 이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거기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생사의 경계에서 경하는 마침내 죽은 영혼들의 한을 듣게 된다. 그녀가 폭설을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무당이 하얀 천을 가르는 무속신앙의 의식을 떠올리게 한다.” (2024년 2월 3일)¹²¹⁾

나이바르-밀러는 실제로 제주 4.3 사건 이후, 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던 암흑의 시기에 무당들이 비공식적으로 사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의식을 진행함으로써 유가족들을 정신적으로 위로했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한다. 그리고 한강의 소설에서 자연은 그저 배경으로만 머물지 않고, 영적 세계와 연결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과 앵무새, 검은 나무의 상징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다.

폴란드의 유력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나이바르-밀러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전통 무속신앙의 영향 외에 불교적 세계관과 카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적 요소가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한강의 작품에서는 불교적인 요소도 나타난다. 특히 ‘삶은 꿈과 같다’는 불교적 신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 작품 속에서 현실과 비현실, 산 자와 죽은 자, 그리고 현실과 신화의 세계를 동시에 응시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조화롭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칼 융의 심리학적 영향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2024년 10월 18일)¹²²⁾

평론가 마르타 코시츠키(Marta Kosicka)는 이 작품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의 비극적 사건들을 되새기며 상처를 보듬어 치유와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는 문학”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삶과 죽음, 나아가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한강은 시적인 언어와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우리를 심오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이끈다. 그렇게 독자들을 슬픔의 깊은 눈발 속으로 빠트리며, 그 속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보다는 문학이 불러일으켜야 할 감정의 진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 문학이 감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여정으로 읽힌다.” (2024년 5월 7일)¹²³⁾

121) 위의 기사 (검색일: 2024-11-15)

122)

<https://www.rp.pl/plus-minus/art41307771-justyna-najbar-miller-szamanka-koi-narodowa-traume>

(검색일: 2024-11-15)

123) <https://opetaniczytaniem.pl/recenzje/nie-mowie-zegnaj-han-kang-wab-2024.html> (검색일: 2024-11-15)

문학전문 포털사이트인 그라니차(granica.pl)의 서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한강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투쟁과 그들의 존엄성을 역설한다. 한국의 비극적인 근현대사에서 걸어 올린 이 이야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건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아하고 시적인 문장과 눈부시게 생생한 묘사를 통해 독자를 압도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작품이다.”¹²⁴⁾

한강 또한 『작별하지 않는다』의 후기에서 이 소설을 가리켜 “어떤 것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작별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히며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고 토로했다.

수난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겪으며 슬한 죽음과 학살을 경험한 폴란드인들에게 『작별이 온다』가 그려내는 애도와 기억, 그리고 치유와 사랑의 서사는 잔잔하지만 깊게 정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5. 나가는 말

인간 삶의 연약함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그 아픔에서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를 담은 한강의 문학을 폴란드인들은 보편적이면서도 조금은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언어권에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 한강의 문학은 억압받는 개인의 수난사를 뛰어넘어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인간성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절제된 언어,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실험적인 스타일 또한 폴란드인들의 문학적 감수성에 부응하며 평단과 독자들로부터 너른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잦은 외세 점령과 전쟁, 전체주의의 억압으로 인해 폴란드인들이 겪어왔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주제들이 폴란드 독자들로부터 남다른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024년 10월 10일,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자마자 폴란드의 양대 일간지인 <가제타 비보르차>와 <제츠포스폴리타>는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걸친 성공 비결을 심층 분석하는 기획 기사를 나란히 게재했다. 두 언론사 모두 K팝과 드라마 시리즈, 영화 등 한류 전반의 흐름을 짚으며 한국이 문화를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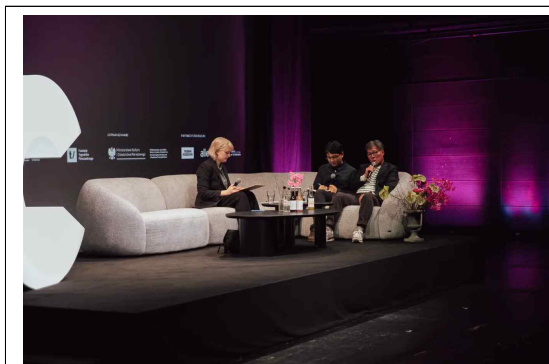
폴란드에서 한국 문학 출판의 역사는 2016년 한강의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16년 이전에는 한국 작품들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관심이 미약했기에 선뜻 책을 내려는 출판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이 20세기부터 꾸준히 번역·출간되며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한국문학번역원의 헌신적인 지원과 바르샤바 대학교 한국어과 졸업생이 설립한 ‘동양의 꽃’ 출판사의 역할이 컸다. 때마침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폴란드의 5개 주요 대학에 한국어과가 잇달아 설립되었고, 번역가의 인력풀 또한 점차 넓어지면서 폴란드에서 한국 문학 출판은 조금씩 활기를 띠게 된다. 이후 K-POP과 K-드라마

124) <https://www.granice.pl/ksiazka/nie-mowie-zegnaj/6310910> (검색일: 2024-11-15)

열풍이 이어졌고, 덕분에 K-콘텐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문학에 대한 폴란드의 수요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강의 뒤를 이어 우리 작가들이 연이어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황석영, 정보라, 박상영, 천명관 등이 인터내셔널 부커상 후보에 오르자 한국 문학에 대한 폴란드 독자들의 관심도 급증했다. 덕분에 2020년 이후부터는 즈낙(Znak)이나 W.A.B.와 같은 대형 출판사들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없이도 우리 작가들과 단독 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책을 출판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2022년~2023년에는 무려 13권의 책이 출간되었는데, 인터내셔널 부커상 쇼트 리스트에 오른 정보라의 『저주 토끼』와 롱 리스트에 오른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을 비롯하여 구병모의 『파과』, 최은영의 『쇼코의 미소』, 배수아의 『철수』, 김이듬의 시집 『히스테리아』 등 다양한 장르, 다양한 소재의 K-문학이 폴란드 독자들과 만났다. 2023년 폴란드 최대 온라인 서점인 엠픽(Empik)이 발표한 외국 문학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장은진의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와 이민진의 『파친코』, 손원평의 『아몬드』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쾌거는 앞으로 폴란드에서 한국 문학 출판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 작가가 물꼬를 튼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한강(2021년), 정보라(2023년)에 이어 천명관이 올해 “콘라드 페스티벌”에 초대받았고, 『고래』 폴란드어판 출간 기념으로 지난 10월 25일 크라쿠프에서 열린 작가의 북토크는 250석 전석이 빠르게 매진되며 폴란드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24년 10월 25일 크라쿠프에서 열린 천명관 작가의 북토크



유서 깊은 스워바츠키 극장에서 개최된 천작가의 북토크는 전석(250석) 만석을 기록했다.

폴란드의 출판계는 이제 국제 문학상 수상작뿐 아니라 신예 작가들(돌기민, 염소민 등)의 데뷔작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시차 없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활발하게 번역·소개되는 가운데 폴란드 독자들은 포스트 한강을 기대하는 중이다. 매년 약 10만 명이 방문하는 폴란드 최대 규모의 문학 축제, 바르샤바 국제 도서전의 내년도(2025년) 주빈국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바야흐로 폴란드에서 한국 문학 르네상스의 막이 열렸다.

한강의 문학, 체코의 시선

유선비(한국외대)

1. 서론

체코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은 세 편이 번역되어 있다. 첫 작품은 2017년 <채식주의자>이고 다음 해인 2018년 <소년이 온다>가 번역되었으며 체코어 제목은 원작과는 조금 다른 Kde kvete tráva (어디서 풀꽃이 피는가)였다. 다음 작품은 2019년 <흰>이 원작과 같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작별하지 않는다>가 2025년 초 Neloučím se navždy (영원히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출판 예정이다. 모든 작품은 출판사 Odeon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역자 페트라 벤아리(Petra Ben-Ari)에 의해 번역이 이루어졌다.

체코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이는 체코의 오래된 한국학의 전통 때문이다. 국립대학교인 카렐 대학교(Karlova univerzitia)에는 1950년에 이미 한국어 전공이 만들어졌고(물론 처음 시작은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설립되었고)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급속도로 커졌다. 한국학을 전공한 졸업생들과 한국학과 교수들에 의해 꾸준히 한국문학 작품이 번역되어왔고, 특히 한국의 지원을 받으며 많은 현대문학 작품들이 번역되고 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번역된 2017년부터 체코에는 본격적인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 한강 작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방면의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올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쏟아지는 양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지만 말이다. 체코에서 한강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세가지의 '시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미디어의 시선'이다. 그녀가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그녀의 책이 체코어로 처음 번역되어 나왔을 때, 그녀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말그대로 체코 미디어의 시선이 '한강'을 향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시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문학계의 시선'이다. 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일반적인 문학 이론, 문학비평, 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들여다보고 특히 한국문학을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비평하는 문학계의 시선을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는 '문학도의 시선'이다. 아직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시선은 향후 문학전문가, 역자들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한강 문학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시선을 파악해본다.

2. 체코의 시선

미디어의 시선

한강 작가에 대한 가장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시선은 역시 미디어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노

벨상 이후 쏟아지고 있는 많은 관심 속에서 그녀에 대한 내용은 점차 구체화되고 분명한 내용을 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학 전문가 미리엄 뢰벤스타이노바 (Miriam Löwensteinová)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하는 더 깊은 맥락에 대한 시도없이 상대적으로 단조롭다.”는 말처럼 미디어의 경우 상대적으 가볍게 다루어 지는 게 사실이다. 한강 작가에 대한 체코 미디어의 시선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가. 한강의 작품과 영어 번역

나. 맨부커상 시상과 그로인한 한강과 작품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에 대한 관심과 분석

다. 노벨상 수상과 한강 작가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작품 세계

먼저 ‘한강의 작품과 영어 번역’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코 미디어는 특히 한강이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불거졌다. 원작과 번역 간의 문제와 해석은 이미 오래된 주제이다. 단지 한강 작품의 문제 만은 아니지만 영어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번역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으로 체코에서는 화제가 되었다. 외국어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하면서 작가 파벨 코사치크 (Pavel Kosačik)는 라디오 대담에서 “한강이 상을 받은 소설 <채식주의자>는 꽤 오래된 작품입니다. 2007년 출간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도달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책은 10년이 채 안되어서 영어로 번역되었고, 나중에 밝혀진 대로 번역자는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루고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¹²⁵⁾라고 코멘트했다. 영어 번역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일부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영어번역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은 후 그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며, 2016년 <소년이 온다>의 영어 번역이 나오고 2018년 체코어 번역이 나왔을 때 체코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노벨상 후보로 거론했으나 그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다. 2024년 오래는 누구도 그녀의 수상은 물론이고 수상자 후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목소리가 영어번역이 맨부커상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는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불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로 번역되었고, 올해 3월 스웨덴어로 출판되었으며 이것이 노벨상 수상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물론 번역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체코는 전통적으로 번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해왔고 인문학의 발전에 번역은 매우 중대한 과제를 피력해온 나라이다. 모르는 언어로 쓰인 다양한 저서를 모국어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번역의 강력한 힘이다.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체코사람들이 읽을 수 있던 것도 바로 번역 때문이다. 글을 읽어야 생각도 하고 비평도 하고 상도 주니 말이다. 체코의 경우 한강의 작품은 모두 영어가 아닌 체코어에서 번역되었고 이에 대해 번역가 빅토르 아니슈 (Viktor Janiš)는 “한강은 자신의 표현을 아껴서 매우 사실대로 표현하는데, 영어 번역은 이를 모호하게 합니다. 영어 번역은 영국식으로 어떻게 써야할 지에 따라, 표면적으로 멋지고 세련됩니다. 체코어 번역은 더 간결하고 원본과 더 유사합니다.”¹²⁶⁾라고 판단하면서 영어 번역이

125) Pavel Kosatík: “Vegetariánka v originále zapadla. Nobelovu cenu získala Han Kang až díky anglickému překladu”, Pavel Kosatík: Vegetariánka v originále zapadla. Nobelovu cenu získala Han Kang až díky překladu | Dvojka.

126) Nobelovu cenu za literaturu získala Han Kang, i Češi znají její Vegetariánku, Nobelovu cenu za literaturu získala Han Kang, i Češi znají její Vegetariánku — ČT24 — Česká televize.

한강의 작품을 올바르게 표현했는 지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에 동참하는 목소리를 낸다. 다음으로 ‘맨부커상 시상과 그로인한 한강과 작품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에 대한 관심과 분석’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을 살펴보자. 체코의 경우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에 대한 내용은 거의 발표되지 않았고, <채식주의자>가 체코어로 번역된 2017년부터 한강이 미디어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년이 온다>가 번역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인 판매로만 보면 당연 <채식주의자>가 앞서는데 문학계에서는 <소년이 온다>를 더 많이 읽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의 첫 번째 작품에 대해 마르티나 쉬모바(Martina Šimová)는 “여성적 원리에 드러나지 않은 저항 (Nenápadná vzpoura ženského principu)”이라는 제목을 달고 한강은 한국의 오래된 가부장적인 사회의 “경직된 전통과 구속력을 갖춘 관습에 맞서는 상징”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한강의 소설은 굴욕과 억압에 맞서는 갑작스러운 각성과 조용한 반항과 자유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망의 이야기”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한강이 주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라고 평가한다. 자신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거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많은 장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인데, 한강 작품 속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장면, 몽환적 구절, 상상력이 풍부한 언어”가 이야기에 독창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보았다.¹²⁷⁾ 한강의 작품을 통해 체코 미디어의 시선에 비친 한국 사회의 모습은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들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여성들은 헌신과 순종을 종용받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몽고반점>이 한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남성세계에 대한 거부로 설명”하면서 이런 이유가 서양 여성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이런 시선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텍스트가 읽혔다고 본다. 특히 많은 논평 사이에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특징을 들자면 그녀 글쓰기의 ‘간결함’이다. 미디어의 논평은 놀랄만한 주제들보다 ‘가독성’, 즉 간결한 그녀의 문체에 대해 주목한다. <소년이 온다>의 경우는 체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낯선 광주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역자가 상세히 한국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더해 책을 출판한 것도 있고, 주제 면에서는 ‘초시간적인 면’을 드러내며 폭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인기를 끈다.

마지막으로 ‘노벨상 수상과 한강 작가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작품 세계’에 대한 체코 미디어의 시선이다. 먼저 놀랍게도 한국의 한강 작가가 아시아 최초의 여성 작가로서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앞다투어 보도한다. 이는 많은 미디어에서 올해의 노벨 문학상은 유럽이나 북미가 아닌 지역의 작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무라카미 하루키나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를 들기도 하고, 수상에 ‘비유럽인 여성’이 탈 확률이 높다고 보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중국의 작가 잔췌(殘雪)를 예상하기도 했기 때문이다.¹²⁸⁾ 모두의 예상을 깨고 후보에도 없던 한강의 수상은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 파벨 코사르크는 노벨상 수상에 한강 자신도 놀랐다고 하는 보도를 하며, 노벨상 수상 후 역자 페트라 벤아리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강 작가는 한국에서도 그리 대중적이지 않은 작가였지만 그녀가 주목을 받은 것은 “hledání nový způsob pojmenování (명명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며, 이것이

127) Martina Šimová, *Nenápadná vzpoura ženského principu*, *Nenápadná vzpoura ženského principu* – iLiteratura.cz

128) Tomáš Šťáštka, “Vzepřít se masu i patriarchátu. Nobelovu cenu za literaturu získala Han Kang”, https://www.idnes.cz/kultura/literatura/han-kang-nobelova-cena-literatura-2024.A241010_104024_literatura_ts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인 것으로 정의한다. 쉬모바가 그렇고 코사르크가 그러하듯 이들이 한결 같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강의 글쓰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형식”¹²⁹⁾이라고 하는 점, 그녀의 언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계의 시선

문학계의 시선은 앞에서 언급한 미디어의 시선과는 확연히 다르게 그녀의 작품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 설명과 분석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체코 한국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리엄 뢰벤스 타이노바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몇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한강은 현대 한국의 여성 글쓰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언급한다. 역사적으로 글쓰기에서 제한과 제약으로 인해 최소한의 글쓰기만을 하던 한국의 여성들은 변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 글쓰기에 거침이 없다고 평하고 있다. 한국 문단이 ‘정’이나 ‘한’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감정을 강조하고, 작품의 분위기는 유럽의 자연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표현에 있어서 자연주의 묘사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21세기 초부터 한국문단 전반에 “검열과 자기 검열없이 글쓰기”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주제가 등장하는데, 한국에서 성공을 담보로 하는 “과거, 섹스, 살인, 북한”과 같은 주된 주제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였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성 작가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여성들은 나열된 것 중 어느 하나도 피하지 않으며, 설명에서 있어서 청중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녀들의 영웅이나 주인공은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독자가 무의식적으로 양식화된 허구의 세계로 끌려가 즐거리와 감정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한강도 마찬가지이다.

Ženy se ničemu z vyjmenovaného nevyhýbají, v popisech jsou ke svému obecenství mimořádně kruté a bezohledné. S tím, že jejich hrdinové či hrdinky bývají ve svých emocích natolik intenzivní, že je čtenář nedobrovolně zatažen do fikčního stylizovaného světa a nucený ke spoluúčasti na ději i emocích. A to platí i o Han Kang.¹³⁰⁾

한강 작가는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달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체코에서 여성 작가가 상을 탔다고 해서 그녀가 ‘여성’임에 주목하지 않는다. 물론 체코의 노벨 문학상이 1984년도에 남성작가 야로슬라프 사이페르트(Jaroslav Seifert)가 받았으니 이후 여성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 한번쯤은 여성임이 주목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극동의 정서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면 한국의 ‘여성’ 작가의 수상이 눈에 띌 수도 있다. 물론 노벨문학상에 최근 들어 여성 작가들이 수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노벨상이 시작한 1901년부터 현재까지 121명의 수상자를 낳았는데 그중 한강 작가가 18 번째임을 가만하면 여성 작가의 활동

129) Pavel Kosatík: “Vegetariánka v originále zapadla. Nobelovu cenu získala Han Kang až díky anglickému překladu”, Pavel Kosatík: Vegetariánka v originále zapadla. Nobelovu cenu získala Han Kang až díky překladu | Dvojka.

130) Miriam Löwensteinová, “O Han Kang, ženském psaní a korejských emocích”, <https://www.asiaskop.cz/kultura/o-han-kang-zenskem-psani-a-korejskych-emocich>.

에 대한 범위와 인식이 제한되어 있었음은 꼭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한강의 관점이 설령 본연의 여성성에서 나오는 것일 지라도 그걸 평가하는 기준은 성이 아닌 ‘문학적’ 혹은 시야를 넓혀 ‘인문학적’인 이유일 것이다. 뢰벤스타이노바는 한국에 뛰어난 여성작가들이 많은데 노벨상과 같은 큰 상들이 정치적인 면과 연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탄 것은 “세계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그녀의 세계적인 목소리는 무엇인가?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제도와 폭력에 대한 저항이다. <채식주의자>에서 여주인공 영혜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폭력을 쓰는 아버지를 둔 가정에 대해 순종적인 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하지만 점차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는’ 자신의 저항을 시작한다. 이젠 한국이 채식주의자나 노브라 문화가 보편화되었을까? 여전히 체코 친구들은 한국음식이 맛있지만 젓갈이 들어간 김치부터 고기 국물을 사용하는 한국음식들 사이에서 ‘채식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한때 연예인들이 노브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으니 여전히 그 사회의 시선이 평범하거나 문제없는 것 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속에서 주인공은 ‘말없이’ 저항을 이어 나간다. 어쩌면 영혜는 현실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 제도를 거부하고 자유를 말하기에는 힘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들어 그녀의 저항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그녀의 저항 이유가 비현실적인 꿈이기에 이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꿈 때문에 고기를 거부한다지만 후에 형부의 비이성적인 제안을 수용하고 결국 곡기를 끊고 나무가 되고자 한다지만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마치 체코문학의 대가 카렐 차페크(Karel Čapek)가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철학소설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Povětrň* (유성)의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진실처럼 말이다.¹³¹⁾

저항과 더불어 한강의 작품 전체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모티브는 죽음, 슬픔과 하얀 색이다. <채식주의자>의 영혜도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조차 자유롭게 실행에 옮길 수 없어 고통을 받는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머물러 있고, 그녀를 방문한 언니가 그녀가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계속 그녀가 음식을 먹도록 요청하고 어르기도 한다. 영혜는 정신병원에서 나가고 싶어한다.

……. 언니도 똑같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의사도, 간호사도, 다 똑같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약만 주고, 주사를 찌르는 거지. 영혜의 음성은 느리고 낮았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냉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어조였다. 마침내 그녀는 참았던 고통을 지르고 말았다.

네가! 죽을까봐 그러잖아!

영혜는 고개를 돌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물끄러미 건너다보았다. 이윽고 흘러나온 질문을 마지막으로 영혜는 입을 다물었다.

……. 왜, 죽으면 안되는 거야?¹³²⁾

131) 어느 날 유성처럼 빛을 내며 비행기가 추락하고 너무나 큰 사고로 인해 주인공은 온몸을 봉대로 감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 지를 알 수 없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과 경험을 기준으로 그에 대해 판단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내용이다. 차페크의 삼부작은 서로 배경, 주인공, 배경 어느 하나 일치하는 게 없지만 *Horďubal* (호르두발)과 *Obyčejný život* (보통인생)과 함께 진실에 대한 변증법적 체계를 갖춘 철학소설이다.

132) 한강, <채식주의자>, 229쪽.

정신병원에서 나가는 것도 그곳에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그녀에게는 없어 보인다. 모두가 그녀를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인간의 존엄과 진정한 자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개인의 죽음에 대한 모티브는 다음 작품인 <소년이 온다>에서는 역사적인 대학살로 이어진다. 학생들이 잔인한 장면에서 책을 잠시 내려 놓아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고 잔인한 장면들을 담고 있다. 이런 죽음은 '트라우마'가 되어¹³³⁾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다.

탈출이 불가능한 위험 상황은 공포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공포, 분노, 고통과의 접촉이 사라진 일종의 평정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사건은 계속하여 의식으로 등록되지만, 사건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와는 연결이 끊어져 버린 듯하다. 지각은 둔해지고 왜곡되며, 부분적인 마비나 특정 감각의 상실이 나타난다. 시간 감각이 변형되고,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며,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신의 몸 바깥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모든 경험이 곧 깨어나게 될 악몽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지각상의 변화는 냉담함, 정서와의 유리 그리고 모든 주도권과 분투를 포기하는 심각한 수동성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형 상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자연의 작은 자비로움일지도 모른다.¹³⁴⁾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의 트라우마에 관한 위의 글에서 보듯이 끔찍한 기억은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의식의 변형을 통해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분노와 공포의 증상이 계속되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는 자연적으로 망각 혹은 감각의 상실 등 의식의 변화를 통해 반응한다. 죽음에 대한 얘기는 멈추지 않는다. <흰>의 모티브는 태어난 지 두 시간만에 죽은 언니에 관한 이야기이다. 신생아의 셔츠가 수의로 변하고 포대기가 관이 되는 하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의나 장례복이 하얀 것에 한국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만 체코인들에게는 신선한 측면으로 다가온 듯 하다. 눈, 진눈깨비, 안개, 아기 옷, 목련, 눈송이 등 이런 흰 색은 한강에게 여러 생각과 아픔을 연결하는 오브제들이다. 이들의 연상작용에 의한 글쓰기는 체코 포에티즘(Poetismus) 시인들의 글쓰기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체코의 시인들이 기쁨의 글쓰기를 시도했다면, 한강은 반대인 셈이다. 한강의 이런 연상 작용을 통한 글쓰기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그녀의 글쓰기가 고통이 인간의 몸에 아로새겨진 체화된 슬픔의 발로인 것에 체코의 많은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문학도들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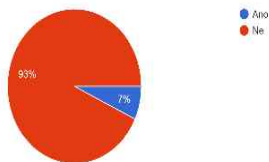
여기서 문학도라 함은 체코에서 한국문학과 체코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으로 국한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문학도는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시선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글이나 책으로 찾을 수가 없어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학을 하는 학생들은 카렐대학교 아시아 연구: 한국어과와 모라비아(Morava)의 도시 올로모우츠(Olomouc)에 있는 팔라츠키 대학교(Univerzita Palackého)의 아시아 연구학과 한국학 전공

133) Johana Křusek, “Příliš bílé soužení” (23. 12. 19), Příliš bílé soužení – iLiteratura.c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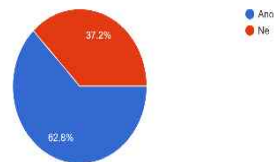
134)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84쪽.

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체코문학도들은 카렐대학교 체코문학과와 리베레츠(Liberec)에 있는 자연, 인문 교육 학부(Fakulta přírodovědně humanitní a pedagogická)에서 체코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의 경우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40여명은 프라하에 있는 카렐대학교의 한국학과 학생들의 수이다. 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이미 입학시험에서 그녀의 책을 읽어야 하고 현대소설 수업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은 교수인 미리암 퇴벤스타이노바의 해석과 설명을 참조로 하였다. 체코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한강에 대해 많이 알고 그녀의 책도 더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Víte, proč byla v roce 2024 udělena Nobelova cena právě jí?
43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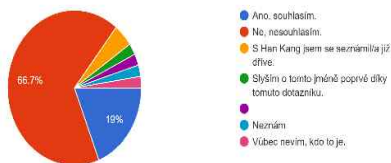


Víte, proč byla v roce 2024 udělena Nobelova cena právě jí?
한국 43개



위의 표는 ‘여러분은 왜 그녀가 2024년 노벨상을 받았는지 아십니까?’에 대한 답변을 표시한 것이다. 왼쪽의 것은 7%의 학생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변했고, 오른쪽은 62.8%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왼쪽의 것이 체코문학을 하는 리베레츠의 학생들의 답변이고 오른쪽은 한국학과가 포함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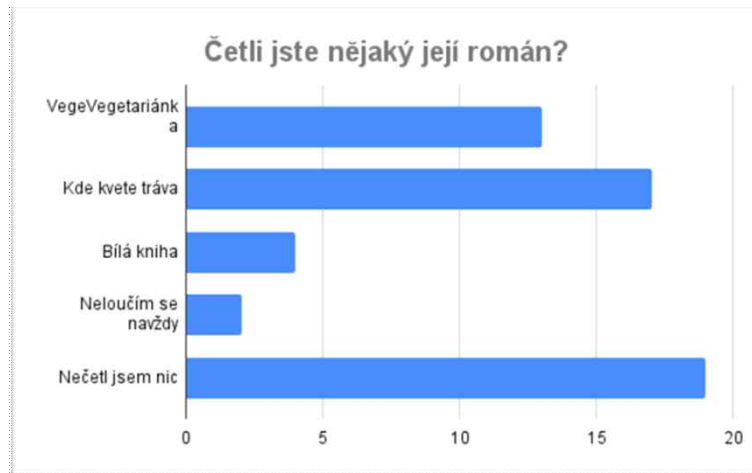
S osobností Han Kang jsem se seznámil/a v médiích informujících o udělení Nobelovy ceny.
42 responses



S osobností Han Kang jsem se seznámil/a v médiích informujících o udělení Nobelovy ceny.
한국 43개



위의 두 표는 ‘여러분은 한강이라는 인물을 노벨상에 대한 미디어 소식을 통해 알았습니까?’에 대한 답변이다. 두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에 67%의 답변을 보인 체코문학도와 ‘이미 이전에 한강을 알았다’에 67%의 답변을 보인 한국문학도 사이의 간극은 확연하다.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한강 작가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다음의 표는 어떤 책이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대답에 읽지 않았다는 답이 많았지만 많이 읽은 순서로 보면 <소년이 온다>가 가장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나 한국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를 더 많이 본 것으로 나온다. 프라하의 한국학과 학생들은 <채식주의자>의 경우 ‘몽고반점’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무 불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했다.

학생들이 ‘당신은 미디어에서 한강 작가의 어떤 점이 관심을 끌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노벨상 수상이라는 답변을 예상했지만, 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와 같은 책 자체에 대한 정보가 관심을 끌었다는 목소리와 “가장 크게 흥미를 끈 점은 작가가 별로 말하지 않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어려운 주제 혹은 터부를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다. (Nejvíce mě zaujalo, že autorka zasazuje své příběhy do důležitých období korejské historie, o nichž se moc nemluví, a nebojí se rozebírat těžká témata.)” 혹은 “책에서 매우 흥미로운 테마를 다루고 있다. 또한 그녀가 노벨상을 받은 후에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축하를 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V knihách se věnuje velmi zajímavým tématům. A také například zpráva o tom, že poté co vyhrála Nobelovu cenu, se odmítla zúčastnit tiskové konference, kvůli tomu, že nechce oslavovat, když lidé umírají ve válce.)”와 같은 흥미로운 답변이 복수로 나왔다. 그 외에도 “세계를 향한 페시미스트적인 시점”, “작가의 출신과 배경” 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참고문헌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열린책들, 2012.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22.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9

한강. <흰>, 문학동네, 2024.

Ben-Ari, Petra. „Už mám dost pocitu zimy - První Nobelovou cenu za literaturu pro Jižní Koreu dostala Han Kang“, Respect, 2024/42, s. 56-57.

Kang, Han. Kde kvete tráva, Odeon, Praha, 2018.

Křusek, Johana. “Příliš bílé soužení”, Příliš bílé soužení - iLiteratura.cz. (23. 12.

19).

Kosatík, Pavel. “Vegetariánka v originále zapadla. Nobelovu cenu získala Han Kang až díky anglickému překladu”, Pavel Kosatík: Vegetariánka v originále zapadla. Nobelovu cenu získala Han Kang až díky překladu | Dvojka.

Löwensteinová, Miriam. “O Han Kang, ženském psaní a korejských emocích”, <https://www.asiaskop.cz/kultura/o-han-kang-zenskem-psani-a-korejskych-emocich>.

Šimová, Martina. Nenápadná vzpoura ženského principu, Nenápadná vzpoura ženského principu - iLiteratura.cz.

Šťástka, Tomáš. “Vzepřít se masu i patriarchátu. Nobelovu cenu za literaturu získala Han Kang”, https://www.idnes.cz/kultura/literatura/han-kang-nobelova-cena-literatura-2024.A241010_104024_literatura_ts.

한강 작가의 문학과 번역에 대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국내의 시선

김상현(한국외대)

한강 작가의 문학과 번역에 대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국내의 시선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김상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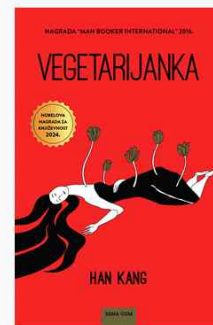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출판된 한강 작가의 작품



- 출판연도: 2016년
- 출판사: Dereta
- 번역자: Ana Marija Grbić
- 번역방식: 영문판 중역



- 출판연도: 2024년
- 출판사: HENA COM
- 번역자: Mirna Čubranić
- 번역방식: 영문판 중역



- 출판연도: 2024년
- 출판사: HENA COM
- 번역자: Mirna Čubranić
- 번역방식: 영문판 중역

2

한강 문학에 대한 세르비아 문학평론계의 부정적 시선

„Kako južnokorejski režiseri prave filmove tako ona piše.“ Naši kritičari je nisu baš najbolje primili, ili su je ignorisali, ili su govorili da je loš pisac, kaže Aleksandar Šurbatović o Han Kang, dobitnici Nobela za književnost. Jedinu knjigu južnokorejske Han Kang, dobitnice Nobelove nagrade za književnost za 2024, objavila je izdavačka kuća „Dereta“ 2016. godine. U pitanju je roman „Vegetarijanka“, i za to je zaslužan pisac Aleksandar Šurbatović, koji je u tom periodu bio urednik u „Dereti“. On za Nov.rs kaže da je nagrada za Han Kang veliko iznenađenje. „Kako korejski režiseri prave filmove tako ona piše. Vrlo podržava taj neki svedeni zen horor stil, sa mnogo malo reči, bez nepotrebnih prideva. Njoj je atmosfera najbitnija od svega. Ona želi da postigne atmosferu metafizičke nelagodnosti, osećaja opasnosti koja odnekud treba, ali mi tu opasnost niti vidimo, niti možemo da je definišemo.“ Knjiga „Vegetarijanka“ nije kod nas sjajno prošla, dodaje sagovornik. „Naši kritičari je nisu baš najbolje primili, ili su je ignorisali, ili su govorili da je loš pisac.“ Nisam video nijednu pozitivnu kritiku, bez obzira što sam ja tvrdio da je u pitanju vrhunsko delo. Ona je dobitnik „Bukera“ za prevedenu književnost, ali mi smo je tada otkupili pre te nagrade“, zaključuje Šurbatović. Književnica Han Kang je 120. po redu laureatkinja najprestižnijeg literarnog priznanja u svetu. (Danas, nov.rs, NI Beograd 10. ok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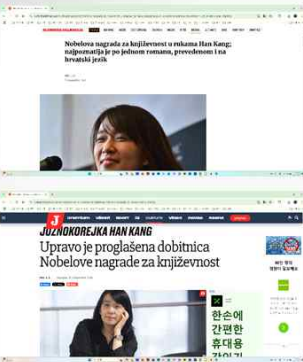


„한국의 영화감독들이 영화를 만들듯 그녀는 글을 씁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에 대해 알렉산더 슈르바토비치(Aleksandar Šurbatović)는 《세르비아의》 평론가들이 그녀를 무시하거나 나쁜 작가라고 말하는 등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국 한강 작가의 유일한 책이 2016년 데레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소설 ‘채식주의자’이며, 그 당시 ‘데레타(Dereta)’의 편집자였던 작가 알렉산더 슈르바토비치가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Nov.rs와의 인터뷰에서 한강 감독의 수상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의 영화감독들이 영화를 만들듯 글을 씁니다. 불필요한 형용사를 빼제하고 단어 수를 줄인 간결한 쟀 호러(Zen Horror) 스타일을 잘 살렸어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그녀는 형이상학적인 불편함, 어디인가에 숨어 있는 위험함,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볼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우리의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듯합니다. ‘(세르비아의) 비평가들은 그 책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시하거나 나쁜 작가라고 말했어요. 제가 아무런 훌륭한 작품이라고 주장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번역 문헌 부문에서 ‘부캐’상을 수상했지만, 우리는 그 상 이전에 그녀의 평판을 읽습니다.” 라고 슈르바토비치는 결론을 내렸다. 한강 작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의 120번째 수상자이다. (Danas, nov.rs, NI Beograd 10. okt 2024.)

3

한강 문학에 대한 크로아티아 문학평론계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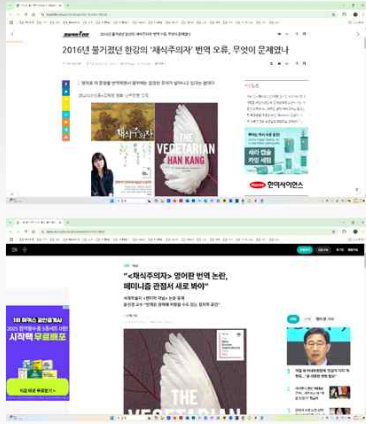
Dobitnica ovogodišnje Nobelove nagrade za književnost je južnokorejska autorica Han Kang, upravo su javili članovi Švedske akademije. Najpoznatija je u široj javnosti po knjizi ‘Vegetarian’ koja se bavi mentalnim bolestima. Objavljena je i u Hrvatskoj u izdanju Hena.com, piše Jutarnji list.Lani je nagraden Jon Fosse, najpoznatiji norveški dramatičar nakon Henrika Ibsena. U tadašnjoj anketi na službenim stranicama Švedske akademije, na pitanje jesu li pročitali ista Fosseovo, gotovo je 90 posto ispitanika odgovorilo da nije. Možda i stoga što je Fosse dugo pisao drame, a tek se poslije posvetio romanima. Svemu su i ove godine, prethodile kladionice. Među ostalima, spominjalo se ime kineske spisateljice Can Xue. Mislilo se da nejin eksperimentalni stil, utopijski i distopijski nadrealni svjetovi koje stvara, pisanje koje uspoređuju s Kafkom mogu biti nagradni Nobelom. Doduše, dojam je da u to više vjeruju književni teoretičari negoli kladionice. Šanse joj je unanjila i činjenica da je Nobel za književnost u Kimu otišao relativno nedavno: 2012., kada ga je dobio Mo Yan. Švedska akademija ne iznosi u javnost uži izbor imena, pa su kladionice i pretpostavke često jako daleko od imena stvarnog dobitnika. Književnim krugovima Stockholma kružilo je ime australskog romanopisca Geralda Murnanea, antiguanško-američke spisateljice Jamaica Kincaid, spominje se i kanadska pjesnikinja Anne Carson, Mađar László Krasznahorkai, Rumunji Mircea Cărtărescu, na kladionicama kao da su oduvijek i Ngũgĩ wa Thiong’o, kenijski autor, japanski spisatelj Haruki Murakami, sirijski pjesnik Adonis, pa i Salman Rushdie, čiji je i sam život materijal za roman. (Slobodna Dalmacija, Split 10. listopada 2024.)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스웨덴 아카데미 회원들이 범급 발표한 한국의 작가 한강이다. 그녀는 정식 직원을 다른 책 ‘채식주의자’로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Jutarnji list 에 따르면 이 책은 크로아티아의 Hena.com에서 출판되었다. 옐리크 입센 다음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극작가인 온 포세 (Jon Fosse)가 작년에 수상했다. 당시 스웨덴 아카데미 공식 웹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포세의 작품을 읽은 적이 없다는 질문은 응답자의 약 90%가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마도 포세가 오랫동안 희곡을 썼고 나중에 소설에 전념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도 모든 것이 배행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작가 천위(陳衛)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녀의 실험적 스타일, 그녀가 창조한 유토피아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초현실적 세계, 카프카와 비친되는 글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했다. 문학 이론가들이 배행장보다 그것을 더 믿는다는 인상은 준다. 그녀의 기회는 노벨 문학상이 비교적 최근에 중국에 수여되었다는 사실, 즉 2012년에 모언(莫言)에게 수여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줄어들었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수상자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박사의 가정은 종종 실제 수상자의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 호주 소설가 제랄드 머닌 (Gerald Murnane), 안티구안계 미국 작가 자미카 키네이드 (Jamaica Kincaid), 캐나다 시인 앤 카슨 (Anne Carson), 헝가리의 라슬로 크라스노호르카이 (László Krasznahorkai), 루마니아의 미르체아 카르테스쿠 (Mircea Cărtărescu), 케냐 작가 Ngũgĩ wa Thiong’o 와 티용오 (Ngũgĩ wa Thiong’o)의 이름은 스톡홀름 문학계에서 언급되었다. 일본 작가 하루키 무라카미, 시리아 시인 아도니스, 심지어 살만 루슈디도 언급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Slobodna Dalmacija, Split 10. listopada 2024.)

4

‘부정적’ 또는 ‘우호적이지 못한’, 혹은 ‘긍정적인’ 한강 문학에 대한 시선



원작 한국어 소설을 영어로 옮긴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역시 수상 발표 이후 한국에서 화제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 작품의 영어 번역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평론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작품 속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오류란 번역자가 '주어' 즉 주체를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들이었다. "주어를 잘못 짚는 단순 오역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로 인해 텍스트의 특수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이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가장 주인공 영혜는 한국적 가부장제에 짓눌린 수동적이고 몽환적인 캐릭터다. 한데 스미스의 번역에서는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여성으로 그려졌다는 지적이다. 주어를 혼동하거나 구문을 잘못 해석한 탓이다." (조재홍, 고대 불문과 교수, 2016년 3월 6일, 중앙일보)

소설 <채식주의자>(2007)의 영미권 번역은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이후 한국에서 '오역의 지니미'가 많다. '원작을 재만내로 다시 본다' 등의 논란이 일었다. 2018년 초 데보라 스미스는 스스로 오역 60개를 인정하고 고쳤다. 이 오역 논쟁에 대해 원작자 한강은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역자의 한국어가 아직 서툰다는 것을 느꼈지만, 도착어인 영어 표현이 좋아서 괜찮겠다는 생각이었어. 작품을 전달하는 데 결정적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외대에서 '번역과 젠더'를 강의하는 윤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번역은 순수하고 중립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권력에 봉사할 수도 저항할 수도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라며 "1980년대 캐나다 퀘벡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대동한 '페미니즘 번역'은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에 반대하면서 가부장적 언어에 억압된 여성의 목소리를 일깨우고자 번역을 원본의 배계 쓰기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신혜정(2017)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번역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 이지민(2018)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대한 한국어 독자 및 영어 독자 반응 비교 연구: 인물 구연에 대한 오역·의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한국번역학회

4

오역문장의 예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중역 또는 이중 중역

- 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여움을 오가는 어떤 대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땀방울의 찌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 The group broke out into laughter, and I was conscious of each and every separate laugh. Needless to say, my wife didn't so much as crack a smile. By now everyone was busy making sure that their mouths were fully occupied with eating, so that it wouldn't be up to them to try and fill the awkward silences that were now peppering the conversation. It was clear that they were all uncomfortable.

- 한국어 → 영어 → 세르비아어
- 한국어 → 영어 → 러시아어 → 크로아티아어

- 그녀는 알 수 없다. 그것들의 물결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새벽 좀더란 산길의 끝에서 그녀가 보았던, 박명 속에서 일제히 푸른 불길처럼 일어선 나무들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결코 따뜻한 말이 아니었다. 위안을 주며 그녀를 일으키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자비한, 무서운 만큼 서늘한 생명의 말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받아들일 나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 있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완강하고 삼엄하게 입을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
- There's no way for In-hye to know what on earth those waves are saying. Or what those trees she'd seen at the end of the narrow mountain path, clustered together like green flames in the early morning half-light, had been saying. Whatever it was, there had been no warmth in it. Whatever the words were, they hadn't been words of comfort, words that would help her pick herself up. Instead, they were merciless, and the trees that had spoken them were a frighteningly chill form of life. Even when she turned about on the spot and searched in all directions, In-hye hadn't been able to find a tree that would take her life from her. Some of the trees had refused to accept her. They'd just stood there, stubborn and solemn yet alive as animals, bearing up the weight of their own massive bodies.

한강 문학, 지역성을 넘어 보편성으로: 튀르키예 언론을 중심으로

이난아(한국외대)

I. 들어가는 말

한 문화가 지역성을 넘어 보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한 가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범세계적, 범인류적인 가치 또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의 경우를 보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 즉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가 온 인류에 호소하고,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문화적 경계 즉 지역성을 넘어 보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번역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문학 번역의 경우 작품 및 작가의 세계관, 문화적 맥락, 뉘앙스 등 그 깊이와 가치가 오히려 통찰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번역은 한 나라의 문화적, 학문적 수준을 알려주는 주요한 척도이며, 세계의 문화 예술과 나란히 호흡하며 그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고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준이다. 일본의 근대화 정책 중에서 번역을 통해 서구의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부로 진입하고자 애썼던 사실은 우리나라의 번역과 관련된 현실과 견주어 여전히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번역이 정신과 예술의 근원에 다다르기 위한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⁵⁾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에 대해 세계 각국이 열광하고 놀랐던 것은 중국의 여성 작가 찬첸가 매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한강은 유력 후보에 명단에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며, 한국인 그것도 여성 작가에게 수여했다는 것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강 본인도 노벨상 수상 소식에 놀랐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 독자들이 놀라고 반가웠던 이유는 노벨상 수상 이전에 이미 그녀의 작품들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설령 작품은 읽어보지 않았을지라도 이름은 생소하지 않은 작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종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나라의 언어로 그 작품이 번역되지 않았던 작가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도 한강의 작품을 각국 언어로 소개한 수많은 번역가들의 노력과 공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 번역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튀르키예 언론도 예외 없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아시아 여성 최초 수상이라는 역사적 성취에 방점을 찍으며 극찬했다. 튀르키예에서는 현재까지 한강의 작품 네 편이 번역 출판되어 있다. 『채식주의자 Vejetaryan』(현지출판 2017), 『소년이 온다 Çocuk Geliyor』(현지출판 2019), 『흰 Beyaz Kitap』(현지출판2021), 『작별하지 않는다 Veda Etmiyorum』(현지출판 2024) 등이다. 튀르키예에서 출간된 모든 한강 작품은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직 중인 픽셀 튀르퀴즈 교수가 번역했다. 픽셀교수는 한강 작품들 이외에도 한국문학작품을 튀르키예에 소개한 공로로 2017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수여하는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한 바 있다.

135) 이난아, “터키 문단과 언론에 나타난 한국문학”,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6집 (봄호), 2009, 141쪽.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에도 튀르키예에서 꽤 알려진 작가였다. 그 이유는 2016년도 맨부커상에 『채식주의자』가 튀르키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르한 파묵의 소설 『내 마음의 낮 숲』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튀르키예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채식주의자』는 자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맨부커상을 다투게 된 한국작가가 최종 수상을 하게 되자 화제가 된 작품이었고, 다음 해 초에 튀르키예어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화제성으로 『채식주의자』는 튀르키예 서점가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머물렀으며, 많은 언론에 수많은 서평이 쏟아졌다. 뒤를 이어 『흰』,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작품들도 속속 번역되면서 튀르키예 언론과 독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세계 유수 도서전들 중 하나이자 올해 제41회를 맞이한 이스탄불 국제도서전(2024년 11월 2일~11일)에서는 한강 작품 출판사가 튀르키예어로 번역된 그녀의 작품 네 편을 넣어 책 모양의 대형 광고로 제작하고, 이 광고 모형 한가운데에 노벨문학상 메달도 넣어 눈길을 끄는 등 튀르키예에서 한강의 인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출처: 튀르키예 비평가 메틴 제랄 제공>

이 글에서는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이전에 출간된 네 작품에 대해 튀르키예 유수 언론과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체에 실린 비평들을 작품의 현지 출간 순서로 살펴보면서 튀르키예에서 한강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언론에 조명된 한강의 작품 세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기약한다.

II. 튀르키예 언론은 한강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1. 『채식주의자』(2017)

『채식주의자』는 한강이 2016년에 맨부커상을 받은 직후인 2017년 1월에 곽셀 교수의 번역으로 튀르키예어로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노벨문학상 수상 전인 2024년 10월까지 16쇄가 출판되었으니, 서양 문학에 익숙한 튀르키예 문학풍토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이 작품은 튀르키예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이에 튀르키예 작가이자 신문에서 문학교정 칼럼을 오랫동안 써오고 있는 비평가 메틴 제랄(Metin Celal)은 출간 직후 한국을 방문해 이 작품에 대해 한강과 인터뷰를 했으며, 튀르키예 우수 신문 줍후리에트는 이 인터뷰에 큰 지면을 할애했다.¹³⁶⁾ 이 인터뷰는 튀르키예 언론이 한강과 『채식주의자』에 대해 주목한 최초의 진지한 대담 기사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출처: 2017년 3월 2일 줍후리에트 신문 북리뷰에 게재된 한강과 메틴 제랄>

이 인터뷰에는 한강과 진행된 『채식주의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한강이 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 자신은 언론과는 거리를 두고 작품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의지 등이 실려 있다. 한강은 『채식주의자』가 3부작 소설이 된 경위와 그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단편 소설이 아니라 장편 소설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그래서 문예지에 한 편 한 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재소설 형식이었지요. 각각의 장이 다른 이야기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즉 따로따로 읽을 수도 있다는 인상 말입니다. 저는 다양한 차원과 관점이 있

136)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리자 8년 전에 실린 이 인터뷰 기사가 다시 튀르키예 독자들에게 제공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강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튀르키예 비평가의 글이라는 점에서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는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 3부작의 서술자는 서로 다릅니다. 진짜 주인공의 목소리는 없지요. 서술자들은 여성 주인공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의도는 여성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었을 때 전혀 다른 심상이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소설 전반에 걸쳐 여성 등장인물은 어떤 오브제로 독자 앞에 나타나지요. 누군가는 그녀를 사랑하고, 누군가는 증오하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소설 전체를 다 읽으면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강한 여성으로 드러나지요.”¹³⁷⁾

메틴 제랄은 이 대담 기사에서 『채식주의자』가 튀르키예에서 많이 읽히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튀르키예의 가족 구조가 매우 유사하고, 여성들이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족 간의 관계,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 여성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1부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딸에게 아버지가 억지로 고기를 먹이는 장면, 끝이 폭력으로 끝나는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서구 세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¹³⁸⁾라고 썼다.

이후에도 『채식주의자』에 대한 비평가들의 진지한 서평들이 언론에 대거 등장했다. 이 중 흥미로운 관점이 부각되는 비평가의 글은 우수 문학 전문 온라인 매체 <문학소식(Edebiyat Haber)>에 2022년 12월 19일에 “채식주의자: 변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긴 비평이다. 비평가 베린(Berrin Yelkenbiçer)은 이 소설에 대해 “다층적이며, 심오하고, 문학적 섬세함으로 가득 찬 매우 힘 있는 소설”이라고 요약한 후, 작가의 말과 함께 독자들을 위해 소설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인 소개를 한 후 베린은 이 작품에 드러난 양국 사회의 공통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국 영화를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한국 사회와 튀르키예 사회는 놀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압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사, 동료, 이웃 등 '우리를 둘러싼 다른 조직'이 그곳에도 존재한다. 때론 선의의 돌팔매질로 지옥으로 변하기도 하는 가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강압적이고 가부장적 구조이다. 서로의 모든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개인만의 자유로운 공간이 없다. 이곳에서도 이혼은 그다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무감각하다. 불행히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곳에도 존재한다.”¹³⁹⁾

비평가는 한국과 튀르키예 사회의 공통점 즉, 가부장적이며, 여성 억압적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 환경을 이렇게 서술한 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잊지 않는다.

“또 다른 흥미롭고 식욕을 돋우는 주제는 소설 일부에서 언급되는 한국 음식이다. 번역가는

137) Metin Celal, “Okuduğum Kitaplar: Vejetaryen’i Bir şeyi reddeden anlamında kullandım”, Cumhuriyet Gazatesi Kitap Eki, 2013.03.02.

138)

<https://10haber.net/kitap/han-kangla-soguk-seul-aksaminda-sohbet-vejetaryeni-bir-seyi-r-eddeden-anlaminda-kullandim/>(검색일: 2024. 10.14)

139) <https://www.edebiyathaber.net/vejetaryen-bir-donusum-hikayesi-berrin-yelkenbicer/>(검색일: 2024. 10.13)

이 주제에 대해 각주를 달지 않고, 본문에서 해당 요리가 언급되기 전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밝혔고, 나는 그 선택이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한식당에 가서 직접 맛을 보고 싶어지게 했기 때문이다.”¹⁴⁰⁾

이렇듯 비평가는 소설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한국 음식 등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컬처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피력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충격적이고 불편한 변신 이야기를 목격하고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싶다면 이 보편적인 소설을 읽어보시길 추천한다.”¹⁴¹⁾라며 한강 문학의 '보편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터키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줍히리에트 신문의 2024년 11월 9일자 지면에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문학 전문 비평가 메틴 제랄의 긴 서평이 실린다. 그는 “그녀가 허먼 멜빌, 프란츠 카프카, 심지어 파트리크 쥐스킨트와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평가들도 있다. 새로운 작가를 누군가에 비유하는 우리 습관을 제쳐두면 『채식주의자』에서 매우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의 압력과 정해진 규범 이외의 그 어떤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다른 것'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 할 수 있다.”¹⁴²⁾라고 쓴다. 비평가는 한강을 세계적인 작가들과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그녀의 문학적 위상 혹은 성취를 강조했으며, 다른 서평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의 억압적인 환경과 획일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체 오기토(Oggito)의 비평가 누르한 샤히카야(Nurhan Şahinkaya)는 튀르키예에서 이 작품의 인기에 대해 언급한 후, “이 소설이 널리 읽히면서 소설 속 근친상간과 에로틱한 에피소드가 논의됨에 따라 소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으로만 이 책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표면에만 머무르고 심연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⁴³⁾라며 작품을 어느 한 지점에 주목하여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을 제시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조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누르한 역시 이 작품에 나타난 한국과 튀르키예 사회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한다. 비평가는 일례로, 영혜 남편의 상사와의 저녁 식사 장면에서 중산층과 부르주아지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튀르키예와 비슷한 문화라고 말한다. 튀르키예가 한국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유사성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비평가는 이 작품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단순히 두 나라의 유사성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의미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행동과 가치관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유사성에 이끌린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 이 책이 얻게 된 보편적인 차원도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순히 사회에 둘러싸인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적이며 영적인 과정도 읽게 된다.”¹⁴⁴⁾

여기에서도 『채식주의자』의 보편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 어느 나라의 이야

140) <https://www.edebiyathaber.net/vegetaryen-bir-donusum-hikayesi-berrin-yelkenbicer/>(검색일: 2024. 10.13.)

141) 위의 자료.

142) <https://www.cumhuriyet.com.tr/haber/hang-kangdan-vegetaryen-659930>(검색일: 2024. 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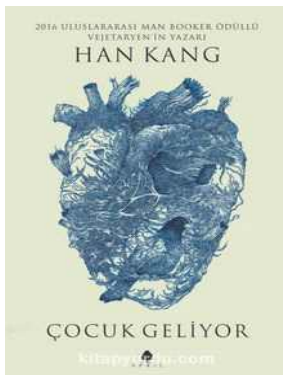
143) <https://oggito.com/icerikler/vegetaryen-varolus-yolculugu/68689>(검색일:2024.11.04.)

144) 위의 사이트.

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보편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단순히 한국의 가부장적 면모,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소설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는 셈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설은 가부장적 폭력에 시달린 한 여인의 트라우마를 다룬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공감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상처만 입힌다.”¹⁴⁵⁾,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부장의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저항하며 금식을 통해 동물성을 벗어던지고 나무가 되고자 한 영혜가 보여주는 식물적 상상력의 경지는 (…)”¹⁴⁶⁾, “주인공 영혜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가족 중심의 규범에 저항하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으로 삶의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폭력적으로 거부당한다.”¹⁴⁷⁾ 등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폭력, 가족 중심의 규범에 대한 저항이라는 등의 평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소한 튀르키예 평단이 한강의 작품을 한국과 비슷한 관점에서 읽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 『소년이 온다』(2019)



2019년 9월 23일에 터키 우수 인터넷 문예 전문 사이트 아트풀 리빙(Artful Living)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애도: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비베누르 츠클르오울루 (Habibenuur Çıkkıloğlu)가 쓴 긴 서평이 실렸다. 부제에는 “한강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살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운 순간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다. 『소년이 온다』는 모든 페이지에 죽음의 층위, 우리가 매일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의 층위를 담고 있는 충격적인 학살 서사이다.”¹⁴⁸⁾라고 적고 있다.

“역사, 지역, 정권은 다르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공통적이다. **1980년 9월**, 같은 해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동일한 고통스런 사건이 때때로 다른 집에서 일어날 수 있다. 죽음, 구타, 고

145)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44>(검색일:2024.11.02.)

146)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25>(검색일:2024.11.03.)

147)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02118101523370>(검색일:2024.11.05.)

148) <https://www.artfulliving.com.tr/edebiyat/yakilan-agit-hepimiz-icin-cocuk-geliyor-i-19583> (검색일 2024.10.14)

문, 강간, 실종, 억압, 검열... 우리 모두는 숨 쉬는 것조차 불가능한 분위기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격하게 된다.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아버지, 남편, 국가, 고용주 등 -어디에서든 잔인함과 고통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¹⁴⁹⁾

5.18 광주민주항쟁은 1980년 5월에 발생했고, 튀르키예도 같은 해인 1980년 9월 12일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놀랄 만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군부 쿠데타를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튀르키예 독자들에게 『소년이 온다』는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튀르키예 현대사에서는 세 차례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정치,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던 1960년 5월 27일에 첫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좌우익 학생들 간의 충돌과 총격전으로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 튀르키예 군부는 1971년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지만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경기는 침체되었으며, 정치적 대립은 깊어져 갔다. 이렇듯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자 1980년 군부는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¹⁵⁰⁾

이렇듯 비평가는 튀르키예와 양국의 공통적인 아픈 역사를 언급하고, 양국 역사의 접점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설명하고, 기억하고,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도 다 투쟁이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 무엇을 잃었는지, 왜 잃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한다. “왜 그 소년을 죽였을까?”, “살인자들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은 우리의 집단적 기억에 새겨져 있다. 한강은 직시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고통스런 현실 속에서 글을 쓴다.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한낱 '고기 조각'이 되었는지를 시와 산문, 그리고 외침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¹⁵¹⁾

그러면서 “『소년이 온다』의 애도는 우리 모두의 애도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소년'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¹⁵²⁾라는 말로 서평을 끝맺고 있다. 아픈 역사를 공유한 나라의 비평가만이 쓸 수 있는, 처절하고, 진정성 있는 비평가라 할 수 있다. 비평가는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양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역사도 다르지만, 국가 폭력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있는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유수 신문들 중 하나인 가제테 두와르(Gazete Duvar) 역시 2019년 10월 3일에 『소년이 온다』에 대한 서평을 실으면서 예외 없이 튀르키예의 군부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제목 즉, “1980년, 소년이 온다!”라는 강렬한 문구 사용한다. 이 글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작품 자체에 대한 서평 뿐 아니라, 광주민주항쟁의 역사에 대해 길게 서술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다른 지면들에 나온 비평처럼 역시 튀르키예의 아픈 역사를 거론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현상이 이 땅에서 겪은 비슷한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그 결과가 똑같다는 사실, 그리고 같은 허탈감과 비통함, 분노를 느낀다는 사실, 이 역사적 사건이 마치 이곳 출신 작가가 쓴 것처럼 흥미롭게 읽힌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¹⁵³⁾

149) 위의 자료.

150) 튀르키예의 군부 쿠데타에 관하여,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터키사』, 휴머니스트, 2010, 268~269쪽을 참고하시오.

151) <https://www.artfulliving.com.tr/edebiyat/yakilan-agit-hepimiz-icin-cocuk-geliyor-i-19583> (검색일 2024.10.14)

152) 위의 자료.

이렇듯 『소년이 온다』에 대한 서평들 대부분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유사한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종의 동질감을 느낀다는 측면에 방점을 찍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튀르키예 언론 비평들은 『소년이 온다』가 지역성과 국제성을 두루 갖춘 소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 『흰』(2021)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에 이어 2021년에 튀르키예에서 출간된 한강의 또 다른 작품은 『흰』이다. 튀르키예어 제목은 영어 번역본의 『The White Book』처럼 『하얀 책 Beyaz Kitap』으로 출간되었다.

2021년 2월 12일자 튀르키예 우수 신문 포스타(Posta)에는, “흰색의 연약함: 한강의 세 번째 소설 『흰』”이라는 제목의 긴 서평이 실렸다. 이 서평을 쓴 시넴 돈메즈(Sinem DÖMEZ)는 “손꼽아 기다리던 한강 작가의 세 번째 소설 『흰』은, 우리 일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정제된 텍스트 중 하나이다.”¹⁵⁴⁾라며 극찬한다. ‘손꼽아 기다리던’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한강은 튀르키예 독자들이 차기작을 궁금해하는 작가 대열에 이미 들어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강의 문학적 성취에 보내는 찬사임에 틀림 아니다.

현재 튀르키예 독자들이나 터키 출판계가 아시아 문학에 갖는 관심이 지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튀르키예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몇 백 년 동안 유럽의 문화와 사상을 영향을 받아 유럽 문학을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더 수월하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아시아와 유럽 문학의 혼용으로 이

153) <https://www.gazeteduvar.com.tr/kitap/2019/10/03/sene-1980-bir-cocuk-geliyor>(검색일: 2024.10.14.)

154) <https://www.posta.com.tr/kultur-sanat/beyazin-kirilganligi-han-kang-in-ucuncu-romani-be-yaz-kitap-2303024>(검색일: 2024. 10.14.)

루어진 튀르키예 문화의 축이 현재까지는 유럽 쪽으로 기울어 있으므로, 튀르키예의 민족성이나 문학을 비롯한 예술 장르에 대한 수용성이 유럽과 서구 문학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¹⁵⁵⁾ 이러한 튀르키예의 서구문화 지향적인 풍토에서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가 주목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넴 돈메즈는 “한국어에는 '하얗게 웃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아득하게, 쓸쓸하게, 부서짐이 쉬운 깨끗함으로 웃는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알게 되어 좋은 정보이다. 한강은 일상의 평범한 사물인 각설탕, 봉대(흰 거즈), 쌀, 흰 돌에 쓴 문장 속에서 무너짐, 죽음, 이별, 영혼, 유년, 모성, 생명, 순수, 영원,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머릿속에 각인되는 묘사와 은유들로 가득 찬 이 짧은 챕터들에서 한강의 또 다른 걸작을 마주하게 된다.”¹⁵⁶⁾라는 평을 한다. 비평가는 한국어 관용어 표현도 튀르키예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친절함도 보여주면서 한강의 또 다른 걸작이라고 극찬한다. 튀르키예에서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에게 이렇게나 큰 관심과 찬사를 보낸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하다.

『흰』에 대해 2022년 3월 5일에 뉘케트 제일란(Nüket Ceylan)이 문학예술전문 온라인 매체 오기토(Oggito)에 쓴 서평도 눈길이 끈다.

“한강은 은유를 좋아하는 작가이다. 그의 첫 번째 작품인 『채식주의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듯이, 이 책에서도 은유를 많이 사용한다. (...) 책에 나오는 모든 은유와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통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쥐어짜는 문장들 외에 책 전체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숨을 쉴까?”¹⁵⁷⁾

뉘케트는 『흰』에 나타난 한강 문학의 공통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책인 동시에 희망도 안겨주는 미덕을 간직한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T24>는 “흰색을 프리즘에서 통과시키기”라는 제목으로 한강의 『흰』에 대한 서평을 실었다. 아다레트 차브다르(Adalet Çavdar) 기자는 『흰』에 대해 “첫 문장으로부터 독자들에게 뭔가 색다른 것을 제공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한 다음, “한강은 『흰』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소화하기 힘든 유의 간결한 언어로 자신의 인생사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허구보다는 감정을 다루었으며, 우리에게 선사한 시 같은 글과 멋진 번역이 결합되자 보편적인 언어가 나타났다. 흰색에 관한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나 강렬하게 경험한 후 책을 쓴다는 것은 매우 야심차고 어려운 일일 것 같다. 하지만 한강은 이를 극복했고, 이렇게 해서 명작이 나왔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나면 흰색이 갖는 의미가 한동안 바뀌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흰 것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¹⁵⁸⁾라면서 이 작품이 한강의 또 다른 명작임을 밝힌 후, 한강의 간결한 문체, 작품의 보편성 그리고 흰 색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2021년 2월 16일 온라인 언론 아트폴리빙에는 “나를 치유해줘 나의 하얀 꿈”라는 제목으로

155) 이난아, “터키 문단과 언론에 나타난 한국문학”,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6집 (봄호), 2009, 143쪽.
156)

<https://www.posta.com.tr/kultur-sanat/beyazin-kirilganligi-han-kang-in-ucuncu-romani-beyaz-kitap-2303024>(검색일: 2024.10.14.)

157) <https://oggito.com/icerikler/han-kang-ve-beyaz-kitap/67316>(검색일:2024.10.15)

158) <https://t24.com.tr/k24/kitap/beyaz-kitap.552>.(검색일: 2024. 10.18.)

『흰』에 대한 긴 비평이 실렸다. 담라 카라쿠시(Damla Karakuş) 기자는 『흰』에 대해, “우리의 발걸음은 이스탄불에 내리는 눈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하얀 여행으로 변한다. 그녀의 전기가 언제 나의 자서전으로 바뀌었을까, 한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한강의 기억력과 단어들은 마법적이다. 흰 꿈 하나하나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당신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¹⁵⁹⁾라고 하면서 한국인과 터키인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에 대해 특히 ‘그녀의 전기가 언제 나의 자서전으로 바뀌었을까, 한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라고 강조하면서 한강 문학의 보편성에 다시 한 번 밑줄을 긋는다.

4. 『작별하지 않는다』(2024)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가장 최근인 올해 2024년 6월 7일에 튀르키예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튀르키예어로 출간되기 전에 이미 프랑스의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튀르키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2024년 8월 14일 인터넷 독립신문 T24의 에다 윈데르(Eda Önder)기자는 “훈령들을 기억하기: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해결 살인사건으로 가득한 한국 역사의 한 시기를 조명하는 동시에 기억과 인간애 사이의 연결 고리를 지으며, 애도 없이 작별할 수 없음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준다. (...) 그러나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알게 되는 수많은 학살, 마을 방화, 처형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이러한 고통 이외에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랑이다.”¹⁶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 스타일과 소재에 대해 “한강은 밀도 높은 심상과 반복되는 다층적 모티프로 매우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인다. 그녀는 종종 개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사회적 애도 장소를 통해 독자를 과거로 데려가거나, 소설의 복잡한 시간성 안에서 우리를 다른 역사적 단면으로 안내한다.”¹⁶¹⁾라고 말하면서 다른 작품들(일례로, 『소년이 온다』)과의 연관성에

159) <https://www.artfulliving.com.tr/edebiyat/iyilestir-beni-beyaz-dusum-i-22738>.(검색일:2024.10.17.)

160) <https://t24.com.tr/haber/hayaletleri-hatirlamak-veda-etmiyorum.1179284>(검색일:2024.11.7.)

대해서도 언급한다.

2024년 6월 27일자 <가제테 두와르>신문에는 외메르 체시트(Ömer Çeşit) 기자가 쓴 “사랑으로 고통을 견디는 친구들의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긴 서평이 실렸다.

“이 책의 저자 한강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는 이 작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메티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강의 문학 스타일은 *혁신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독창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그녀의 스타일은 *세계 문학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¹⁶²⁾

외메르 기자는 한강의 다양한 국제 문학상 수상 이력과 함께 그녀의 작품 세계가 혁신적이며 독창적이라고 하면서 세계 문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극찬한다. 튀르키예인 기자는 우리가 미처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한강 문학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다. 기자는 비평에서 이번에 번역 출간된 『작별하지 않는다』의 내용에 대해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작품의 미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는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인간사의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삶을 헤쳐 나가고, 저항하는 친구들의 소설이다. 실제 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매우 용감한 언어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고통은 기억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트라우마를 사랑과 연대로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상상력의 깊이는 소설을 잊을 수 없는 지점, 제주도의 정상까지 데려다 준다.”¹⁶³⁾

즉 이 소설은 우정에 대한 찬사, 트라우마에 대한 존중, 망각에 대한 저항을 담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멍살을 잡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끔찍한 정신적 피로나 고통만이 남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 과거에 복수하는 방법, 과거를 영원히 기억하는 방법의 하나로 한강이 택한 것은 바로 글쓰기였다.

기자는 한강의 이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한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혁신적인 스타일로 문학 애호가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¹⁶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예언이 중국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나가는 말

161) 위의 자료.

162)

<https://www.gazeteduvar.com.tr/acilara-sevgiyle-direnen-dostlarin-romani-haber-1700837>
(검색일: 2024. 10.15)

163) 위의 자료.

164) 위의 자료.

지금까지 튀르키예 유력 일간지와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체에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에 실린 한강 작품들에 대한 비평글을 소개 및 분석하고자 했다.

튀르키예는 유럽을 통해 서구화를 추진했고, 지정학적 이유로 몇 백 년 동안 유럽의 문화와 사상을 영향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튀르키예 문단에서도 주로 서양 작품들이 번역 소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몇십년 동안 한국문학이 튀르키예에 대거 번역되었고¹⁶⁵⁾, 특히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비롯 유럽에서 수여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들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학의 위상 역시 덩달아 높아졌다.

한강의 작품들이 튀르키예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호평을 받고 이유는 그녀의 혁신적인 문체, 시적 묘사, 주제를 이끌어가는 서사의 독창성 등 문학적 성과 면에서 탁월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튀르키예의 경우 『채식주의자』에서는 튀르키예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 억압, 가부장적 환경; 『소년이 온다』의 경우는 소재가 된 5·18 광주시민혁명이 튀르키예 현대사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연상시킨다는 점; 『흰』에서는 한국인과 터키인이 유사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한국의 충격적인 기억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독자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화해하기 시작한다.”¹⁶⁶⁾라고 평하고 있다. 이 모든 비평은 결국 한강 문학이 국적을 떠나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보편성으로 귀결된다. 일례로 <포스타> 신문의 시넴 돈메즈 기자는 “튀르키예 독자가 한강의 작품을 읽으며 조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한강의 서사는 보편적인 언어로 변한다.”¹⁶⁷⁾라고 쓴 바 있다. 바로 이 언급이 한강의 작품이 지역성을 넘어 국제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튀르키예 비평가들이 한강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자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류의 대표적인 콘텐츠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한류 문화의 세계화에 정점을 찍으며 드디어 완전체로 거듭났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고무적인 현상은 튀르키예 학계에서 한강 작품에 대한 학위 논문들¹⁶⁸⁾, 학술 논문들이¹⁶⁹⁾ 2018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고,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확산될 것이며, 이는 해외 한국학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튀르키예 주요 언론은 이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면서

165)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튀르키예어로 번역된 작품 수는 75권에 달한다. 여기에 번역원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 튀르키예어로 출간된 작품들까지 감안하면 80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https://library.ltikorea.or.kr/translatedbooks>(검색일: 2024. 11.2)

166) <https://sanatokur.com/han-kangin-odullere-doymayan-romani-yayimlandi/>(검색일:2024.11.8.)

167) <https://www.gazeteduvar.com.tr/kitap/2019/10/03/sene-1980-bir-cocuk-geliyor>(검색일: 2024.10.14.)

168) Gizem Aydoğdu, *Elizabeth Costello ve Vejetaryen'de Cinsiyet ve et Yeme İlişkisi*, Dokuz Eylül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Kadın Çalışmalar Anabilim Dalı Kadın Çalışmalar Programı Yüksek Lisans Tezi, 2022; İlayda Aşuk Demir, <Güney Kore Edebiyatında Kadın Direnişi ve Temsiliyeti: Han Kang'ın Vejetaryen ve Cho Nam Joo'nun Kim Jiyeong, Doğum: 1982 Romanları Üzerine Bir İnceleme>, Ankara Sosyal Bilimler Üniversitesi Kültür Politikaları ve Yönetimi Ana Bilim Dalı, Yüksek Lisans Tezi, 2024.

169) Esra Sahtiyancı Öztarhan, "Vejetaryen Olmayı Seçmek", *İnsan&İnsan*, Yıl/Year 5, Sayı/Issue 15, Kış/Winter 2018, pp.64-74; Cansu Özge Özmen, "Han Kang'ı Vejetaryen Romanında Anlam, Sembolik Ölümsüzlük ve Ödemonik İyi Oluş", III. Uluslararası Farkındalık Konferansı / Bildiriler, 2019, pp. 847~859.

‘한국문학의 도약’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 작품들이 더 많이 튀르키예에 소개되고, 독자들을 확보하여 더욱 더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이난아, “터키 문단과 언론에 나타난 한국문학”,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6집 (봄호), 2009.
-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터키사』, 휴머니스트, 2010
- Cansu Özge Özmen, “Han Kang’ı Vejetaryen Romanında Anlam, Sembolik Ölümsüzlük ve Ödemonik İyi Oluş”, III. Uluslararası Farkındalık Konferansı / Bildiriler, 2019, pp. 847~859.
- Esra Sahtiyancı Öztarhan, “Vejetaryen Olmayı Seçmek”, İnsan&İnsan, Yıl/Year 5, Sayı/Issue 15, Kış/Winter 2018, pp.64-74.
- Gizem Aydoğdu, <Elizabeth Costello ve Vejetaryen’de Cinsiyet ve et Yeme İlişkisi>, Dokuz Eylül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Kadın Çalışmalar Anabilim Dalı Kadın Çalışmalar Programı Yüksek Lisans Tezi, 2022.
- Metin Celal, “Okuduğum Kitaplar: Vejetaryen’i Bir şeyi reddeden anlamında kullandım”, Cumhuriyet Gazetesi Kitap Eki, 2013.03.02.
- İlayda Aşuk Demir, <Güney Kore Edebiyatında Kadın Direnişi ve Temsiliyeti: Han Kang’ın Vejetaryen ve Cho Nam Joo’nun Kim Jiyeong, Doğum: 1982 Romanları Üzerine Bir İnceleme>, Ankara Sosyal Bilimler Üniversitesi Kültür Politikaları ve Yönetimi Ana Bilim Dalı, Yüksek Lisans Tezi, 2024.

인터넷 자료

- <https://www.edebiyathaber.net/vejetaryen-bir-donusum-hikayesi-berrin-yelkenbicer/>(검색일: 2024. 10.13)
- <https://www.posta.com.tr/kultur-sanat/beyazin-kirilganligi-han-kang-in-ucuncu-romani-beyaz-kitap-2303024>(검색일: 2024. 10.14)
- <https://www.cumhuriyet.com.tr/haber/hang-kangdan-vejetaryen-659930>(검색일: 2024. 10.14.)
- <https://www.gazeteduvar.com.tr/kitap/2019/10/03/sene-1980-bir-cocuk-geliyor>(검색일: 2024.10.14.)
- <https://www.gazeteduvar.com.tr/acilara-sevgiyle-direnen-dostlarin-romani-haber-1700837>(검색일: 2024. 10.15)
- <https://www.artfulliving.com.tr/edebiyat/yakilan-agit-hepimiz-icin-cocuk-geliyor-i-19583>(검색일 2024.10.14.)
- <https://oggito.com/icerikler/han-kang-ve-beyaz-kitap/67316>(검색일:2024.10.15.)
- <https://www.artfulliving.com.tr/edebiyat/iyilestir-beni-beyaz-dusum-i-22738>(검색일:2024. 10.17.)
- <https://t24.com.tr/k24/kitap/beyaz-kitap,552>.(검색일: 2024. 10.18.)

<https://library.ltikorea.or.kr/translatedbooks>(검색일: 2024. 11.2)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44>(검색일:2024.11.02)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25>(검색
일:2024.11.03.)
<https://oggito.com/icerikler/vejetaryen-varolus-yolculugu/68689>(검색
일:2024.11.04.)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02118101523370>(검색
일:2024.11.05.)
<https://t24.com.tr/haber/hayaletleri-hatirlamak-veda-etmiyorum,1179284>(검색
일:2024.11.7.)
<https://sanatokur.com/han-kangin-odullere-doymayan-romani-yayimlandi/>(검색
일:2024.11.8.)

한강의 소설: 여성, 가족, 인간애로 아랍 무슬림 사회의 일부가 되다.

김정아(한국외대)

I. 한강의 노벨상 수상

2024년 10월 10일 아랍세계의 주요 언론은 2024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여성 작가 한강’을 언급했다. 30여 개의 기사가 10월 10일부터 쏟아져 나왔고, 한강의 소설을 아랍어로 번역한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Mahmud abd al-Ghaffar) 카이로 대학교 비교문학 교수와 무함마드 나집(Muhammad Najib) 박사의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다. 아랍세계에는 노벨상 수상 이전 한강의 소설 4권이 아랍어로 번역 출판된 상태였다. 번역본을 출판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ثقافة |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لهشاشة البشرية" تمنح الروائية الكورية الجنوبية هان كانغ جائزة نوبل للآداب



الملاحة بجائزة نوبل للآداب، 2024، الروائية الكورية الجنوبية هان كانغ خلال مؤتمر صحفي في سول بكوريا الجنوبية (رويترز)

『채식주의자』(2015),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Good Reads 아랍어 평점 3.59)

『흰』(2019), 무함마드 나집, (Good Reads 아랍어 평점 3.81)

『소년이 온다』(2020), 무함마드 나집, (Good Reads 아랍어 평점 4.23)

『희랍어 수업』(2024), 무함마드 나집, (Good Reads 아랍어 평점 3.52)

아랍어로 번역된 한강의 소설은 아랍세계, 즉,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22개 국가에서 읽힌다. 따라서 아랍 국가들은 아랍어 언론 보도도 공유한다. 알자지라(aljazeera)를 비롯한 아랍세계의 언론들은 비교적 소상히 한강의 수상 소식을 알렸고, 기사 제목과 내용은 스웨덴 한림원의 짧은 논평에 의지하는 듯했다. 대표적으로, 알자지라는 10월 10일 기사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기록한 한국의 여성 작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이라고 했으며, 아우사트(awsat) 역시 10월 10일 기사에서 “노벨상 수상 작가 한강,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지다.”라고 표현했다. 알쿠드스(alquds)는 10월 20일 사설에서 “노벨상, 여성 작가에게 승리를 선사하다”라는 제목하에 노벨상의 불공평함에 희생된 여성 작가들의 문제가 한강의 수상으로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논평을 실었다. 이 사설은 “1901년 노벨상이 설립된 이후, 남성 100명에 비해 여성 수상자는 단 17명에 불과

하고, 이 17명의 여성 수상자 중에 단 한 명도 아랍,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노벨상 수상 위원회의 불공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였던 아랍 언론이 한강의 수상을 반기는 데는 이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다수의 아랍 언론은 한강을 소개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 작가, 아시아 최초의 여성 작가 수상'이라고 밝혔다. 아랍 언론의 한강 수상 보도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 날짜	제목	언론사
10/10/2024	"인간의 나약함"을 기록한 한국의 여성 작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aljazeera
10/10/2024	한국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aawsat
20/10/2024	"노벨", 여성성을 기리다	alquds
10/10/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국 작가 한강은 누구인가?	masrawy
14/10/2024	노벨상 수상 작가 한강,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지다	aawsat
11/10/2024	한강, 2024 노벨 문학상 수상	alayam
13/10/2024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한 첫 한국 작가	aljazeera
10/10/2024	한국의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그녀의 이력	akhbarelyom
10/10/2024	한국의 한강, 노벨문학상으로 인간 삶의 "나약함"을 드러내다	bbc arabic
10/10/2024	노벨문학상 한국의 여성 작가 한강	aawsat
10/10/2024	한국 작가 한강,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dw
11/10/2024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arabi21
10/10/2024	"노벨문학상 2024": 한국 작가 한강에게 돌아가다	alhurra
10/10/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은 "수상 축하를 사양한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aljazeera
10/10/2024	"노벨문학상 2024": 한국 작가 한강에게 돌아가다	alaraby
13/10/2024	폭력과 충격의 작품을 쓴 작가, 한강	alaraby
11/10/2024	한강, 문학계의 '노벨' 또는 죽음의 입맞춤?	alaraby
10/10/2024	한국 여성 작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alkhaleej
18/10/2024	"지나치게 나약한 인간"을 인정한 노벨	alaraby
11/10/2024	한강, 노벨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았다	albiladpress
12/10/2024	한강, 노벨문학상을 탄 최초의 여성 작가, 언어에 대한 보상?	diffah
10/10/2024	무함마드 나집: 나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번역 중	dostor
15/10/2024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교수: 나일문화방송에서 내일 한강에 대한 여자 인터뷰	dostor
14/10/2024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교수: 한강, 한국 문학과 시적 감수성을 결합한 대표적 작가	almodon

한강의 소설 아랍어 번역본 4권 중 3권을 도맡아 출판한 곳은 이집트의 다르 알탄위르(Dar Al-Tanweer)이다. 해당 출판사는 1980년에 설립되었고, 철학과 문학 번역서 출판에 집중했다.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랜 시간 아랍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랍 독자들이 갈망했으나 번역되지 않았던 작가들을 소개하는 일에 주력한다.”라는 출판사의 포부를 알 수 있다. 해당 출판사는 2010년 ‘아랍의 봄’ 시기에 정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가 2012년 다시 문을 열었다. 알탄위르 출판사는 “세계 문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식, 미적 가치, 창의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비판적 사고를 장려한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런 출판사가 꾸준히 한강의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한강의 작은 책방만큼이나 소박하지만 단단한 모습으로 보인다.

II. 한강 소설, 아랍어로 번역되다.

한강의 소설이 아랍어로 번역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아랍세계의 관심이다. 아랍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K-pop으로 일컬어지는 한류 열풍에서 기인한다. 한류는 K-Food, K-Drama, K-Beauty, K-순수예술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해마다 국제도서전을 통해 한국과 아랍 국가 간의 문학 관련 행사가 확장되고 있다. ‘2023 서울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Sharjah)였고, ‘2024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한국의 문학작품이 아랍어로 꾸준히 번역 출간되고 있다.

둘째,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속적인 후원이다. 2024년 기준 한국문학번역원이 지원 출간한 아랍어 번역 작품 수는 50권을 상회한다. 이 중에 한강의 소설도 여러 편 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아랍어로 번역한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교수는 한국 대학에서 오랜 시간 아랍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그는 10월14일 알모던(almodon)과의 인터뷰에서 한강의 작품과 문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문학적 선구자: 한강은 소설을 통해 인간의 고통, 역사적 상처, 그리고 정체성을 탐구하며,

그녀만의 시적이고 실험적인 서술 방식으로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수상은 한국 작가들이 국제적인 문학상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주제: 한강은 광주 민주화 운동(『소년이 온다』)이나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는 개인(『채식주의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강은 시인이자 소설가로, 한국 문학계에서는 이러한 경계 넘기가 흔히 나타납니다.

-시적 감수성: 한강의 산문은 시적이고 응축된 언어를 통해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번역 이상의 세심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형식의 융합: 특정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소설과 시, 또는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합니다. 번역가는 이 복잡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에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 한강은 한국의 전통 문학, 역사, 그리고 대중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작품에 녹여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녀의 작품은 한국 고유의 서사적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독특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문화적 함의: 한강의 작품 속에는 한국적 요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번역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역사적 사건(광주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등)이나 전통적 상징이 텍스트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Ⅲ. 한강의 소설: 여성, 가족, 인간애로 아랍 무슬림 사회의 일부가 되다.

아랍인이 한국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교차점은 바로 ‘가족’에 있다. 아랍인은 지금도 가족 단위의 생활을 중시하고, 그 중심에는 가부장과 헌신의 상징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과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식민지, 독재 정권, 전쟁 등의 ‘공통적인 경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팔레스타인 작가 아미르 다우드(Ameer Dawd)는 10월 13일 알아라비(alaraby.co.uk)의 기고문에서 “한강은 『채식주의자』를 통해 철학적 깊이와 강렬한 상징성을 결합한 어두운 시적 언어, 폭력과 심리적 트라우마 담구를 특징으로 내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까다로운 문학적 주제인 ‘폭력’은 한강이 계속 강조하는 주제이고, 특히 사회와 가족 폭력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한다는 것이다. 아랍 소설에서도 가족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는데, 특히 무슬림 사회의 여성이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상징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알자지라(aljazeera)는 10월 10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알리면서, 그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약 1만 명의 한국 문화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라고 언급했다.

아미르 다우드는 『소년이 온다』에 대해, “한강이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비극을 ‘인간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운을 뗀 후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정부군의 공격으로 광주에서 6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학살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로 기억되고, 이 소설은 정치적 폭력의 영향을 다룬다. 한강은 슬픔, 생존자들 사이의 죄책감, 인간성 부재 등의 주제를 개인적이고 친밀한 영역으로 끌어어들여 독자에게 트라우마를 다른 차원과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작가 자카리아 무함마드는 『우리는 새벽까지 말이 서성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

다』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나의 기억은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광주 시가지의 시위에서 치켜 올려진 수천 개의 주먹은 텔레비전을 통해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 주먹들은 불의에 항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주먹이기도 했습니다.”(자카리아 무함마드 2020, 5)

이렇듯 아랍과 한국은 공통의 역사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특히 아랍세계의 여러 국가는 서구 식민지에서 독립, 혁명, 아랍의 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이주와 민족 이산의 아픔을 경험한 바 있다. 그렇기에 아랍인들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흰』, 『소년이 온다』, 『희랍어 수업』을 읽고, 정서적 공감대에서 작가의 의도를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아랍 언론의 반응을 통해 아랍 문단과 아랍 독자들이 한강의 작품에 공감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학의 기능은 남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고, 쇄신과 자기 성찰은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문학에는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아 성찰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자아 성찰은 곧 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연결된다.

참고문헌

- 자카리아 무함마드(2020). 『우리는 새벽까지 말이 서성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서울: 강.
<https://www.alaraby.co.uk/culture/%D9%87%D8%A7%D9%86-%D9%83%D8%A7%D9%86%D8%BA-%D9%83%D8%A7%D8%AA%D8%A8%D8%A9-%D8%A7%D9%84%D8%B9%D9%86%D9%81-%D9%88%D8%A7%D9%84%D8%B5%D8%AF%D9%85%D8%A9>
<https://www.aljazeera.net/culture/2024/10/10/%D9%81%D9%88%D8%B2-%D8%A7%D9%84%D9%83%D9%88%D8%B1%D9%8A%D8%A9-%D8%A7%D9%84%D8%AC%D9%86%D9%88%D8%A8%D9%8A%D8%A9-%D9%87%D8%A7%D9%86-%D9%83%D8%A7%D9%86%D8%BA-%D8%A8%D9%86%D9%88%D8%A8%D9%84>
<https://www.almodon.com/culture/2024/10/14/%D9%85%D8%AD%D9%85%D9%88%D8%AF-%D8%B9%D8%A8%D8%AF%D8%A7%D9%84%D8%BA%D9%81%D8%A7%D8%B1-%D9%85%D8%AA%D8%B1%D8%AC%D9%85-%D8%A7%D9%84%D9%81%D8%A7%D8%A6%D8%B2%D8%A9-%D8%A8%D9%86%D9%88%D8%A8%D9%84-%D9%8A%D9%83%D8%B4%D9%81-%D8%B5%D9%88%D8%B1%D8%A9-%D8%A7%D9%84%D8%A3%D8%AF%D8%A8-%D8%A7%D9%84%D9%83%D9%88%D8%B1%D9%8A>

인도의 한강 문학 수용 : 언어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문학적 담론의 가능성

이동원(한국외대)

I. 서론

지난 10월, 한강 작가는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문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소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인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소식은 NDTV, *The Times of India*, *Hindustan Times*, *The Hindu*, *The Indian Express*, *India Today*, *Dainik Jagran*, *Dainik Bhaska*, *Amar Ujla* 등 주요 영어/힌디어 매체뿐 아니라 *Malayala Manorama*(말라얄람어), *Eenadu*(텔루구어), *Dina Thanthi*(타밀어), *Lokmat*(마라티어), *Anadabazar*(방글라어), *Gujarat Samachar*(구자라티어) 등 여러 지역어 언론에서도 다뤄졌다. 이들 매체는 대부분 간결한 보도와 함께,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개인적 배경, 특히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를 소개하며 그녀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다수의 기사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확장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BTS, 블랙핑크 등 케이팝과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케이콘텐츠를 예로 들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조명했다. 일부 기사에서는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를 다시금 상기하기도 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주제의식을 조명하며 심도 있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들 논평은 그녀의 작품이 전하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특유의 서정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번역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낸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번 수상이 문학적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논하는 곳도 있었다. 텔루구어 일간지 *Sakshi*는 한강 작가가 기자회견 대신 서면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 점을 두고 문학이 뉴스가 되는 일은 드물어도 그럴 때마다 사회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언급했고, 해당 지역의 도서전을 소개하며 우리가 그 변화의 일부분이 될 차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본 발표에서는 인도 언론이 평가한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인도에서 문학번역이 가지는 문화적·사회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도어로 번역된 작품을 소개하며, 이러한 번역이 지역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문학적 담론 창출의 가능성을 간략히 전망할 것이다.

II. 한강 문학의 인도어 번역

인도에서 한강 문학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채식주의자』가 영어로 번역되고, 이듬해인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면서다. 여러 언론에서 이 상이 한강 작가에게 “국제적 돌파구(international breakthrough)”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또한 작가 개인뿐 아니라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문학 번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국제 문학상에 도전하는 한국 문학은 번역을 통해 고

유의 정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문체의 섬세함과 문화적 맥락이 손상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채식주의자』의 수상은 이러한 의문에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번역 문학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제 문학상에서 수상하거나 후보로 오르며 주목받는 한국 문학 작품이 꾸준히 증가하며 한국 문학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맨부커 국제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번역 문학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채식주의자』의 번역가는 영국의 데버러 스미스(Debra Smith)로, 그녀는 2015년 비영리 출판사인 틸티드 액세스 프레스(Tilted Axis Press)를 설립했다. 이 출판사는 특정 언어나 번역 방식의 위계화,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단일문화의 확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며,¹⁷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학 작품들을 번역하여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쌍기따 반도빠다이(Sangeeta Bandyopadhyay), 기탄잘리 슈리(Geetanjali Shree), 깔라니 타꾸르 짜랄(Kalyani Thakur Charal), 자얀트 까이끼니(Jayant Kaikini), 샬림 후세인(Shalim M. Hussain) 등 여러 인도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 출판사를 통해 번역·출판되었다. 그중에서도 기탄잘리 슈리(Geetanjali Shree)의 힌디어 소설 *Ret Samadhi*를 영어로 번역한 *Tomb of Sand*는 2022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남아시아 언어로 쓰인 작품 중 최초로 이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를 계기로 틸티드 액세스 프레스는 인도 내에서도 잘 알려지게 되었다.

『채식주의자』는 인도 문학계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 번역은 문학계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인도 언론은 문학 번역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아시아 문학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한층 더 주목하고 있다.

*The Wire*의 편집자 소우마슈리 싸르까르(Soumashree Sarkar)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노벨문학상은 번역가들의 노력 덕분이며, 분열된 세상에서 번역만큼 문학적 도구로서 가치 있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녀는 또한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문학 번역가 중 한 명인 안톤 허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채식주의자』가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은 이후 데버러 스미스의 번역이 한국 문학의 번역 면모를 바꾸어 놓았고, 번역가들은 더 대담하고 문학적이며, 원어 문화만큼이나 목표 언어 문화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어 학자인 꾸마리 로히니(Kumari Rohini)는 *The Wire*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 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크게 늘었으며, 아시아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번역의 증가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한강 작가의 작품 역시 이러한 번역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았다. 『채식주의자』가 영어로 번역되었을 당시 일부 서구 언론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 수상은 이러한 부정적 의견이 편향적이거나 근거가 부족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쉽게도 현재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인도의 공용어이자 인도 내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지닌 힌디어로 번역된 것은 없다.¹⁷¹⁾ 아마도 영어 번역본이 인도 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인도 전체 인구에서 영어 사용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독서 인구 측면에서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영어는 인도의 교육과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도

170) <https://www.tiltedaxispress.com/about>

171) 인도는 다언어 사회로, 헌법에 '인도의 언어'로 명시된 언어만 22개이다. 인도에는 국어가 없으며, 대신 공용어가 존재하는데 연방정부의 공용어는 힌디어와 영어이고, 각 주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춰 공용어와 부공용어를 지정할 수 있다.

시 지역과 중산층 이상의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다. 인도 아마존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 *The Vegetarian*이 올라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10월 내내 전체 도서 부문에서 50위권 안에 머물렀으며, 11월 셋째 주 기준으로는 Literature & Fiction 카테고리에서 54위, Contemporary Fiction 부문에서는 11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영어 번역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지만, 지역어로 번역된 작품은 해당 언어 사용자들에게 더 깊은 공감과 접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채식주의자』가 따밀어와 말라얄람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싸마야벨(Samayavēl)의 따밀어 번역이 2020년 *Marakkari*(채소)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C. V. 발라끄리슈난(Balakrishnan)의 말라얄람어 번역이 2022년 *Vejiṭēriyan*(베지테리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두 번역 모두 원래 한국어에서 직접 번역된 것이 아니라, 영어 번역본을 거쳐 중역된 것이다. 이웃 네팔에서는 뿌라빈 아디까리(Praveen Adhikari)가 네팔리어로 번역한 *Da Bhejīteriyana*(더 베지테리언)이 2022년 출판되었다.

III. 『채식주의자』의 문화적 해석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인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은 역시 『채식주의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작품이 맨부커 국제상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채식주의’라는 키워드가 인도 독자들에게 친숙하고 공감 가는 요소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채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실제 채식주의자의 비율은 30% 정도이나,¹⁷²⁾ 채식주의를 장려하는 강한 전통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 인도의 채식주의는 종교적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여러 종교에서 채식은 종교적 실천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며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식주의가 단순한 식습관 이상을 의미하는 점은 『채식주의자』의 번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채식주의자』의 따밀어 번역가 싸마야벨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따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책의 제목이 ‘채소’가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원작 제목인 ‘채식주의자’로 번역할 경우 종교적 함의가 강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특정 종교를 언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제목 번역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언론은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면서 종종 한국 사회가 육식 중심의 문화를 유지하는 점과 대조하여 채식주의를 선택한 여성의 이야기를 강조한다. 로께야 가니(Rokeya Ghani)는 한국인들이 아시아의 주요 음식인 쌀보다도 훨씬 많은 고기를 소비하며,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0kg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예로 든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한 여성이 채식주의자가 된 후 육식을 중요시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점차 광기에 빠져드는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아누라다 고얄(Anuradha Goyal)은 책 제목의 ‘채식주의자’라는 단어를 보고 대부분의 독자는 이 작품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채식주의처럼 평화로운 내용을 다룬 책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주인공 영혜가 채식을 선택하는 순간 평화는 깨지고 다양한 수준에서 폭력적인 내용이 펼쳐진다고 지적한다.

172) 인도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개발청(APED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22년 기준 전체 인구 가운데 채식주의자 비율이 29%, 비채식주의자 비율이 71%로 나타났다.

『채식주의자』에 대한 많은 리뷰가 작품에서 채식이 상징하는 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뿌라나비 샤프마(Pranavi Sharma)는 이 책에서 채식주의를 다루는 것은 종종 잘못 해석되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지적한다. 채식주의가 서사적 장치로서 작용하기는 하지만, 작가가 식습관 선택에 대해 도덕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채식주의는 폭력, 특히 인간의 잔인성을 탐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사우마 껀디아(Saumya Kedia)는 『채식주의자』는 질병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는 작품으로, 채식은 주인공 영혜가 외부 폭력에 반응하여 자신의 신체를 변형하려는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적 구조, 특히 가부장제와 이에 따른 여성 억압이라는 문제는 한국과 인도 두 사회 모두에 깊이 뿌리내린 현실이다. 『채식주의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섬세하게 조명하며, 인도 독자들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IV. 결론

다언어 사회인 인도에서 문학과 번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국가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번역을 장려해 왔으며, 이는 다양한 언어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의 *Gitanjali*는 문학 번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타고르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이는 인도 근현대문학과 번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인도에서 새로운 문학적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폭력과 고통,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그녀의 작품들은 그녀의 작품은 인도 독자들에게 보편적인 정서를 자극하면서도, 새로운 서사와 독창적인 접근으로 다가갈 것이다. 섬세하고 은유적인 글쓰기는 인도 문학의 미학과 교차점을 이루며, 독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강 문학이 인도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어 번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인도의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된 작품은 더 넓은 독자층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한강의 문학적 메시지가 보다 깊고 폭넓게 공감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Ghani, Rokeya. "Food, Violence, And Nature Through The Body In Han Kang's 'The Vegetarian'", *FII*, 21 Oct 2024, Web. 5 Nov 2024.

<<https://feminisminindia.com/2024/10/21/food-violence-and-nature-through-the-body-in-han-kangs-the-vegetarian/>>

Kedia, Saumya. "Nobel laureate Han Kang's 'The Vegetarian' offers us a new vocabulary on illness and sickness", *Scroll.in*, 26 Oct 2024. Web. 10 Nov 2024..

<<https://scroll.in/article/1074811/nobel-laureate-han-kangs-the-vegetarian-offers-us-a-new-vocabulary-on-illness-and-sickness>>

Rohini, Kumari. "Hān kām sāhitya kā nobel puraskār pāne vālī pehlī dakṣiṇ koriyāi lekhak", *The Wire Hindi*, 11 Oct 2024. Web. 15 Nov 2024.

<[https://thewirehindi.com/287075/south-korean-author-han-kang-awarded-t
he-2024-nobel-prize-in-literature/](https://thewirehindi.com/287075/south-korean-author-han-kang-awarded-t
he-2024-nobel-prize-in-literature/)>

“Sāhitya Sandaḍi”, *Sakshi*, 11 Nov 2024. Web. 15 Nov 2024.

<[https://www.sakshi.com/telugu-news/editorial/south-korean-author-han-ka
ng-won-2024-nobel-2250873](https://www.sakshi.com/telugu-news/editorial/south-korean-author-han-ka
ng-won-2024-nobel-2250873)>

Sarkar, Soumashree. “Han Kang's Nobel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Translators”, *The Wire*, 14 Oct 2024. Web. 10 Nov 2024.

<[https://thewire.in/books/han-kang-deborah-smith-translation-korean-nobel
-prize](https://thewire.in/books/han-kang-deborah-smith-translation-korean-nobel
-prize)>

Sharma, Pranavi. “Review: The Vegetarian by Han Kang”, *Hindustan Times*, 24 Oct 2024. Web. 10 Nov 2024.

<[https://www.hindustantimes.com/books/review-the-vegetarian-by-han-kang
-101729772895054.html](https://www.hindustantimes.com/books/review-the-vegetarian-by-han-kang
-101729772895054.html)>

Sharma, Sanjay. “Nobel Laureate Han Kang: Tracing Her Educational Background, Achievements, and More”, *The Times of India*, 10 Oct 2024. Web. 5 Nov 202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education/news/nobel-laureate-han-kan
g-tracing-her-educational-background-achievements-and-more/articleshow/
114122335.cms](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education/news/nobel-laureate-han-kan
g-tracing-her-educational-background-achievements-and-more/articleshow/
114122335.cms)>

중국에서의 한강 작품 수용 분석

박정원(한국외대)

I. 서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2024년 세계 문학계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았으며, 특히 중국 언론은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를 전개하였다.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고통과 연약함, 그리고 역사적 트라우마를 심도 있게 탐구하며,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언론 보도는 한강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분석을 제공하는 한편,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며 독자들에게 수상 이유와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언론 보도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한강 작가의 생애와 문학적 경력을 심층적으로 다룬 작가 소개 및 작품 분석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중국 독자들의 문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수상 소식 전달 유형은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빠르게 관련 뉴스를 전달하며 작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다. 셋째, 문학적 영향력 평가 유형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며, 그의 문학적 유산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넷째, 사회적 반응 및 인터뷰 유형은 작가의 수상 소식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소개하고, 작가 본인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정적 교감을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의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중국 언론은 한강 작가의 수상과 작품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노벨문학상 수상이 가지는 문학적, 사회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전달하였다. 특히,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국 독자들에게 한강이라는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정수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히 수상 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강 문학의 독창성과 세계 문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작가의 작품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관심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II. 중국의 언론반응 분석

II.1. 보도 시기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중국 언론 보도는 발표 직후 집중되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수상 발표 당일과 이튿날 전체 보도의 35%가 작성되었고, 이는 수상 소식 전달과 평가 중심이었다. 이후 일주일간 작가와 작품 분석 및 문학적 영향력 평가로 초점이

이동하며 보도의 40%가 10월 중순까지 집중되었다. 10월 말부터는 인터뷰와 한국 문학의 사회적 반응 보도가 증가했으며, 11월 중순 이후 보도량은 급감하며 장기적 영향 분석이 주를 이뤘다.

II.2. 보도 유형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중국 언론 보도 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 유형	설명	기사 비율
작가 소개 및 작품 분석	한강 작가의 생애, 문학적 경력, 주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분석을 제공하는 기사	35.7
수상 소식 전달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고, 수상 이유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전달하는 기사	26.8
문학적 영향력 평가	한강 작가의 작품이 한국 및 세계 문학에 미친 영향과 의의를 평가하는 기사	17.9
사회적 반응 및 인터뷰	수상에 대한 한국 및 국제 사회의 반응, 독자들의 의견, 작가 본인이나 주변 인물의 인터뷰를 포함한 기사	12.5
기타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관련 기사	7.1
합계		100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중국 언론 보도 유형 분포



II.2.1. 작가 소개 및 작품 분석 특성

중국 언론은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보도에서 "작가 소개 및 작품 분석" 유형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다(35.7%). 이는 작가의 생애와 문학적 경력을 상세히 소개하며, 대표작인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주제와 문체적 특성을 분석했다. 특히 심리적 고통, 인간성 갈등,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룬 독창적 주제와 시적 산문 형식의 글쓰기가 높이 평가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한강 문학의 국제적 가치를 전달하고 중국 독자들이 그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II.2.2. 수상 소식 전달 특성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중국 언론 보도의 약 26.8%는 "수상 소식 전달"

유형으로, 수상 발표 직후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이 보도는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수상 이유를 간결히 전하며, 주로 발표 후 24시간 이내 작성되었다.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과 수상의 국제적 의의를 소개하며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강조했다. 대체로 중립적 논조를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최초 여성 수상자로서의 상징성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II.2.3. 문학적 영향력 평가 특성

"문학적 영향력 평가" 보도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그의 작품이 한국 및 세계 문학에 미친 영향을 다루며, 전체 기사 중 약 17.9%를 차지한다. 이 보도는 한강의 대표작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보편적이고 독창적으로 탐구한 점,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공로, 그리고 시적 산문과 문학적 실험성을 강조한다. 그의 작품은 세계 독자들에게 공감과 성찰을 유발하며, 한국의 현대사와 문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 점이 평가되었다.

II.2.4. 사회적 반응 및 인터뷰 특성

"사회적 반응 및 인터뷰" 보도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사회적 파급효과와 공감을 다루며, 전체 기사 중 12.5%를 차지했다. 한국과 국제 사회의 긍정적 반응, 문학적 메시지의 보편성, 그리고 작가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수상의 의미를 조명했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문학 여정과 작품의 치유적 역할을 공유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제공했다. 대중은 그의 작품이 사회적 갈등과 인간 존재를 탐구한다고 평가했으며, 보도는 작가, 독자, 문학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II.3. 보도의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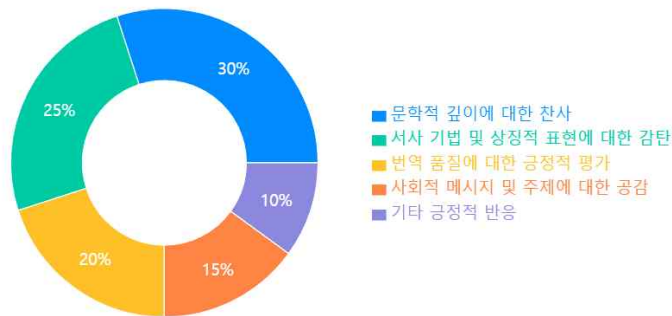
보도 유형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특성 및 설명
작가 소개 및 작품 분석	70%	25%	5%	긍정적 감성이 우세하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업적과 작품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 부정적 감성은 거의 없으며, 주로 작가의 문학적 여정을 조명.
수상 소식 전달	80%	20%	0%	수상 자체를 축하하고, 노벨문학상의 의의를 강조하는 긍정적 논조가 대부분. 중립적 감성은 정보 전달에 초점. 부정적 감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
문학적 영향력 평가	65%	30%	5%	긍정적 논조가 주를 이루며, 한강 문학이 세계 문학에 기여한 가치를 강조. 일부 중립적 감성은 학술적 접근 방식에서 기인하며, 부정적 감성은 작품의 어두운 주제와 관련된 비판에서 소수 발생.
사회적 반응 및 인터뷰	75%	20%	5%	수상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작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 감성이 주를 이루며, 대중적 자부심과 공감을 유발. 부정적 감성은 작가의 작품이 다루는 비극적 주제에서 일부 드러남.
기타	50%	40%	10%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된 기사들로 중립적 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부정적 감성은 주로 한국 문학의 국제적 수용에 대한 도전 과제와 번역의 어려움에서 기인.

감성 분석 결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 언론과 독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강 문학이 단순히 작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Ⅲ. 중국 문학계 반응 분석

Ⅲ.1. 중국에서 한강 작품의 수용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중국에서 그의 작품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작품인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는 인간성, 사회적 억압 등 보편적 주제를 독창적 문체로 다루며 공감을 얻었다. 번역과 출판은 수용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섬세한 표현과 문학적 깊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강 문학은 중국 독자들에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창구로 기능하며, 학술적 분석과 사회적 담론 형성으로 이어졌다. 판매량 증가와 독자 리뷰를 통해 한강 작품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한강 문학이 동아시아 및 세계 문학 속에서 독창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2. 한강 작품의 연구 특징

중국 학술 데이터베이스 CNKI에서 한강 작가 연구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중심으로 2020~2024년 사이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는 여성주의, 서사 구조, 생태학적·철학적 관점, 역사적 맥락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여성주의 연구는 억압과 저항, 자유를 탐구하며 동아시아 여성주의 담론에 기여했고, 서사 구조 분석은 고통과 갈등의 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역사적 맥락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조명했다. 한강 문학은 독창성과 철학적 깊이로 한국 문학의 국제적 가치를 알리고 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학술적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Ⅲ.3. 한강 작품 번역 현황 분석

한강 작가의 작품은 번역과 출판을 통해 중국과 대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별하지 않는다>, <흰>은 각기 다른 번역자에 의해 원작의 문체와 주제를 충실히 반영하며 출간되었다. 번역자들은 작품의 심리적, 철학적 깊이를 감각적으로 전달했고, 이를 통해 한강 문학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 문학 속에서 독창성과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植物妻子(채식주의자), 崔有学역, 上海文艺出版社, 2014.
- 素食者(채식주의자), 胡椒筒역, 四川文艺出版社, 2021.
- 少年来了(소년이 온다), 尹嘉玄역, 漫遊者文化, 2023.(대만)
- 永不告别(이별하지 않는다), 卢鸿金역, 漫遊者文化事业股份有限公司, 2023.(대만)
- 白(흰), 胡椒筒역, 四川文艺出版社, 2022.



Ⅲ.4. 한강 작품 <채식주의자>의 수용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노벨문학상 수상 전부터 중국에서 주목받았다. 이 작품은 젠더 문제, 사회적 규범, 생태적 메시지를 탐구하며 중국 독자와 학계에 강한 공감을 일으켰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중국 젊은 여성 독자들과 공명했으며, 상징적 서사와 철학적 메시지는 생태문학적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섬세한 번역은 언어적 장벽을 넘어 작품의 깊이를 전달하며 중국 내 수용을 촉진했다. 또한, 이 작품은 학술적 담론을 활성화하며 한강 문학의 학문적 가치를 확립했다.

Ⅳ. 결론: 한강 문학 수용과 전망

한강 작가의 작품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작품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은 번역 및 출판을 통해 문학적, 학술적 논의로 확장되었으며,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는 보편성과 독창성, 동아시아적 역사 맥락은 한강 문학이 지속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번역 품질 향상, 역사적 맥락 보완, 덜 알려진 작품의 소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강 문학은 동아시아 문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일본 언론에 비친 한강의 작품세계와 일본 출판계의 한국 문학 번역

김영진(한국외대)¹⁷³⁾

I. 서론

본 발표는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세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기획 주제 발표로, 일본 언론에 비친 한강의 작품세계와 일본 출판계의 한국 문학 번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 2. 일본에서의 한강 작품 번역 현황 및 작품 수용의 특징, 3. 일본 출판계의 한국 문학 번역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II. 일본 언론에 비친 한강의 작품세계와 일본 출판계의 한국 문학 번역

1.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

2024년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직후의 일본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노벨문학상에 한국 작가 한강 씨, 아시아 출신 여성으로는 최초”-《NHK 웹 뉴스》(2024.10.10.)-

② “노벨문학상은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국 작가인 한강 씨에게, 채식주의자 등 일본에서도 많은 작품을 번역”-《요미우리 신문》(2024.10.10.)-

③ “한국 작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의 수상”-《아사히 신문》(2024.10.10.)-

④ “노벨문학상 한강 씨, 2016년에는 아시아인 최초의 맨부커상”-《마이니치 신문》(2024.10.10.)-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타이틀보다는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점에 주목한 표제가 눈에 띈다. 이는 일본 언론이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120명의 남녀 성비 불균형(남성 103명: 여성 17명) 및 아시아 여성 작가의 수상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점(비아시아권 여성 작가 17명: 아시아권 여성 작가 0명)에 주목하여 한강 작가의 수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권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면면(①타고르(인도, 1913년 수상), ②슈무엘 요세프 아그논(이스라엘, 1966년 수상), ③가와바타 야스나리(일본, 1968년 수상), ④오에 겐자부로(일본, 1994년 수상), ⑤오르한 파묵(튀르키예, 2006년 수상), ⑥모옌(중국, 2012년 수상)에서 확인되듯, 과거

17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강의중심교수, 일본 근세 문학 전공

123년간(1901-2023) 아시아 출신 여성 작가의 수상은 없었다.

[표1]

노벨문학상	전 세계 남성	전 세계 여성	아시아 남성	아시아 여성
역대 수상자	103명	18명*	6명**	1명*
세계 인구(2023)	약 40억 명	약 40억 명	약 24억 명	약 24억 명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포함했을 경우/**프랑스 국적 중국인 가오싱젠(2000년 수상)과 영국 국적 일본인 가즈오 이시구로(2017년 수상)는 아시아 남성 작가로 포함하지 않음)

그리고 이는,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남성 25명:여성 0명)를 개탄한 《마이니치 신문》(2024.10.5.)의 기사 “언제일까? 일본 여성이 노벨상을 타는 날, 탄식하는 전문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노벨상 자연과학 3부문(생리학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의 고작 4%인 연인원 26명(퀴리 부인 중복 수상)만이 여성이며, 아시아 여성은 1명(중국인) 현실을 개탄한 신문 기사가 나온 며칠 뒤의 한강 작가 수상 소식인지라, 한국 최초보다는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신문 기사 표제가 나오게 된 것이다.

2. 일본에서의 한강 작품 번역 현황 및 작품 수용의 특징

일본에서의 한강 작가 작품의 단행본 번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일본에서의 번역본 출간 연도순).

- ①《채식주의자 肉食主義者》(김훈아 역, 쿠온(CUON), 2007/2011년 번역본 출간)
-----2016년 5월, 한강 작가 맨부커상 수상-----
 - ②《소년이 온다 少年が来る》(이데 슌사쿠 역, 쿠온(CUON), 2014/2016년 10월 번역본 출간)
 - ③《희랍어 시간 ギリシャ語の時間》(사이토 마리코 역, 쇼분샤 晶文社, 2011/2017년 번역본 출간)
 - ④《가만가만 부르는 노래(가만 조용히/そっと 静かに)》(후루카와 아야코 역, 쿠온(CUON), 2007/2018년 6월 번역본 출간)
 - ⑤《흰(모든, 하얀 것들의/すべての、白いものたちの)》(사이토 마리코 역, 카와데 쇼보 신샤 河出書房新社, 2016/2018년 12월 번역본 출간)
 - ⑥《회복하는 인간 回復する人間》(사이토 마리코 역, 하쿠스이샤(白水社), 2013/2019년 번역본 출간)
 - ⑦《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引き出しに夕方をしまっておいた》(김훈아·사이토 마리코 공역, 쿠온(CUON), 2013/2022년 번역본 출간)
 - ⑧《작별하지 않는다 別れを告げない》(사이토 마리코 역, 하쿠스이샤 白水社, 2021/2024년 번역본 출간)
- *한강 작가의 단편 두 개가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소개된 2개의 작품집은 제외함.
-----2024년 10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한강 작가 작품의 일본 내 번역이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이후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몇몇 작품의 경우 제목의 의역도 있으나 대체로 원제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의 일본어 번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재일 동포(자이니치 코리안)나 일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훈아 씨(성신여대 일문과 졸, 일본 센슈 대학 박사, 61세)가 번역한 ❶《채식주의자(菜食主義者)》는, 드물게 대학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네이티브 한국인이 한 한일 번역이다.

한강 작가의 작품 번역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일본인 번역가는 사이토 마리코 씨(메이지 대학 문학부 졸(사학 전공), 1991년 연세어학당 유학, 64세)다. 2018년에 일본에서 번역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비롯하여 한국 소설만 35작품 넘게 번역하였다. 주요 번역가 2명의 면면을 보면, 한강 작가(54세)와 비슷한 시기의 지구별에서 같은 공기를 적어도 반 백년 이상은 함께 마셨던 동 세대의 아시아 여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 중, 노벨상 위원회와 한강 작가 본인이 독자에게 추천한 작품([표2]) 및 교보 문고와 가도카와 서점의 인기 순위([표3])는 다음과 같다.

[표2]

순위	노벨상 위원회 추천작품	한강 작가 자천 작품
1	❶채식주의자	❸작별하지 않는다
2	❷소년이 온다	❺흰
3	❹희랍어 시간	❶채식주의자

[표3]

순위	교보문고 10월 4주차 순위	가도카와 서점 독서 메타 순위
1	❶채식주의자	❶채식주의자
2	❷소년이 온다	❺흰
3	❸작별하지 않는다	❹희랍어 시간

맨부커상 수상작인 ❶은 당연히 인지도가 가장 높고, ❷과 ❸은 각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및 제주 4.3 사건과 관련이 있기에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에 비해 일본 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에 대한 일본 인터넷 사이트의 별 평점 순위는 제각각이지만, <가도카와 서점 독서 메타>에서는 ❶ 《채식주의자 菜食主義者》 다음으로 ❺ 《흰(모든, 하얀 것들의/すべての、白いものたちの)》과 ❹ 《희랍어 시간 ギリシャ語の時間》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본 출판계의 한국 문학 번역

일본 출판계는 외국 문학 작품이 안 팔리기로 악명이 높다. 과거, 일본의 모 출판사 편집 회의에서 누군가가 한국 작가 작품의 번역 출판을 건의했더니 상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회사 말아먹을 작정이냐?**”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출판계의 선입견을 깨고 일본 독자층을 확보한 선구자적인 한국 문학 작품이 바로 《82년생 김지영》이다. 페미니즘 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일본 문학계에서 《82년생 김지영》은 ‘남편=주인’인 나라에서 살아왔던 일본 여성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2024 세계 남녀 격차(세계 경제포럼 발표) 94위인 한국 여성과, 118위인 일본 여성은 결국 다 같은 아시아 여성이었다.

페미니즘 문학의 불모지인 일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있다. 교토의 스모 경기장 도호(고운 입자의 흙으로 쌓아올린 씨름판으로 여성은 등단 불가)에서 사람이 쓰러지자, 여의사가 심장 응급 구명 조치를 하려고 도호 위로 올라간 일이 있었다. 그러자 곧 장내 안내 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여성분은 도호에서 내려가 주십시오! 여성분은 도호에서 내려가 주십시오!...” 여성이 내려가고 난 뒤, ‘신성한’ 도호에는 ‘부정한’ 기운을 없애는 ‘흰 소금’이 뿌려졌다. 2018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페미니즘을 내세운 한국 여성 작가의 작품이 외국 문학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읽히게 된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계가레 관념(더러움을 기피하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려는 신도 사상)에 기반한 뿌리 깊은 양성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문제의식과 동병상련의 공감이 있었다. 또,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한국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한국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국 여성 작가의 작품이 2010년대 이후 일본에서 대거 번역 소개되는 데에는 2000년대의 한류 붐 영향으로 윤사마를 응원해 준 일본인 여성 한류 팬들의 한국어 학습 붐과 한국에 유학 와 한국어를 익히고 돌아간 일본인 여성 번역가, 그리고 한국 여성 작가의 작품을 읽고 응원해 준 일본인 여성 독자들의 힘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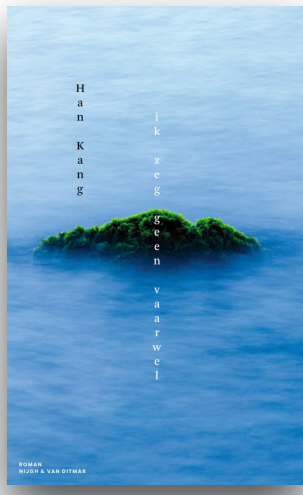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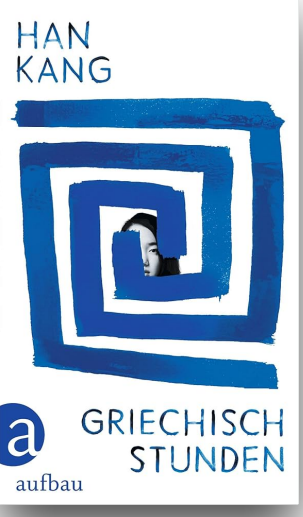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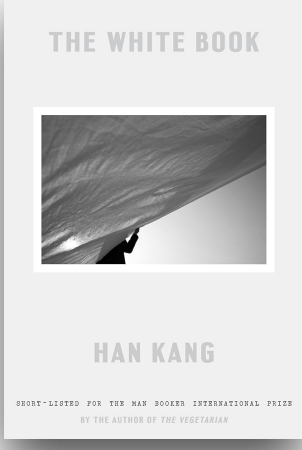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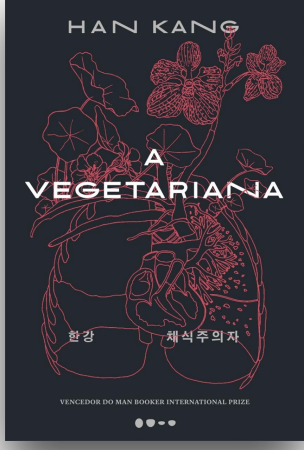

깨끗이 도배된 벽지처럼 무늬 맞춰 발라진/한국 문학사 앞에서/나 오늘 한 마리 쥐벼룩/여류 쥐벼룩.
-1989년에 발표된 김승희 시인의 <내가 없는 한국 문학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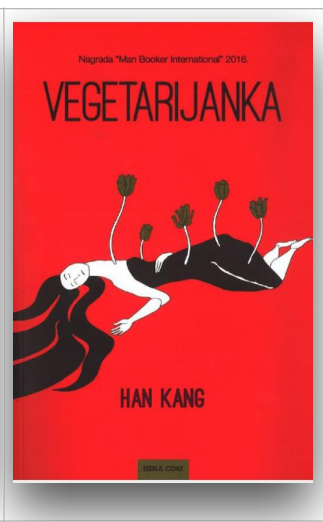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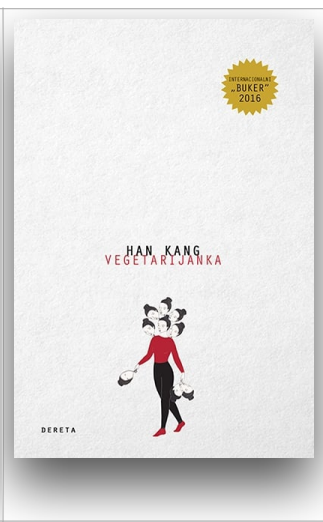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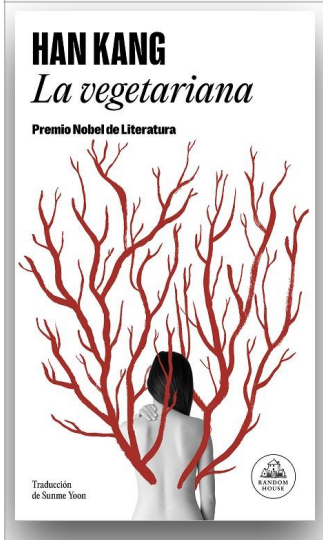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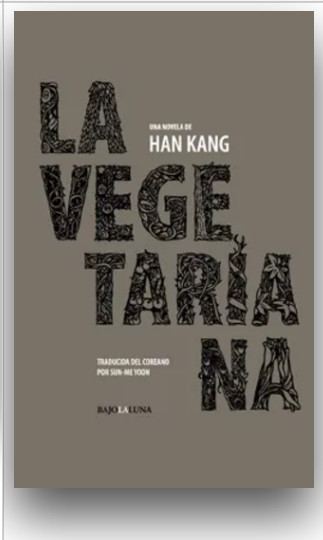

78년생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외국 문학과 페미니즘 문학의 불모지였던 일본 출판계를 개척했다고 한다면, 70년생 한강 작가는 ‘세계를 호흡하는 젊은 가슴’으로 언어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로 나갔다. 한국 문학사에서 자신을 스스로 ‘여류 쥐벼룩’이라 비하하며 자괴감을 토로했던 52년생 김승희를 비롯한 선배 여성 작가들의 한을 풀어 주듯이 후배 여성 작가들이 한국 문학사를 뛰어넘어 세계 문학사의 바다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대거 등단한 이들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 준 주요 독자는 다름 아닌 《90년생이 온다》의 주인공이기도 한 한국 여성들이었다.


Ⅲ. 결론

2024년 10월 15일, 박경리의 《토지》가 일본의 쿠온(CUON) 출판사에서 완역 출간되었다. 《완전판 토지 完全版 土地》의 제19권과 제20권이 간행되면서 일본어 완역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결된 것이다. 일본의 역사소설 《대망(원제:도쿠가와 이에야스)》을 도둑 번역하여 읽던 시절이 가고, 한국 여성 작가가 쓴 대하소설 《토지》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당당히 읽히는 K-번역 시대의 여명이 밝아 왔다.

영미권 여성 작가에 비하면 아시아 여성 작가는 출발선에서부터 핸디캡을 안고 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번역이라는 날개옷을 잘만 이용하면, 아시아 여성 작가도 얼마든지 세계로 비상할 수 있음을 한강 작가는 보여주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번역이라는 날개를 달아 기적을 일으켰고, 123년간 열리지 않던 문이 열렸다. 2024년은 한국 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며, 박경리 작가도 하늘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터이다.

 <p>HAN KANG MENSENWERK Roman Nijgh & Van Ditmar</p>	 <p>Han Kang ik zeg geen vaarwel ROMAN NIJGH & VAN DITMAR</p>	 <p>HAN KANG DE VEGETARIËR Roman Nijgh & Van Ditmar</p>	 <p>Nobelpreis für Literatur 2024 Han Kang Weiß aufbau</p>
네델란드 소년이 온다	네델란드 작별하지 않는다	네델란드 채식주의자	독일 흰
 <p>HAN KANG DEINE KALTEN HÄNDE ROMAN aufbau</p>	 <p>HAN KANG »Ein Meisterwerk.« Der Spiegel Nobelpreis für Literatur 2024 MENSCHENWERK ROMAN atb</p>	 <p>HAN KANG UNMÖGLICHER ABSCHIED ROMAN aufbau Nobelpreis für Literatur 2024</p>	 <p>HAN KANG GRIECHISCH STUNDEN aufbau</p>
독일 그대의 찬 손	독일 소년이 온다	독일 작별하지 않는다	독일 희랍어시간
 <p>THE WHITE BOOK HAN KANG SHORT-LISTED FOR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BY THE AUTHOR OF THE VEGETARIAN</p>	 <p>HAN KANG Atos humanos •••</p>	 <p>HAN KANG A VEGETARIANA 한강 채식주의자 VENCEDOR DO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p>	 <p>HAN KANG O livro branco •••</p>
미국 흰	브라질 소년이 온다	브라질 채식주의자	브라질 흰

			
<p>세르비아-크로아티아 소년이 온다</p>	<p>세르비아-크로아티아 채식주의자의자1</p>	<p>세르비아-크로아티아 채식주의자의자2</p>	<p>스웨덴 소년이 온다</p>
			
<p>스웨덴 작별하지 않는다</p>	<p>스웨덴 채식주의자</p>	<p>스웨덴 흰</p>	<p>스페인 채식주의자의자1</p>
			
<p>스페인 채식주의자의자2</p>	<p>아랍</p>	<p>아르헨티나 채식주의자</p>	<p>이탈리아 소년이 온다</p>

 <p>Han Kang Non dico addio ADELPHI</p>	 <p>Han Kang La vegetariana ADELPHI</p>	 <p>Adelphi eBook Han Kang CONVALESCENZA PREMIO NOBEL PER LA LETTERATURA 2024 ADELPHI</p>	 <p>Han Kang L'ora di greco ADELPHI</p>
<p>이탈리아 작별하지 않는다</p>	<p>이탈리아 채식주의자</p>	<p>이탈리아 회복하는 인간</p>	<p>이탈리아 희랍어시간</p>
 <p>ഹാറൻ കാങ് വെജിറ്റേറിയൻ Han Kang THE VEGETARIAN 2024 NOBEL PRIZE WINNER</p>	 <p>மரக்கறி THE VEGETARIAN ஹான் காங் தமிழில்: சுமயவேல்</p>	 <p>そっと 静かに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ハン・ガン=著 古川綾子=訳</p>	 <p>引き出しに 夕方を しまっておいた ハン・ガン きむふな 漢語表現 回復に導く 詩の言葉 モリスソン・韓・詩 01 CUON</p>
<p>인도_말라얄람어_채식주의자</p>	<p>인도_타밀어_채식주의자</p>	<p>일본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p>	<p>일본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p>
 <p>少年が来る 소년이 온다 ハン・ガン=著 井手俊作=訳</p>	 <p>告げない ハン・ガン 斎藤真理子 訳 I&K 白水社 EXLIBRIS 作별하지 않는다 Han Kang</p>	 <p>菜食主義者 채식주의자 ハン・ガン=著 きむふな=訳</p>	 <p>ハン・ガン 回復する人間 斎藤真理子 訳 I&K 白水社 EXLIBRIS 노무구리영진 Han Kang</p>
<p>일본 소년이 온다</p>	<p>일본 작별하지 않는다</p>	<p>일본 채식주의자</p>	<p>일본 회복하는 인간</p>



일본 희랍어시간



일본 흰



중국 소년이 온다



중국 작별하지 않는다



중국 채식주의자1



중국 채식주의자2



중국 채식주의자3



중국 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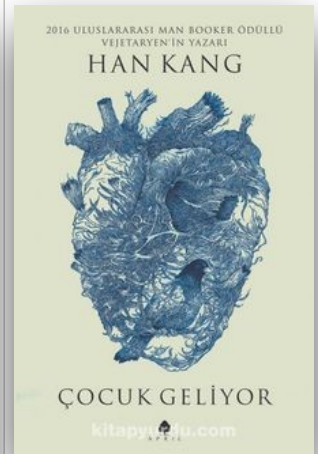
체코 소년이 온다



체코 채식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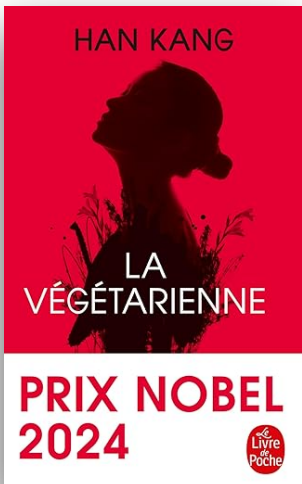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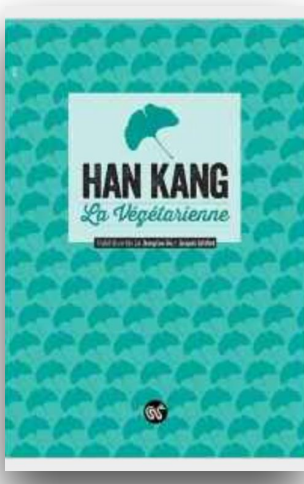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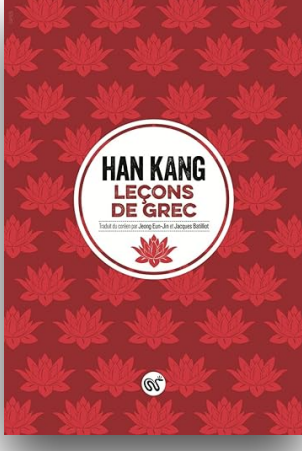





체코 흰



튀르키예 소년이 온다

<p>튀르키예 작별하지 않는다</p>	<p>튀르키예 채식주의자</p>	<p>튀르키예 흰</p>	<p>포르투갈 소년이 온다</p>
<p>포르투갈 흰</p>	<p>폴란드 작별하지 않는다</p>	<p>폴란드 채식주의자</p>	<p>폴란드 흰</p>
<p>프랑스 바람이 분다, 가라</p>	<p>프랑스 바람이 분다, 가라2</p>	<p>프랑스 소년이 온다</p>	<p>프랑스 작별하지 않는다</p>

			
프랑스 채식주의자	프랑스 채식주의자2	프랑스 채식주의자3	프랑스 희랍어 시간
			
프랑스 희랍어 시간2	프랑스 흰	영미어권 채식주의자	영미어권 흰